



고등 국어 **하**
(박영민 외) 6~9 단원

6 세상을 바라보는 예리한 눈

01 매체를 통해 보는 세상

확인문제

012쪽 01 ⑤ 02 자막

013쪽 03 ⑤ 04 전문

014쪽 05 ⑤

01 주한 뉴질랜드 대사는 내년 12월에 열릴 로토루아 머드 축제의 개최를 위해 기술과 비법을 배우러 보령 머드 축제장을 찾았다. 뉴질랜드 로토루아 시에서 이미 머드 축제가 열린 것은 아니므로 ⑤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기자의 마지막 말을 통해 올해로 열아홉 번째를 맞은 보령 머드 축제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직접 보령 머드 축제장을 찾아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고 그 소감을 말하고 있다.

③ 보령시는 뉴질랜드 로토루아 시에 5년간 머드 원액을 수출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④ 영상 자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02 가의 텔레비전 보도에서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인터뷰를 음성 언어와 영상으로 전달하면서 자막을 함께 사용하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03 나에 보령 머드 축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드러나 있으나, 다른 나라의 축제와 비교하며 보령 머드 축제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는 보령시가 머드 축제를 해외에서 처음 전파한 곳으로 소개되었을 뿐이다.

[오답풀이] ① 외국인 관광객들이 머드 축제를 즐기고 있는 사진을 함께 제시하여 기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② 보령 머드 축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를 구체적인 통계 자료로 제시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③ 보령 머드 축제가 수출되면서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는 의미를 전하며 그간의 발전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④ 보령 시장이 한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면서 앞으로 머드 축제가 세계 유명 축제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04 기사는 일반적으로 '표제-부제-전문-본문-해설'로 구성된다. 나 는 '표제-부제-전문-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설은 생략되었다.

05 다를 통해 머드 축제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열리는 행사라는 사실은 알 수 없다. 광고 문구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축제가 열리는 기간과 장소 등과 같은 정보는 홍보를 위한 인쇄 광고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이다.

② 광고지 가운데에 축제명을 영어로 표기하여 외국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광고에 제시된 그림을 통해 축제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행사들(다양한 색으로 착색된 머드 바르기, 머드 미끄럼틀 타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사물놀이 복장을 한 한국인과 수영복을 입은 외국인이 어우러지는 그림을 넣어 세계인의 축제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학습 활동

확인문제

017쪽 **생각 모으기** 01 ④ 02 인터넷 03 (1) ○ (2) × (3) ○ 04 긍정적, 문제점

019쪽 **생각 펼치기** 05 누리소통망(SNS) 06 나, 다, 모

01 인쇄 광고는 문자 언어와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 영상은 사용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텔레비전은 음성 언어, 영상, 문자 언어(자막) 등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한다.

② 신문은 문자 언어와 사진이나 그림, 도표와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내용을 전달한다.

③ 신문은 '표제-부제-전문-본문(-해설)'로 구성되며, 특히 표제와 본문, 사진 등에서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가 잘 드러난다.

⑤ 인쇄 광고는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득적인 성격을 지닌다.

02 사진, 그림, 동영상 등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매체는 인터넷이다.

03 (1)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인터뷰 장면을 직접 보여 주면 정보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2) 나 는 신문 기사이므로 영상을 제공할 수 없다. 영상 대신 보령 머드 축제를 즐기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제시하고 있다.

(3) 다 는 인쇄 광고로 보령 머드 축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참여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설득적 성격이 강하다.

04 가의 텔레비전 뉴스와 나 의 신문 기사에서는 보령시가 뉴질랜드 로토루아 시와 머드 축제의 수출과 관련하여 협약을 맺은 사실을 알리며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고

있는 보령 머드 축제를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활동 4'에 제시된 인터넷 기사에서는 보령 머드 축제의 장단점을 모두 제시하되 축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05 누리소통망(SNS)은 온라인상에서의 인맥을 기반으로 하여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가 가능한 매체로 인맥 생성 및 확대, 강화가 쉽게 이루어진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06 표현 방법이 창의적인지(ㄱ), 표현 방법에서 글쓰이의 개성이 발현되었는지(ㄴ)는 문학 작품의 창작과 관련된 평가 기준으로 적절하다. 매체에 드러난 글쓰이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

소단원 평가 문제

022~023쪽

01 ③ **02** ① **03** ⑤ **04** ③ **05** ② **06**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01 (가)와 (나)는 축제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취재하여 시청자나 독자에게 보다 생생하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반면 (다)는 앞으로 벌어질 행사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내용 전달에 있어서 현장감을 중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가)~(다)는 모두 보령 머드 축제에 관한 정보를 각각 텔레비전, 신문, 인쇄 광고 매체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② (가)의 주한 뉴질랜드 대사 인터뷰 장면이나 (나)의 축제를 즐기는 외국인들 사진 자료는 독자가 정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④ (나)는 신문 기사이므로 문자 언어와 사진을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다)는 인쇄 광고이므로 문자 언어와 이미지를 통해 주요 정보를 전달한다.

⑤ (다)는 축제를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가)~(나)에 비해 설득적 성격이 강하다.

02 (가)의 텔레비전 뉴스와 (나)의 신문 기사에서는 보령 머드 축제가 매우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고, 외국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보령시와 뉴질랜드 로토루아 시와의 수출 협약을 소개하며 보령 머드 축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가), (나)에서는 보령 머드 축제의 기술과 비법이 세계로 수출되며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③ (가)에 축제에서 시행되는 체험 행사는 제시되어 있지만, 체험 행사를 더 다양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나)에 보령시가 스페인에 이어 뉴질랜드와 머드 축제와 관련된 수출 협약을 맺었다는 정보는 있으나, 보령시가 머드 축제와 관련된 콘텐츠 수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보령 머드 축제에 외국인보다 한국인의 참여가 더 많아야 바람직하다는 내용은 (가), (나)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03 (가)에서 주한 뉴질랜드 대사는 뉴질랜드에서 열릴 로토루아 머드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술과 비법을 배우러 축제장을 찾았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① 다른 나라에서 머드 축제의 기술과 비법을 배우러 오고, 머드 원액을 수출하는 등 보령 머드 축제는 세계적인 유명한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기자의 마지막 말을 통해 올해의 보령 머드 축제가 열아홉 번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다양한 색으로 착색된 머드를 얼굴에 바르며 신기한 듯 미소를 띠었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보령시는 뉴질랜드에 내년부터 5년간 머드 원액을 수출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하였다.

04 인쇄 광고의 이미지를 통해 외국인들도 축제에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참여하는 외국인들의 국적을 알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대천 해수욕장 머드 광장 및 시내 일원'으로 축제 장소가 제시되어 있다.

② '2016년 7월 15일~24일'로 축제 날짜 및 기간이 제시되어 있다.

④ '주최 | 보령시'로 축제를 주최하는 기관이 광고의 아랫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⑤ 이미지에 머드 체험, 미끄럼틀 놀이 등 축제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제시되어 있다.

05 (나)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고 있는 보령 머드 축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보령시가 뉴질랜드와 머드 축제의 수출과 관련하여 협약을 맺었음을 전달하고 있다. 반면에 <보기>는 보령 머드 축제의 장단점을 함께 언급하며 축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는 보령 머드 축제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만을 드러냈던 (나)와는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다.

오답풀이 ① (나)는 보령 머드 축제가 여러 나라에 수출되면서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 머드 축제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을 알리고 있지는 않다.

③ <보기>와 (나) 모두 보령 머드 축제가 재미있는 행사임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다는 통계 자료를 제시할 뿐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보기>는 한쪽으로 몰리는 인파를 분산해야 할 필요성은 제기하고 있으나 관광객 유치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⑤ 특정 체험 시설 앞에 인파가 몰려 있는 모습은 <보기>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적절하지만, 축제에 대해 긍정적인 면만 제시하고 있는 (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적절하지 않다.

06 서술형

축제명을 영어로 표기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홍보 효과를 의도한 것이다.

02 마지막 땅

확인 문제

027쪽 01 ⑤ 02 꽃샘바람

028쪽 03 (1) ○ (2) × 04 강 노인의 외모와 행동을 묘사하여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029쪽 05 ⑤ 06 서울 것들이란.

030쪽 07 ① 08 연탄재, 팔팔 올림픽

031쪽 09 ㄱ, ㄴ, ㄹ

032쪽 10 ⑤ 11 ④

033쪽 12 (1) × (2) ×

034쪽 13 ②

035쪽 14 ④

036쪽 15 ②

037쪽 16 ① 17 서울 바람

038쪽 18 ② 19 땀방울

01 (가)~(나)에는 원미동 주민인 원미 지물포 주 씨, 행복 사진관 엄 씨와 동네 아이들에 대한 소개만 제시되어 있을 뿐 인물들이 갈등을 겪게 되는 계기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나)는 소설의 구성 단계 중 발단 부분으로 작품의 배경을 제시하고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다.

② (가)~(나)에는 소설의 공간적 배경인 원미동의 풍경이 드러나 있다.

③ 이 글은 작가가 등장인물의 행동과 태도는 물론 그의 내면세계까지도 분석하여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④ (나)에는 부산에서 미장일을 하다가 원미동으로 오게 된 원미 지물포 주 씨, 딸 셋을 기르며 스스로 행복한 사나이라고 말하는 행복 사진관 엄 씨, 하루 종일 장난치며 놀기에 바쁜 동네 아이들 등 소박하고 평범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02 꽃샘바람은 이른 봄, 꽃이 필 무렵에 부는 쌀쌀한 바람을 뜻한다. 지독한 꽃샘바람이 분다는 표현을 통해 이 글의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 끝나 가지만 아직 날씨가 따뜻해지기 전인 늦겨울 또는 초봄임을 알 수 있다.

03 (1) (다)에서 강 노인은 칠순에 가까운 나이이지만 나이에 비해 체격이 건장하고 목소리도 우렁차며 몸도 건강해 보이는 편이라고 그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2) (라)에서 강남 부동산 박 씨 부부가 강 노인을 제외하고 원미동 23통에서 가장 오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들보다 더 오래 원미동에 산 사람은 강 노인이다.

04 강 노인의 외양에 대한 묘사와 용문이를 부르는 행동, 용문이를 대하는 모습 등을 통해 꾸밈이 없고 씩씩하며, 주관이 뚜렷하고 당당한 강 노인의 성격을 알 수 있다.

05 (바)를 통해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강 노인의 땅을 사려는 임자가 나타났지만 강 노인이 절대 땅을 팔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강 노인에게는 결혼해서 따로 사는 아들이 둘이나 있다고 하였다.

② 강 노인은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도움받지 못하고, 건강상과 이층에 세 사는 이가 다달이 내미는 월세만 가지고 사는 형편이라고 하였다.

③ 강 노인은 시가 몇 억짜리의 땅에 고추 농사를 짓고 있다.

④ 강 노인은 시청으로 통하는 2차선 도로의 양편에서 여전히 밭 농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였다.

06 자신의 밭에 연탄재를 버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대해 강 노인은 '서울 것들이란.'이라고 욕하고 있다. 이 표현은 땅의 소중함을 모르는 동네 주민들에 대한 강 노인의 부정적인 심정이 반영되어 있는 말이다.

07 고흥댁은 같은 동네 사람이라는 인정에서 자기들이 강 노인의 땅을 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뿐 중개 수수료를 깎아 준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②, ③ 고흥댁은 자신들은 셋방이나 얻어 주고 소개료 받는 것으로 살 수 있지만, 한동네 사는 정리로 강 노인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④ 박 씨는 팔팔 올림픽 전에 북에서 쳐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소문 때문에 더 이상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⑤ 박 씨는 유 사장이 다른 땅을 보러 다닌다고 이야기하며 유 사장을 놓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08 연탄재, 팔팔 올림픽이라는 소재를 통해 소설의 배경이 1980년대임을 알 수 있다.

09 강 노인은 겨울에 쉬고 있는 밭에 연탄재를 내다 버리는 것은 서울 것들이나 할 수 있는 짓이라 여긴다(ㄱ). 또 땅값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땅값을 운운하는 박 씨 부부를 보며 서울 것들은 자신이 땅을 팔지 않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고 여긴다(ㄴ). 또 인분을 쓰며 농사를 짓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댁새가 난다고 하는 서울 것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긴다(ㄷ).

10 동네 사람들이 강 노인의 밭에 연탄재를 내다 버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수확량이 줄었다는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중략 부분 줄거리'에 제시되어 있다.

② 강 노인은 밭에서 풍기는 인분 냄새 때문에 동네 사람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③ 강 노인의 아내도 강 노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네 사람들과 갈등만 일으키는 땅을 팔아서 자식을 뒷바라지나 해 주라고 극성을 부리고 있다.

④ 강 노인이 억척스레 눌러 놓은 땅을 팔아 아들딸 밑에 쏟아부었으나 거두어들이는 게 없었다고 하였다.



11 23통 6반 반장인 미용실 여주인은 강 노인이 반상회에 나와서 주민들에게 농사에 대해 직접 해명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덧붙여 강 노인이 못 나오게 되면 그 가족인 강 노인의 아내라도 반상회에 나오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강 노인의 아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강 노인에게 꼭 나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강 노인이 반상회에 꼭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② 정미 엄마가 가만있을 것 같지 않다는 말로 정미 엄마가 매우 화가 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③ 강 노인이 짓는 농사에 대해 5반의 무궁화 연립에 사는 사람들까지 몰려와 항의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⑤ 반상회의 주요 안건이 강 노인의 발농사 문제인만큼 당사자가 와서 입장을 밝혀 주기를 바라고 있다.

12 (1) 정육점을 하는 임 씨는 2년 전 강 노인에게 “어디를 쇠백정이.”라고 자기 직업을 비하하는 발언을 듣고 강 노인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에 강 노인의 농사를 반대하며 집주인들을 부추기는 것일 뿐 집주인이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2) 동네 사람들 중에서 지물포 주 씨나 사진관 엄 씨 등 강 노인에게 공손하게 인사하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였다.

13 이 글에는 강 노인이 자식들과 약속을 하였다거나 자식들이 강 노인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자식들을 ‘월급쟁이는 마다하고 떼돈 벌 궁리에 떼돈만 날리는 녀석들’이라고 하였다.
③ ‘간덩이만 부어서 일만 크게 벌여 놓’는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
④ ‘누구 돈이든 쏟아붓고 보자는 저 설부른 행동’이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일만 크게 벌여 놓고 뒷감당은 모두 아버지에게 떠넘기는 짓들이 오늘까지 계속이었다.’라는 내용을 통해 강 노인에게 손 벌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14 ㉔ 뒤에 이어지는 말은 도로 청소원인 김 씨가 자신의 아내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사실로 믿고 강 노인에게 인사차 건넨 말로, 땅을 팔 생각이 없는 강 노인의 입장에서 매우 기가 막힌 이야기였으므로 강 노인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따라서 김 씨가 강 노인에게 땅 팔기를 권유하고자 한 말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입이 짝 벌리고’에서 강 노인이 매우 놀랐음을 알 수 있다.
② ‘짐승의 처사’라는 표현은 대상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말이다.
③ ‘죄 없는 풀잎’과 ‘차마 바로 볼 수 없어서’라는 표현을 통해 모종을 안쓰러워하는 강 노인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신발을 제대로 신지도 못할 만큼 강 노인의 마음이 급했음을 알 수 있다.

15 은혜 엄마는 그 몇 달 사이의 몇 폰 안 되는 이자를 탐내다가 경국이 엄마에게 돈을 떼일 뻔한 처지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는 작은 이익을 탐내다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 ‘소탐대실(小貪大失)’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상전벽해(桑田碧海)’는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③ ‘오비이락(鳥飛梨落)’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④ ‘일거양득(一舉兩得)’은 한 가지 일을 해서 두 가지 이익을 거둔다는 의미이다.
⑤ ‘조삼모사(朝三暮四)’는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이르는 말이다.

16 강 노인의 아내는 큰아들 용규의 말을 믿어 주는 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규가 하는 말을 진심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강 노인에게 땅을 팔아 아들을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② 강 노인이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이전에도 땅을 팔았음을 알 수 있다.
③ 강 노인은 땅값이 들먹거리는 통에 자식들이 푼수로 커 버렸다고 말하고 있다.
④ 빗쟁이들이 몰려올 것을 알면서도 용규 내외는 강 노인만 믿고 무책임하게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⑤ 강 노인은 땅을 팔아 자식들의 뒷감당을 해야 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17 강 노인은 원미동의 개발 열풍이 서울에서 온 것이라고 여기면서 이를 ‘서울 바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18 강 노인은 자식들로 인해 땅을 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강남 부동산을 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땅에 미련과 애착이 남아 있어서 아내에게는 이런 내색을 하지 않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강 노인이 집에서 늦게 나가는 했지만 이를 아내에게 숨겼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강 노인은 밭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가는 것을 아내에게 숨기려고 한다.
④ 땅 파는 문제로 아내와 다투기는 했지만, 강 노인은 당당하고 주관이 뚜렷한 인물이므로 성격상 아내와의 화해를 고민할 인물은 아니다.
⑤ 자식을 꽤섬하게 여기는 마음은 이미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충분히 아내에게 드러났다.

19 원미산은 강 노인이 젊은 시절부터 나무를 하기 위해 오르내리던 공간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시야에 들어오는 존재이다. 그러나 강 노인의 땅은 과거에는 마음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땅이었지만 현재는 팔아야 할 상황에 처한 공간이다. 두 공간의 공통점은 강 노인의 땀방울(노력)이 묻어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확인 문제

041쪽 **생각 모으기** 01 ㄱ, ㄷ 02 정신적, 물질적

045쪽 **생각 펼치기** 03 아시안 젊은 남녀 04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 05 (1) × (2) × (3) ○

01 동네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강 노인의 밭에서 인분 냄새가 난다는 것을 불만 사항으로 내세우기는 하지만(ㄱ), 또 다른 이유로는 강 노인의 땅이 도로변에 있는 바람에 땅값이 오르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 강 노인의 밭농사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다(ㄷ).

[오답풀이] ㄴ. 강 노인은 마을에서 땅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지주가 맞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굴었다는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ㄹ. 강 노인의 큰며느리가 동네 사람들에게 밭을 많이 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동네 사람들과 강 노인이 갈등을 겪은 것은 아니다.

02 강 노인은 땅을 삶의 근원으로 여기며 자신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는 존재로 생각한다. 즉, 강 노인은 땅의 전통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땅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동네 사람들은 동네가 개발되어 땅값이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땅을 물질적 가치로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이 시의 ‘나’는 국철을 타고 앉아 가다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에 이끌려 아시안 젊은 남녀를 관찰하고 있다.

04 ‘나’는 외국인에 대해 차별적 인식과 편견을 가진 채 아시안 젊은 남녀를 관찰하고 있는데,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는 수면 위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 이 모습을 보고 ‘나’는 새들처럼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히 동승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낀다.

05 (1) ‘나’에게 아시안 젊은 남녀는 차별적 인식을 가진 채 호기심으로 관찰하는 대상이지 적개심을 느끼는 대상은 아니다.

(2) ‘서로 마주 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껏속말할 뿐 /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라는 시구에서 아시안 젊은 남녀에게 ‘나’는 호기심의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제목 ‘동승’은 깃털 색깔이 각기 다른 새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져 있는 것처럼 외국인들에 대해 차별적 인식과 편견을 갖지 말고 이들과 함께 공존하려는 포용적 태도를 지녀야 함을 상징하고 있다.

01 ⑤ 02 세상에 막된 인종들 03 ⑤ 04 ⑤ 05 ④ 06 ② 07 ③ 08 ③ 09 ③ 10 ③ 11 ④ 12 ⑤ 13 원미산 14 ① 15 ②

01 강 노인은 아내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땅을 팔자고 해서 화를 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팔육인가 팔팔인가 땀에 도로 주변 미화 사업이 한창이겠는데’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겨울 빈 밭에 내다 버리는 것이야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우리 아버님 근력이 쇠하셔서 올해일랑은 더 이상 일을 못 하시니까 파실 모양이더라고 말했다는군요.’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저도 우리 집 여편네한테 들은 소리라서.’를 통해 알 수 있다.

02 강 노인은 동네 사람들이 겨울 빈 밭에 연탄재를 버린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으나 모종이 심겨 있는 밭에 연탄재를 버린 행위에는 몹시 분노하였다. ‘세상에 막된 인종들’은 생명을 품고 있는 땅의 가치를 모르는 동네 사람들에게 대한 강 노인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 표현이다.

만자병의 조언

반상회에 참석하지 않은 강 노인에게 화가 난 동네 사람들은 고 추 모종이 심겨 있는 밭에 연탄재를 내다 버렸어요. 이로 인해 동네 사람들과 강 노인의 갈등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강 노인은 생명을 품고 있는 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땅에 해코지를 하는 동네 사람들의 행동을 ‘명백히 짐승의 처사’로 보고, 이들을 ‘세상에 막된 인종들’이라 욕하며 분노하고 있어요.

03 강 노인 아내의 말로 보아 강남 부동산 박 씨는 강 노인의 땅에 은행과 병원을 짓게끔 계획되어 있다고 말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강 노인이 땅을 팔지 않을 경우 은행과 병원이 들어올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제시된 내용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⑤의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땅 팔아서 아들 살리고’라는 부분을 근거로 할 수 있다.

② ‘남은 돈은 은행에 넣어 이자나 받으면 우리 식구 신간이사 편치 뭘 그러슈.’라는 부분을 근거로 할 수 있다.

③ ‘밭에다 그 지경을 해 댄 걸 보면 오죽했겠수. 뭐, 틀린 말도 아니고.’라는 부분을 근거로 할 수 있다.

④ ‘시에다 팔면 금이나 제대로 쳐 줍디까? 그 전에 제 가격 받고…….’라는 부분을 근거로 할 수 있다.

04 손가락만 한 고추 모종이 깔려 있는 밭에 연탄재들이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본 강 노인은 너무 놀라 입을 썉 벌리고 선 채 할 말을 잃었다. 이러한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멍하니 정신을 잃음.’을 의미하는 망연자실(茫然自失)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오리무중(五里霧中)'은 오리나 되는 짙은 안개 속에 있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 대하여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② '심심상인(心心相印)'은 말없이 마음과 마음으로 뜻을 전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③ '침소봉대(針小棒大)'는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림을 의미하는 말이다.

④ '사상누각(沙上樓閣)'은 모래 위에 세운 누각이라는 뜻으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오래 견디지 못할 일이나 물건을 이르는 말이다.

05 도로 청소원인 김 씨에게 자신이 땅을 팔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온 강 노인은 땅을 내놓았다는 소문을 듣고도 태평한 아내를 보면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서운함을 느꼈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강 노인이 억울함을 느낄 일은 없다.

② 미안함은 강 노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강 노인의 아내가 어려운 사정을 겪고 있는 자식들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다.

③ 측은함은 죄 없이 연탄재 폭격을 맞은 모종들에게 강 노인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다.

⑤ 이 글에서 강 노인이 고마움을 느낄 대상은 매년 노력한 만큼의 수확을 안겨 주는 땅 외에는 없다.

06 김 씨는 몹시 화를 내는 강 노인의 태도에 움찔하며, 반사회에서 강 노인의 며느리가 한 말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말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땅을 판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 강 노인의 모습을 보고 김 씨가 의아해하며 던진 말이다.

③ 강 노인의 아내는 며느리가 나쁜 의도를 지니고 한 말이 아니라 곤란해서 던진 말일 것이라고 며느리를 감싸 주고 있다.

④ 강 노인의 아내는 '밭에다 그 지경을 해 댄 걸 보면 오죽했겠수'라고 하며 주민들이 한 행동에 대해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⑤ 강 노인의 아내는 어차피 정책적으로도 강 노인에게 유리할 일이 없을 것임을 제시하며 강 노인에게 땅을 팔자는 뜻을 전하고 있다.

07 강 노인이 농사를 고집하는 것은 땅을 이익 창출의 수단이 아닌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고 그 땅을 지키며 농사짓는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싶어서이다.

[오답풀이] ① 강 노인의 아내는 땅을 비싼 값에 팔기를 바라고, 땅을 판 돈으로 자식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땅을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산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팔팔 올림픽 등의 국제 대회가 겹치면서 농사를 짓는 강 노인의 땅이 개발 대상이 된 것이다.

④ 고추 모종이 자라고 있는 밭에 연탄재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땅을 생명체 또는 삶의 근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⑤ 강 노인은 땅을 함부로 하는 것은 서술 것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여기고 있다.

08 이 글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 글의 서술자는 강 노인의 시각에서 지난 일을 반추하며 땅을 팔아야 하는 결심을 내리기까지의 심정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작품 밖 서술자가 특정 인물(강 노인)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일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② 이 글에서는 장면에 따라 서술자가 바뀌고 있지 않다.

④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⑤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관찰자의 시각에서 서술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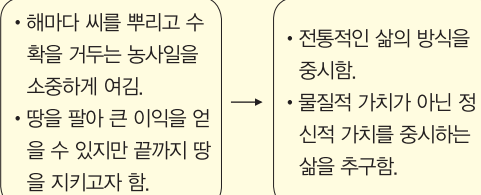
09 강 노인이 자신에게 정서적 위안을 주는 땅을 도시화 과정에서 지켜 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땅의 전통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정신적 가치를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강 노인이 삶의 터전인 '땅'을 물질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마지막 땅 조각을~큰 힘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씨 뿌린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수확이~쌀 사고 채소 사며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⑤ '자식 농사는 포기한 지 오래지만~포기할 수 없는 그였다.'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핵심국립 ▶ '강 노인'을 통해 드러나는 사회·문화적 가치



10 '마지막 땅'은 표면적으로 강 노인이 붙들고 있는 마지막 토지를 의미한다. 강 노인은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 때문에 땅을 많이 팔았지만, 남은 땅은 농사를 지으며 살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그 소망도 또 자식들 문제로 지켜지지 못하고 땅을 팔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글의 제목인 '마지막 땅'은 도시화 물결을 견디지 못하고 땅의 본질적인 의미를 지키지 못한 채 결국 땅을 팔기로 결심하는 강 노인의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마지막 땅'은 땅을 경제적 가치로 여기는 동네 사람들의 생각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땅의 본질적 가치가 사라지고 있는 세태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다.

② 강 노인이 땅 매매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강 노인은 땅을 파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지, 제값을 받지 못하고 땅을 파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강 노인은 땅의 전통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므로 농사짓는 것 외에 땅을 다양하게 활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 11 강 노인의 아내는 급한 대로 땅을 일부만 팔아 자식 뒷바라지를 하자고 제안한다. 아내의 제안에 강 노인이 버럭 화를 낸 것은 땅을 팔아도 제값 받기 힘들어서가 아니다. 지금까지 자식 뒷바라지를 하느라 그 많던 땅을 다 팔았기 때문에 남은 땅이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자식을 도와줬으면 하고 바라는 강 노인의 아내에 반해, 강 노인은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부정적이다.

② 강 노인의 아내는 강 노인이 조금만 도와주면 아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지만, 강 노인은 돈이라는 것은 쉽게 벌면 쉽게 쓰게 된다고 생각한다.

③ 강 노인의 아내는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는 아들네 공장 사정을 들어 땅을 팔자고 말하고 있다. 강 노인은 땅값이 오르는 상황 때문에 자식들을 망쳤다고 생각한다.

⑤ 강 노인의 아내는 땅보다 자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농사 일은 강 노인에게 삶의 근본과도 같아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다.

- 12 (다)는 강 노인이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더듬어 보는 지난날의 사건들과 그에 대한 강 노인의 심리가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므로 과거의 일에 대한 요약적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강 노인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 있다.

[오답풀이] ① 강 노인의 가치관은 시종일관 변함이 없다.

② 강 노인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 있을 뿐, 앞으로의 사건에 대한 암시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중심인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소개하는 것은 아니다.

④ (다)에 인물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새로운 사건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는 강 노인 스스로 일이 이 지경에 이른 이유를 더듬어 보고 있는 부분이다.

- 13 땅을 팔아야겠다고 결심한 강 노인의 눈에 그가 젊었을 적부터 항상 견재하고 있는 원미산 장대봉이 눈에 들어왔다. 원미산의 변함없는 모습은 이제 사라질 땅의 운명과 대조되면서 땅을 팔아야 하는 강 노인의 허망한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 14 강 노인은 그동안 자식들이 벌여 놓은 일의 뒷감당을 위해 많은 땅을 팔았다. ㉠은 이번에도 두 아들이 저질러 놓은 일을 강 노인이 땅을 팔아 해결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④ 그동안 땅을 팔라는 회유에 묵묵히 맞선 강 노인이었지만, 자식들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땅을 팔 수밖에 없게 되었다.

⑤ 강 노인은 농사를 지어 아들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판 돈으로 아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다.

- 15 강 노인은 땅을 팔기로 결심했지만 땅에서 자라는 고추 모종, 아욱, 개나리 등을 보자 물을 줘야겠다는 생각부터 하고 있다. ㉡~㉣는 팔아야 할 땅에 대한 강 노인의 미

련을 드러내는 동시에 땅에서 자라는 것들에 대한 강 노인의 애정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풀이] ㄴ, 강 노인에게 희망적인 일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ㄹ, 채소나 개나리 등은 원미동의 밝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소재라 기보다 강 노인의 밭에서 자라는 생명체로, 강 노인이 애정을 기울이고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03 책으로 세상 읽기

학습 활동

C 확인 문제

061쪽 **활동 1, 2** 01 (1) ○ (2) ○ 02 (1) 삶, 문화 (2) 대안, 토의

063쪽 **활동 3** 03 ㄱ, ㄴ, ㄷ 04 글이나 내용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 수집하기, 05 생각

- 01 (1) 이 글의 글쓴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생산 가능 인구를 축소하여 노동력의 약화를 불러온다고 하였다. 이는 곧 국가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2) 이 글의 글쓴이는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가 제시한 해결 방안 중 첫 번째가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여서 저출산의 심각성 인식과 국내 적정 인구 규모의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들고 있다.

- 02 (1) 사회적 문제를 다룬 글을 읽을 때는 독자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2) 책을 읽고 형성한 생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활동 중 하나인 토의하기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을 수 있다.

- 03 사설은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견을 써내는 논설(論說)'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문의 사설은 모둠에서 형성한 최적의 대안을 담은 논설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 04 신문을 구성하는 내용의 담당자를 정한 뒤, 내용을 구체화하기 전 단계에서는 글이나 내용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적합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 05 책을 읽고 개인적으로 의미를 구성한 뒤에 친구들과 책 내용을 공유하면 생각이 보다 확장될 수 있다.

- 01 ④ 02 ① 03 ④ 04 ② 05 ⑤ 06 아이 덜 낳기 운동
07 ⑤ 08 상호 작용

01 이 글은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칼럼이다. 글쓴이는 신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감소하는 현실을 문제로 여기고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드러내고 있다. 개인의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④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칼럼은 글쓴이의 주장이 담긴 글로,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

② 칼럼에는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견이 드러난다.

③ 칼럼은 신문, 잡지 따위에 실리는 글로, 주로 시사, 사회, 풍속 등에 관하여 짧게 평을 한다.

⑤ 문제 해결 방안과 그 실현 방법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02 (가)에서 국내 출산과 혼인 건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이 글에서 전문가의 이론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젊은 여성 직장인들이 경력 단절을 걱정하여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된 점과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높기 때문임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어려운 개념을 다른 대상에 유추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 원인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⑤ 여러 나라의 사례를 분석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3 글쓴이는 저출산이라는 사회적인 현상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감소는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결과가 아니며, 노동 대체 현상 또한 새로운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답풀이] ① 저출산은 인구 감소로 직접 연결된다.

②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된다는 것은 곧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의 축소는 노동력 약화로 이어진다.

⑤ 저출산이 고령화와 맞물리게 되면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진다.

04 이 글은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는 출생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육아 문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마)에서 사회 전체가 육아에 참여하는 ‘육아 공동체’를 형성해야 비로소 한국에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해결 방안이 드러나지 않았고, 저출산이 고령화로 이어진다는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지 않았다.

③ 사회적 합의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④ 세대 간 불화를 해소한다고 해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⑤ 이 글에서는 남녀의 동등한 육아를 주장하기보다는 남녀가 협력하는 육아를 강조하고 있다.

05 이 글의 글쓴이는 저출산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해결 방안인 새로운 육아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내용에서 다세대 공존 주택 환경을 조성하여 대가족 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무적으로 대가족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나)에 확인할 수 있는 실현 방법이다.

② (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현 방법이며, 이를 통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당위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하였다.

③ (라)에서 다자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임을 받아들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④ (마)에서 여성은 물론 남성도 육아 휴직을 편히 쓰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출산과 육아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06 이 글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라)에서 과거에는 이와 반대로 ‘아이 덜 낳기 운동’이 실시되었으며 이로 인해 출생율이 1980년 이후에 떨어지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7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활동을 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문제점을 직시하게 됨은 물론, 자신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자연스럽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

[오답풀이] ① 자신의 생각을 형성하여 다른 사람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지, 자신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아니다.

②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읽기는 독자의 머릿속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 작용하면서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③ 글쓴이가 제시한 문제 해결 방안의 논리적 허점을 찾기 위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은 아니다.

④ 글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기 때문에 글에 제시된 사회적 문제는 현 시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문제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해 글을 읽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다.

08 읽기 행위는 독자가 글을 읽고 머릿속에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속한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며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의미를 구성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의 과정이다.

확인 문제

071쪽 01 불이 났다. 02 예전에 간 데가 어디쯤인지 모르겠다.

01 그가 모욕적인 말을 듣고 화가 난 상황이다. 즉, 몹시 화가 나는 일을 당하여 감정이 격렬해진 상태이므로 ‘불이 나다’라는 관용구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02 이 문장에서의 ‘데’는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므로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쯤’은 ‘정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대단원 모의고사

074~077쪽

01 ③ 02 축제의 긍정적인 면만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03 ⑤
04 ③ 05 ① 06 ② 07 ① 08 ⑤ 09 ⑤ 10 물질적
가치 11 ④ 12 ② 13 사회 전체가 육아에 참여하는 육아 공
동체 형성

01 (가)에서는 기자의 말을 통해, (나)에서는 이미지를 통해 축제에서 벌어지는 행사를 알 수 있다. <보기>는 머드 축제의 수출과 관련된 정보를 중심으로 전달하고 있을 뿐 축제에서 어떤 행사가 진행되는지 짐작하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가)는 텔레비전 뉴스로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매체이고, (나)는 인쇄 광고, <보기>는 신문 기사이기 때문에 음성 언어를 사용할 수 없고 문자 언어를 주로 사용한다.

② (나)는 축제를 홍보하는 것이 목적인 광고지이기 때문에 (가), <보기>와 달리 설득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④ (가)에서는 세계인이 함께 하는 축제임을 강조하고 있고, (나)에서는 영어를 사용한 문구와 외국인이 그려진 그림을 통해 외국인들도 참여하는 축제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서도 축제에 참여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어났다는 정보와 축제에 참여한 외국인들의 사진 자료를 통해 외국인들도 참여하는 축제라는 점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⑤ (가)는 영상과 사진 등, (나)는 그림이나 사진 등, <보기>는 그림이나 사진, 도표 등의 시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02 서술형

(가)는 보령 머드 축제의 긍정적인 면만 소개하고 있다. 축제의 부작용이나 보완점, 사람들의 불만점 등은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내용 구성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03 (가)에서 기자가 머드 축제장의 즐거운 분위기를 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실의 전달에 가까우며 시청자들에게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①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인터뷰를 직접 제시하여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얻고 있다.

② 뉴스의 처음과 끝에서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커나가고 있음을 반복하여 강조의 효과를 주고 있다.

③ (가)의 주요 내용은 보령시가 뉴질랜드와 머드 축제 수출 협약을 맺었다는 사실이다.

④ 축제 관련자인 보령 시장의 인터뷰 중 보령 머드 축제를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만들어 가겠다고 한 부분에서 축제에 대한 밝은 전망을 느낄 수 있다.

04 (나)에서 외국인과 사물놀이 복장을 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보령 머드 축제가 내국인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축제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볼 수는 없다.

05 (가)에서 집값 상승에 방해가 되는 강 노인의 발을 두고 동네 사람들과 강 노인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는데, (나)에서 모종이 심겨 있는 강 노인의 발에 동네 사람들이 연탄재를 버림으로써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오답풀이] ② 강 노인의 발이 집값 상승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한 동네 사람들이 강 노인의 농사를 반대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동네 사람들과 강 노인이 갈등을 겪고 있으므로 갈등의 원인은 (가)에도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갈등의 속성은 일관적이며 이 글 전체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다.

④ (가)에서 갈등이 풀릴 것이라는 실마리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동네 주민들 중에서도 집주인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강 노인 간의 갈등이므로 개인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06 (가)에는 강 노인의 발에서 나는 인분 냄새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다고는 하지만,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은 코앞에 발을 두고 있어도 강 노인에게 예의를 갖추고 별다른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집주인들이 집값 상승만을 우선시하여 강 노인을 예의 없게 대하고 강 노인의 발에도 해코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작가는 강 노인에게 대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인물들을 제시하여 이웃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따지며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태도를 옹호하는 삶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07 미용실 여주인은 강 노인에게 자신이 들은 이야기임을 전제하며 상황을 전하고 있다. 자신의 생각을 담기보다는 주민들의 말을 간접 화법으로 전하면서 현재 동네의 안 좋은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앞으로 주민들이 농사를 막을 것이라는 점을 전달하고는 있으나,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③ 현재 동네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을 뿐, 강 노인을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농사 시작 전에 막겠다는 동네 사람들의 입장과 이제는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시청의 입장은 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대조적인 의견이라 볼 수 없다.

⑤ 상황을 과장하여 이야기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8 큰며느리가 강 노인이 땅을 팔 것이라는 말을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때늦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도 동네 사람들은 강 노인이 땅을 팔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강 노인이 땅을 팔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동네 사람들은 연탄재를 밟아 버린 것이다.

② 큰며느리가 강 노인이 땅을 팔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 연탄재를 밟아 던진 것을 보면, 그 말을 들은 후에도 동네 사람들의 불만이 진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반상회에서 동네 사람들이 큰며느리에게 강 노인의 농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항의하자 결국 큰며느리가 강 노인이 땅을 팔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④ 집주인들이 특히 강 노인의 농사를 반대하는 것을 보면 강 노인에게 땅을 팔라고 재촉하는 것이 꼭 인분 냄새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09 (나)에서 강 노인이 연탄재로 짓붕개진 밭에 곧바로 달려들어 간 것은 맞지만, 땅을 상한 채로 오래 두면 더 큰 화가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생명이 있는 모종들을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 서둘러 연탄재를 치운 것이다.

[오답풀이] ① '살아 있는 밭'이라는 표현을 통해 드러난다.

② '목숨이 붙어 자라고 있는', '죄 없는 풀잎' 등을 통해 나타난다.

③, ④ '서울 것들이나 되니 살아 있는 밭에 해코지할 생각을 갖지, 땅을 아는 자라면 저 시퍼런 하늘이 무서워서라도 감히 이따위 행패를 생각이나 하겠는가'를 통해 알 수 있다.

10 동네 사람들은 인분 냄새에 대한 항의로 강 노인의 밭에 연탄재를 던지며 강 노인이 농사짓는 것을 반대하는데, 이는 강 노인네 땅에 번듯한 건물이 들어서서 동네의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동네 사람들은 땅을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보고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1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경력 단절'은 출산을 한 여성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육아를 전담하게 됨으로써, 결국 육아로 인해 더 이상의 외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경력 단절이 일어난다는 의미이다. 출산을 한 여성의 업무 능력에 관한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글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이 글에서 현재 결혼 적령기 층은 '아이 덜 낳기 운동'으로 출생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세대로, 대개 두 명 이하의 형제 속에서 성장하여 다자녀 가정을 매우 낯설게 느낀다고 하였다.

③ 교육 기관이나 매체 등에서 다자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임을 기회가 될 때마다 알리려고 노력해야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⑤ 여성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육아의 책임을 대가족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과 함께 부담하는 협력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12 <보기>는 결혼한 여성이 낳는 자녀 수도 줄어들고 있는 하지만 젊은 층의 결혼 기피 경향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더욱 심각한 원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 글의 글쓴이는 가장 시급한 것이 결혼을 앞둔 젊은 세대들의 출산과 결혼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결혼 적령기 층의 인식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 방안을 제시할 계획을 세웠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이 글에서는 결혼 적령기 층과 결혼한 여성을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지 않다.

③ 결혼을 하게 되면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소된다는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 때문에 결혼 이후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이며 이 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⑤ 제시된 부분에는 결혼한 여성들이 자녀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일어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13 서술형

이 글의 마지막 단락을 살펴보면, 새로운 육아 문화를 이루기 위한 실행 방안으로 남녀가 함께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다세대 공존 주택 환경 조성이나 지역이나 기업의 육아 시설 확충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가 육아에 참여하는 육아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대단원 서술형 평가

078~080쪽

01 (가)~(나)는 보령 머드 축제와 관련된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인 데 반해, (다)는 보령 머드 축제를 널리 알려서 사람들에게 축제에 참여할 것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02 보령시는 뉴질랜드 로토루아 시와 머드 축제 수출 협약을 체결함.

03 (나)는 보령 머드 축제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고 있는 데 반해, <보기>는 축제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04 땅의 소중함을 모르 채, 자신의 밭에 연탄재를 내다 버린 동네 사람들의 몰상식한 행동에 화가 났기 때문이다.

05 "영감님도 욕심 그만 부리고", "금액이야 영감님 마음에 맞게 잘 조정해 보기로 하고"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박 씨 부부는 강 노인이 땅값을 더 받기 위해 땅을 팔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06 ㉠ 동네 사람들이 강 노인의 밭에서 풍겨 오는 인분 냄새에 불쾌감을 느낀다. ㉡ 강 노인은 밭에 버려진 연탄재를 치우느라 돈도 들고 힘이 든다.

07 자기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 01 (가)는 텔레비전 뉴스이고 (나)는 신문 기사이다. 이 두 매체는 어떤 사실에 대한 정보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적·객관적 성격을 지닌다. 반면, (다)는 광고지로 축제 홍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설득적인 성격을 지닌다.

채점 기준	배점
(가)~(나)와 (다)의 목적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정확하게 서술하였으며 (다)의 매체가 지니는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서술하였다.	6점
(가)~(나)와 (다)의 목적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서술하였으나 (다)의 매체가 지니는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서술하지는 못하였다.	4점
(가)~(나)와 (다)의 목적 중 하나만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2점

- 02 (가)에 제시된 사실 정보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축제장을 방문한 것과 보령시가 뉴질랜드 로토루아 시와 머드 축제 수출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것 등이다. (나)에 제시된 사실 정보는 보령시가 뉴질랜드 로토루아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머드 원료 등을 수출한다는 것, 스페인 토마토 축제장에 머드 체험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머드 축제를 처음 해외에 전파했다는 것,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축제장을 방문한 것, 외국인 관광객의 축제 참가가 증가했다는 것 등이다.

채점 기준	배점
(가)~(나)에서 공통으로 전하고 있는 사실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 <조건>에 맞게 서술하였다.	6점
(가)~(나)에서 공통으로 전하고 있는 사실 정보를 정확하게 찾았으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3점

- 03 (나)는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반면 <보기>는 보령 머드 축제의 장단점을 모두 제시하고 보령 머드 축제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전달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나)와 <보기>에 나타난 관점의 차이를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6점
(나)와 <보기>의 관점을 각각 서술하기는 했지만, 두 관점의 차이를 제대로 밝혀 서술하지 못하였다.	4점
(나)와 <보기>의 관점 중 하나의 관점만 제대로 서술하였고, 다른 하나는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2점

- 04 ‘서울 것들이란.’은 자신의 밭에 연탄재를 버린 동네 사람들을 향해 강 노인이 한 말로, 땅의 소중함을 모르는 동네 사람들에게 대한 강 노인의 부정적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동네 사람들이 연탄재를 밭에 버린 행위와 땅에 대한 강 노인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도록 서술하였다.	6점
동네 사람들의 행동과는 연관 지어 서술하였으나 땅에 대한 강 노인의 가치관은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3점

- 05 (나)의 “영감님도 욕심 그만 부리고 ~ 왜 못 알아들으실까잉.”이라는 고흥덕의 말과 “금액이야 영감님 마음에 맞게 잘 조정해 보기로 하고”라는 박 씨의 말을 통해 박 씨 부부는 강 노인이 땅값을 더 비싸게 받기 위해 땅을 팔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근거가 되는 구절 두 군데를 모두 찾아 제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박 씨 부부가 추측하고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6점
근거가 되는 구절은 한 군데만 제시하였지만, 박 씨 부부가 추측하고 있는 이유는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4점
근거가 되는 구절은 한 군데도 제시하지 못하였지만, 박 씨 부부가 추측하고 있는 이유는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2점

- 06 여름내 강 노인의 밭에서 나는 인분 냄새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동네 사람들이 겨울에 연탄재를 밭에 내다 버려서 매년 겨울이면 강 노인의 밭이 쓰레기장으로 변해 버린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강 노인은 봄마다 생돈을 들여 연탄재를 치워야 하는 손해를 입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과 ㉡을 각각의 입장에 맞게 정확하게 제시하였고, 문장의 형태도 통일하여 서술하였다.	6점
㉠과 ㉡을 각각의 입장에 맞게 정확하게 제시하였으나, 문장의 형태를 통일하여 서술하지 못하였다.	4점
㉠과 ㉡ 중에서 하나만을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2점

- 07 읽기 행위는 독자가 글을 읽고 사회 구성원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의 과정이다. 독자가 자기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자기의 의견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소통한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6점
자기의 의견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소통한다는 내용 중 하나만 제시하여 서술하였다.	3점

7 설득이라는 이름의 창과 방패

01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

C 확인 문제

- 086쪽 **01**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 **02** 그래프, 근거
- 087쪽 **03** (1) 교차 조사 (2) 찬성 **04** 토론자의 발언 내용 정리, 토론 진행
- 088쪽 **05** (1) × (2) ×
- 089쪽 **06**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규제하면 비만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이다. **07** (1) 경제적 (2) 미국, 덴마크
- 090쪽 **08** ① **09** 비만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음주와 흡연이다.
- 091쪽 **10** (1) 세금 (2) 반론 **11** (1) × (2) ○
- 092쪽 **12** ①
- 093쪽 **13** 국민 건강 증진, 사회 경제적 비용 감소 **14** (1) ○ (2) ×

01 (가)에서 토론의 개최를 알리는 사회자의 말에서 이 토론의 논제를 알 수 있다.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가 이 토론의 논제로, 찬성 측의 입론을 시작으로 토론이 진행될 것임을 알리고 있다.

관찰자의 조언

이 토론의 논제는 어떤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루는 정책 논제에 해당된답니다.

02 (나)에서 찬성 1은 ‘당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 소비를 감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도 비만을 추정을 보여 주는 그래프를 제시한 것은 근거의 객관성을 높여 주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03 (1) (다)에서 반대 측 토론자가 질의응답 형식으로 찬성 측의 입론 내용을 검증하는 교차 조사를 하고 있다.
(2) 비만의 원인이 당 섭취에 있다고 한다면,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자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논제에 대한 찬성 측 주장이다.

04 (다)에서 사회자가 ‘찬성 측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과도한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토론자의 발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또한 ‘이에 반대 측 토론자, 교차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은 토론의 순서를 제시하며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다.

05 (1) 당이 몸에서 에너지로 쓰인다는 사실은 당의 순기능으로 사실인 내용이다. 찬성 1은 당의 순기능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혈당을 급격하게 높여서 당뇨병이나 대사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당의 역기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2) 반대 1이 근거로 제시한 미국의 설탕 소비량과 비만의 관계에 따르면 비만의 원인이 당에만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 당 섭취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비만을 낮출 수 없으므로 이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06 (바)에서 찬성 2는 일정 기준 이상의 당을 함유한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소비가 억제되어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고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즉,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찬성 측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도 비만의 사회 경제적 총비용에 관한 그래프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07 (1) (바)에서 찬성 2는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사)에서 반대 1은 미국과 덴마크에서의 일명 ‘설탕세’ 정책이 실패한 사례를 들어 고당류 음료의 가격 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08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처럼 가치 판단의 기준을 상대와 공유하면서 어떤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더 수용할 만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논제를 가치 논제라고 한다. 하지만 이 토론의 논제, 즉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과도한 당 섭취라는 사안에 대해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논제이다.

09 ①의 자료는 음주·흡연·비만의 사회 경제적 총비용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건강 보험 정책 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비만보다 음주와 흡연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대 2는 비만보다 음주와 흡연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임을 알리기 위해 ①의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 10 (1) (자)에서 찬성 2는 고당류 음료에 부과된 세금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할 것이므로 개인과 국가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 2는 고당류 음료에 부과된 세금이 직접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쓰일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은 고당류 음료에 부과된 세금의 활용 방법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양측의 입론과 교차 조사가 끝나자 (차)부터는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반론 단계에 들어간다. 반론은 입론과 교차 조사에서 나온 쟁점들을 정리하여 상대측의 주장과 근거가 참인지 검증하고 자기의 주장이 지닌 강점을 강화하는 단계이다.

- 11 (1) 음료 가격을 올려서 얻은 세금이 직접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쓰일지 확신할 수 없으며 세금의 징수와 집행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반대 2이다. 반대 측은 고당류 음료에 부과된 세금과 국민 건강을 위한 예산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 (2) (차)에서 반대 1은 당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펼치고 있다. 그 근거로 인체의 필수 성분인 소금도 과다 섭취하면 설탕과 마찬가지로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 12 ㉠은 국내 유통 중인 가공식품의 '영양 성분표' 예시이다. 반대 2는 소비자 대부분이 해당 식품의 영양 성분을 확인하지 않으므로, 식품에 영양 성분 표시를 하거나 경고 문구를 넣는 방법 등으로 당 섭취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답풀이] ㉡ 반대 2는 소비자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 다음, 식품에 영양 성분 표시를 하거나 경고 문구를 넣는 방법으로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을 보고 식습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반대 측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에 반대하고 있다.

㉣ ㉠에는 당류가 37g 함유되어 있다는 것은 제시되어 있으나,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당의 비율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인할 수 없다.

㉤ 반대 2의 반론에 따르면 소비자 대부분이 ㉠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반대 2가 ㉠을 최대한 자세히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3 찬성 측은 고당류 음료를 통한 과도한 당 섭취를 경계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차)를 보면 찬성 2는 입론에서 했던 발언을 정리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를 위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14 (1) 이 토론은 정책 논제를 바탕으로 교차 조사식 토론을 하고 있다. 교차 조사식 토론은 찬반 양측이 각각 입론을 할 때 상대측 토론자가 교차 조사를 하는 방식이다. 모든 토론자의 입론과 교차 조사가 끝난 뒤에는 반론의 시간을 갖고 토론이 마무리된다.

(2) (카)에서 사회자는 토론을 마무리하고 있다. 토론의 개회에서 토론의 배경과 논제 등을 소개하며 토론의 시작을 알렸던 것처럼, 토론의 마무리에서는 토론이 끝났음을 알리고 배심원(청중)들의 판정을 유도하고 있다. 찬반 양측이 토론 내용을 상호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학습 활동

확인 문제

097쪽 **생각 모으기** 01 ㉡ 02 ㉠ 03 가, 다, 라 04 (1)
○ (2) × (3) ○ (4) ○

101쪽 **생각 펼치기** 05 ㉤ 06 안락사가 유기 동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07 (1) × (2) × (3) × 08
쟁점, 근거

- 01 이 글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입론을 할 때 상대측의 토론자가 교차 조사를 하는 토론 방식인 교차 조사식 토론을 담고 있다.

[오답풀이] ㉠ 이 토론의 중심 화제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 인상 정책을 도입해야 하는가의 여부'이다.

㉢ 이 토론의 논제는 정책 논제로서 어떠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루고 있다.

㉣ 토론에서는 일정한 토론 규칙과 진행에 따라 주장과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이 토론에 나오는 네 명은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누어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자기편의 주장과 근거를 입증하고 있다.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두 사람 이상의 전문가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토론은 심포지엄에 해당한다.

- 02 비만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음주와 흡연이라고 보는 것은 가공 음료를 통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대 측의 입장이다. 찬성 측은 가공 음료를 통한 과도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국내의 고도 비만율이 계속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과도한 당 섭취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03**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루는 정책 논제로, 자신의 주장이나 제안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토론이 진행된다.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 ‘운동선수의 병역 특례, 폐지해야 한다.’, ‘지식 재산권을 위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각각 동물 실험, 운동선수의 병역 특례, 지식 재산권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 논제이다. 그러나 ‘존엄사, 자기 권리인가 생명 경시인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 바람직하지 바람직하지 않은지 등 가치 판단이 개입하는 주제를 다루는 가치 논제에 해당한다.

핵심국립 논제의 유형

사실 논제	•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논리적인 사실 입증이 필요한 논제 • 믿을 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입증하며 주장을 펼쳐야 함.
가치 논제	• 어떤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더 수용할 만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논제 • 가치 판단의 기준을 상대측과 공유하면서 어떤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더 수용할 만한지를 입증해야 함.
정책 논제	•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문제점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 논제 • 자신의 주장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현재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함.

- 04** (1) 찬성 측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라는 논제에 찬성하고 있으므로,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인 문제의 심각성, 문제 해결의 가능성, 효과 및 개선 이익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논증을 구성해야 한다.
 (2) 반대 측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라는 논제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찬성 측이 제기한 주장을 반증할 수 있는 논증을 구성해야 한다.
 (3) 반대 1은 당 역시 인체의 필수 영양소인 탄수화물의 일종이라고 하면서 비싼 값을 치르고 고당류 음료를 사 먹어야 한다면 소비자는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것이므로 논제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찬성 측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소비가 줄어들어 당 섭취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찬성 측은 가격과 소비의 반비례 관계를 설명한 경제학자의 책이나 강연 등을 활용하여 제품의 가격과 소비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반대 1의 반론 중 ‘돼지고기 삼겹살은 가격이 크게 상승해도 인기가 급격히 줄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반박할 수 있다.

- 05** 토론할 때 사회자는 토론자들에게 토론 규칙을 명시하여 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토론 중에는 질문과 요약 등을 통해 토론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논제를 분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은 토론자(찬반 양측)의 역할에 해당한다.

- 06** ‘유기 동물 안락사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정책 토론의 필수 쟁점은 문제의 심각성, 제시된 방안의 문제 해결 가능성 및 실행 가능성, 방안의 실행에 따른 효과 및 개선 이익을 다루어야 한다. 빈칸에는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들어가야 하므로 ‘안락사가 유기 동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7** (1) 유기 동물의 안락사를 통해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은 유기 동물 안락사를 긍정하는 입장이므로, ‘유기 동물 안락사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한 반대 측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2) 유기 동물을 안락사하지 않고 보호소에서 체류 기간 없이 보호하는 독일의 사례는 안락사가 유기 동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기 동물 안락사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한 찬성 측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3) 자기 결정권이 없는 동물의 생명을 인간이 함부로 빼앗는 것은 살생과 다를 바 없다는 내용은 안락사는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동의하는 내용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찬성 측만 동의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 08** 토론을 할 때는 논제에 따라 쟁점을 적절하게 도출하여 쟁점별로 주장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한다. 또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

핵심국립 쟁점

쟁점은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여러 이유들 중에 양쪽이 서로 양보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곧 논쟁의 핵심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토론을 할 때는 논제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분석한 후, 상대측이 제시할 만한 예상 쟁점들을 찾아내어 이를 중심으로 토론을 준비해야 한다.

쟁점은 논제의 유형(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은 다음과 같다.

- ① 논제에 나타난 핵심 용어와 주요 개념 정의 및 적용 대상과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함.
- ② 현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 현재 상황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정당화해야 함.
- ③ 찬성 측이 제시한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함.
- ④ 새로운 정책 실행으로 얻게 될 이익이 불이익보다 많음을 분석해 봐야 함.

- 01 ⑤ 02 ⑤ 03 가공 음료를 통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하는가? 04 ③ 05 ③ 06 1단계 07 ① 08 ③ 09 ①
10 ① 11 ⑤ 12 식품 회사의 편법을 막을 수 없다. 13 ⑤
14 ⑤ 15 ⑤

01 토론의 논제인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가공 음료를 통한 과도한 당 섭취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찬성 측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라는 논제에 찬성하고 있으므로,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인 문제의 심각성, 문제 해결의 가능성, 효과 및 개선 이익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논증을 구성해야 한다. 한편 반대 측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라는 논제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찬성 측이 제기한 주장을 반증할 수 있는 논증을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양측 모두가 고당류 음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와 개선 이익을 주장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2 (가)는 전 세계적으로 설탕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당 줄이기’ 운동을 펼칠 정도로 과도한 당 섭취가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토론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논제를 밝히고 있다.

03 **서술형**
찬성 측은 가공 음료를 통한 과도한 당 섭취가 비만으로 이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당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을 모른 채 가공 음료를 즐겨 마신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가공 음료를 통한 과도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비만의 원인이 당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가공 음료를 통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쟁점이 ‘가공 음료를 통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하는가?’임을 알 수 있다.

04 논제와 관련하여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릴 경우 나타나는 기대 효과를 제시하면 찬성 측에게 유리하기는 하나, 찬성 1의 입론에서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릴 경우 나타나는 기대 효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나)에서 찬성 1은 가공 음료를 통한 과도한 당 섭취라는 문제의 심각성만 진단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공 음료를 통한 과도한 당 섭취가 비만의 원인이 됨을 논증하기 위하여 국민 건강 보험공단(2015)에서 제시한 국내 고도 비만을 추정을 나타낸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그래프를 보면 2002년 이후 우리나라의 고도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찬성 1의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은 당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비만율이 줄지 않는 이유를 과도한 당 섭취로 보고 있다.

④, ⑤ 찬성 1은 각설탕을 가지고 나와 젓산균 요구르트 150밀리리터를 마시면 각설탕을 일곱 개 섭취한 것과 같음을 알리고, 사람들이 가공 음료에 얼마나 많은 당이 들어 있는지 모른 채 섭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05 <보기>에 제시된 발언 순서에 의하면 반론은 ‘반대 1 → 찬성 1 → 반대 2 → 찬성 2’의 순서로 진행된다. 따라서 반대 측에서 반론을 먼저 시작하는 것은 맞으나, 반대 측이 모두 발언한 후에 찬성 측이 발언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1단계 찬성 측 ‘① 입론’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5단계 찬성 측 ‘⑩ 반론’으로 끝이 난다.

② <보기>의 1단계에 따르면 반대 1의 ‘③ 입론’에 대해 찬성 1이 ‘④ 교차 조사’를 하게 된다.

④ 1, 3단계에서 알 수 있듯이 찬성 측의 입론이 끝나면 바로 반대 측의 교차 조사가 진행된다.

⑤ 교차 조사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모두 진행하며, 상대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06 (가)에서 사회자가 논제를 제시하고 논제가 대두된 배경을 설명한 후에 찬성 측의 입론을 들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나)는 찬성 1의 입론이며, (다)에서 사회자가 반대 측 토론자에게 교차 조사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라)는 반대 2의 교차 조사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마)와 (바)에서 양측이 교차 조사에 따른 질의응답을 하며 서로 의견을 제시하며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나)~(바)는 <보기>의 1단계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07 사회자는 ‘찬성 측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과도한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와 같이 토론자의 발언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가)에서 사회자는 이 토론의 논제를 소개하고, 논제가 대두된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였으나, 토론의 규칙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③ 토론자의 발언을 요약하기는 했으나, 사회자가 토론자에게 직접 질문하지는 않았다.

④ 토론이 혼란스러워지면 논점을 다시 정리하여 토론자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 사회자의 역할이기는 하나, 이 글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사회자는 논제에 대해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기보다는 토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객관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08 ①에서 찬성 1은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의견을 말하고 있다. 이 내용을 <보기>처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을 둔 근거를 들어 제시한다면 논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09 (가)의 '찬성 측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당을 지목하셨는데요, 과다 섭취했을 때 몸에 해로운 것이 설탕뿐인가요?'라는 말에서 반대 1이 당을 과다 섭취했을 때 몸에 해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의 '액상 과당은 설탕보다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고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여 과식을 유도합니다. 또한, 지나친 과당의 섭취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나 통풍성 관절염의 원인이 됩니다.'라는 말에서 찬성 1이 액상 과당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찬반 양측은 공통적으로 설탕, 액상 과당과 같은 당을 과다 섭취했을 때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10 반대 측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 큰 문제점이 없음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밝혀내야 한다. <보기>의 ㄱ~ㄹ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ㄱ. 당은 인체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고, 권장량의 섭취는 해롭지 않다.	따라서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인상하면서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다. → 반대 측
ㄴ. 비만을 비롯한 당뇨병이나 대사 증후군의 원인이 당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당 섭취가 질병을 가져온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당 섭취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 반대 측
ㄷ. 식품 회사들이 설탕보다 건강에 더 해로운 액상 과당을 사용한 제품을 내놓고 있다.	당의 종류에 관계없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식품 회사의 편법을 막을 수 있다. → 찬성 측
ㄹ. 당 소비를 억제하여 비만이 줄어들면 비만과 관련된 사회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소비가 억제되어 당 섭취가 줄고, 이것이 비만을 감소로 이어져 비만과 관련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찬성 측

11 (가)에서 반대 1은 찬성 측의 입론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세계 보건 기구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어 반론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이미 형성된 식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음을 삼겹살을 예로 들어 제시한 후, 정책으로 국민 식생활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고 있다. (가)의 반론의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찬성 측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당을 지목하셨는데요.'	상대측 입론 요약 - 당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
'과다 섭취했을 때 몸에 해로운 것이 ~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세계 보건 기구의 조사 결과, ~ 설탕보다 소금에 대한 규제는 미비합니다.'	반박 근거 제시 - 설탕뿐 아니라 소금 또한 과다 섭취를 했을 경우에는 건강에 해로움.

'그리고 일단 형성된 식습관은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론 주장 -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린다고 하여 이미 형성된 식습관이 쉽게 변하지 않음.
'예를 들어,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삼겹살은 가격이 크게 상승해도 인기가 급격히 줄지 않습니다.'	반론 주장의 근거 제시 - 가격이 크게 올라도 여전히 인기 있는 제품이 있음.
'몇몇 국가의 정책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식생활까지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측 주장 - 정책으로 국민 식생활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음.

12 서술형

(나)에 의하면 식품 회사들은 설탕에 대한 거부감을 피하고자 '무설탕'이라고 홍보하면서 '액상 과당'을 사용하고 있다. 찬성 1은 이를 근거로 당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당의 종류에 따라 차별적으로 음료의 가격을 올리다면 액상 과당과 같은 규제 대상이 아닌 다른 당 성분을 사용하는 등의 식품 회사의 편법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13 <보기>는 이 논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에서 쓴 글이다.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가?'와 관련하여, 찬성 측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서 얻은 세금을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의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반대 측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서 얻은 세금이 국민 건강을 위해 쓰일지 확실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고당류 음료에 부과된 '세금이 늘어나더라도 그것이 국민을 위해 쓰일지 불확실하다고 판단'된다는 말은 찬성 측의 근거가 아니라, 반대 측의 근거이므로 ⑤는 문맥에 적절하지 않다.

14 (나)의 반대 2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의 불만을 가중하며, 맛과 영양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당보다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반대 측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린다 해도 별다른 이익이 없을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음료 가격을 올려서 얻은 세금이 국민 건강을 위해 쓰일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15 (나)에서 고당류 음료의 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반대 2의 주장에 대한 약점은 나타나 있지 않다. 반대 2는 자신의 약점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 이 가공식품의 영양 성분표를 잘 보지 않아 당 섭취를 많이 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예로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홍보, 경고 문구를 넣는 방법 등을 통해 문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오답풀이]** ① ‘우리가 즐겨 먹는 탄산음료나 주스 한 병에 하루 권장량 이상의 당이 들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 음료를 먹었을까요?’에서 의문 형식을 통해 일상적 경험을 환기하도록 하고 있다.
- ② 가격만 올리는 정책은 소비자들의 불만만 가중할 뿐이라고 하며 소비자의 입장을 대신 제시하고 있다.
- ③ 실제로 제품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되거나 맛과 영양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며 상대측 주장이 초래할 문제 상황을 언급하며 반대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④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지니도록 홍보하거나 경고 문구를 넣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02 내 생각에 귀 기울여 줄래요?

소단원 평가 문제

121~123쪽

- 01 ④ 02 ③ 03 ⑤ 04 ㄱ, ㄴ, ㄹ 05 ③ 06 ③ 07 ④ 08 ⑤ 09 구체적인 사례로 글을 시작하여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다. 10 초기 대응 시간 11 ⑤

- 01** (가)는 심폐 소생술로 사람을 살린 실화를 소재로 한 기사문으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표제-부제-전문-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배경지식+ 기사문의 구성

- 표제: 전체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어구나 문장
- 부제: 표제에 덧붙여 이를 보충하는 제목
- 전문: 기사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요약하여 제시하는 부분으로, 전체 기사의 뼈대에 해당함.
- 본문: 중심 사건이나 상황을 상세하게 풀어놓은 부분
- 해설: 기사에 대한 참고 사항이나 설명을 덧붙이는 부분

- 02** 학생 1과 학생 2의 대화에서 (가)의 소재와 (나)에 제시된 글의 목적을 살려 ‘심폐 소생술을 배우’ 것을 설득하는 글을 쓰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글은 심폐 소생술의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을 예상 독자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미 심폐 소생술에 대해 잘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폐 소생술을 배우자고 설득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③과 같은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의 소재 ‘심폐 소생술’과 설득하는 글 쓰기라는 글의 목적을 살려, ‘심폐 소생술을 배우자.’라는 주제로 글을 쓸 수 있다.

- ② 글의 목적에 따르면, ‘우리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므로, 이들을 예상 독자로 삼고 심폐 소생술을 배우자고 설득하는 글을 쓸 수 있다.
- ④ 글의 목적에 따르면, 우리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득하는 글을 써서 신문에 실고자 한다고 하였으므로, 매체는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지역 신문’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때 자료는 인쇄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집해야 한다.
- ⑤ (가)에 제시된 박 씨의 사례처럼 실제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여 사람을 살린 사례를 제시하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 03** 설득하는 글 쓰기는 독자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독자의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글의 내용을 생성할 때 독자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개별 독자에 맞추어 내용을 새롭게 생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04** 설득하는 글의 화제는 개인이나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을 다루며 그것을 해결하는 데 개인의 입장이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것이 적절하다. ㄱ, ㄴ, ㄹ은 모두 지역 사회나 학교생활에서 문제시되는 일이고 사람에 따라 여러 관점이나 입장, 견해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글쓴이의 의견이나 주장을 담은 설득하는 글에 적절한 화제라 할 수 있다. 반면 ㄷ을 화제로 글을 쓰면 어떻게 해야 두뇌를 창의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독자를 설득하는 것이 목적인 글이 아닌 정보를 전달하는 데 글의 목적이 있는 화제이다.

- 05** 발문에서 ‘심폐 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는 글을 지역 신문에 게재하고자’ 한다고 하였으므로, <자료 2>의 그래프는 신문이라는 인쇄 매체에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오답풀이]** ①, ② <자료 1>의 도표는 심정지 시간에 따른 결과로서 초기 대응이 생사를 좌우함을 나타내어 심폐 소생술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④ <자료 3>은 심폐 소생술 교육 동영상 내용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를 언급하며 심폐 소생술 교육 동영상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자료 1>과 <자료 2>는 심폐 소생술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으로 심폐 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근거 자료이다. 반면 <자료 3>은 ‘심폐 소생술 교육 동영상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주제에 더 적절한 근거 자료이다.

- 06** 3문단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반인이 실시한 심폐 소생술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라고 질문한 뒤에, 4문단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글쓴이는 중심 화제(심폐 소생술)와 관련하여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하는 형식을 활용함으로써 독자의 집중도를 높이고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한 편의 글에서는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일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글쓴이의 주장이 중간에 바뀌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이 글에서 그러한 변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글의 결론에서 본문에 제시된 근거들을 요약하고 있지 않다.
 ④ 이 글은 도입부에서 박○○ 양의 사례를 든 뒤에, 핵심 대상인 심폐 소생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⑤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질병 관리 본부의 발표'라는 전문 기관의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전문가의 설명을 직접 인용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07 이 글이 인쇄 매체에 실린 글임을 고려했을 때 도표나 그래프 등은 글의 내용을 보충해 주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동영상은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08 설득하는 글을 상호 평가할 때는 글의 목적과 주제, 예상 독자, 매체를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는지 평가해야 한다. 다양한 매체에서 풍부하게 근거 자료를 수집하여 글을 쓴다면 글의 내용을 풍성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쓰기 맥락에 적합한 근거 자료를 선별하여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무조건 양적으로 많은 근거 자료를 그대로 내용에 반영하는 것은 글의 통일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09 **서술형**
 일상생활에서 실제 일어난 구체적인 사례로 글을 시작하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10 ㉠은 제시된 도표를 해석하는 부분이다. 제시된 도표는 심정지에 따른 결과를 나타낸 시각 자료로, 심정지 이후 초기 대응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환자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앞뒤 맥락을 고려했을 때 ㉠에는 '초기 대응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1 이 글은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글이 아니라 독자에게 심폐 소생술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므로 ㉡에 심폐 소생술의 구체적인 방법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심폐 소생술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제시하면 독자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② 그래프와 같은 시각 자료로 미국, 일본,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심폐 소생술 비율의 차이를 보여 준다면 현 상황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
 ③ '매우 낮은 수준'은 어느 정도로 낮은 수준인지 알 수 없으므로, '8.7퍼센트'와 같은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④ '제 친구의 말'은 공신력 있는 자료가 아닌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출처가 있는 명확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

어휘 어법 활용

확인 문제

127쪽 **01** (1) 요령 (2) 징수 (3) 유발 **02** 백분율 → 백분율 **03** ③

01 (1) 빈칸에는 '있는'과 어울리면서 '말씀씨'를 꾸미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요령'은 일을 하는 데 꼭 필요한 묘한 이치를 뜻하는 말로, '말씀씨'를 꾸며 주는 말로 적절하다.
 (2) '소작료'와 어울리는 말을 찾아야 한다. 문맥상 내용을 보았을 때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조세, 수수료 등을 거두어들이는 일'을 뜻하는 '징수'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3) '되었다'와 어울려 동사가 되는 말 중에서, 문맥상 교통 체증을 일으킨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어떤 것이 다른 일을 일어나게 함.'이라는 뜻인 '유발'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2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어야 한다.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율'로 적는다. '백분율'은 'ㄴ' 받침 뒤에 '률'이 이어지므로 '백분율'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03 '올해는 월급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의 '오르다'는 '값이나 수치, 온도, 성적 따위가 이전보다 많아지거나 높아지다.'라는 뜻이다. ③의 '오르다' 또한 몸의 온도가 오른 것을 뜻하므로 제시된 문장의 '오르다'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남의 이야기거리가 되다.'라는 뜻이다.
 ② '지위나 신분 따위를 얻게 되다.'라는 뜻이다.
 ④ '길을 떠나다.'라는 뜻이다.
 ⑤ '몸 따위에 살이 많아지다.'라는 뜻이다.

대단원 모의고사

130~134쪽

01 ② **02** ③ **03** ② **04** ④ **05** ⑤ **06** ⑤ **07** ① **08** ② **09** 안락사는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10** ③ **11** ④ **12** ② **13** 글의 주제와 예상 독자 등을 분석하여 이에 따라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가능한 한 풍부하게 수집한 뒤 그중 타당성 있는 것을 선별한다. **14** ③ **15** 글의 내용이나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때문

01 이 글은 교차 조사식 토론문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고 상대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토론은 어떤 문제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지닌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므로 ②가 적절하다.

02 찬성 2는 발언을 시작하면서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규제 하면 비만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주장을 먼저 언급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 후 ‘이를 통해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다시 한번 주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찬성 2가 자신의 주장을 발언의 가장 마지막에 제시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찬성 2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소비가 억제되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비만과 관련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② 2015년 12월에 열린 ‘비만 관리 종합 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병원 조△△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여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④ 비만 관련 질환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2009년 4,926억에서 2013년 7,262억원으로 4년간 1.5배 증가하였다고 설명하는 등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⑤ 비만 관련 질환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면 건강 보험의 재정 악화를 불러오고 국민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며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03 반대 1은 [A]에서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설탕 세’가 외국의 사례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며 해당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외국에서 ‘설탕 세’가 무산된 것은 해당 정책이 실패한 예시이며, 이는 찬성 측 주장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설탕 세’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린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제도이므로, 외국과 우리나라의 정책적 차이를 보여 주기 위한 발언은 아니다.

③ 찬성 2에게 근거를 보충하도록 먼저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찬성 측의 주장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찬성 2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발언이다.

④ 제시된 부분에서 쟁점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는가?’이므로 찬성 2의 주장이 쟁점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⑤ 반대 측은 경제적 손실이 줄어드는 것과의 관련성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04 우선, ㄱ에서 찬성 측이 ㄴ의 내용을 일부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ㄴ의 ‘네, 맞습니다.’는 ㄴ에서 반대 측이 제기한 내용을 찬성 측이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에 대하여 긍정하는 답변을 한 것이다. 또한 찬성 측은 다른 나라에서 고당류 음료의 가격 인상과 유사한 정책이 성공한 사례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주장을 수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5 (가), (다), (바)는 찬성 측, (나), (라), (마)는 반대 측의 발언이다. (마)에서 반대 측은 ‘2014년 유럽 의회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특정 성분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당이 들어간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 더 안 좋은 성분이 유통되는 문제 상황을 예상하며, 이를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배경지식+ 교차 조사의 논증적 오류

- 인신공격: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하지 않고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대표성을 충분히 띠지 못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
- 복합 질문: 하나의 질문에 복합적인 질문이 내포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 논점 이탈의 오류: 논점이 흐려지고 논지에서 벗어나는 경우

06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라는 논제를 토대로 반대 측에서 두 번째 입론을 펼치고 있는 것은 (라)가 아니라 (마)이다. (라)는 (다)에 나타난 교차 조사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다.

07 쟁점 ㉗는 근거 자료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근거 자료 ㉔와 ㉕는 동물의 고통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쟁점 ㉔와 연관된 것이다. 반면 근거 자료 ㉗, ㉘는 생명 경시 풍조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쟁점 ㉗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생명 경시 풍조와 관련된 ‘유기 동물의 안락사가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가?’이다.

【오답풀이】 ②, ③, ⑤ ‘안락사가 유기 동물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내용이나, ‘유기 동물의 개체 수 감소’, ‘유기 동물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등에 대한 근거 자료는 제시된 바 없다.

④ ‘유기 동물의 안락사’와 ‘반려동물 관련 교육’의 내용은 근거 자료 ㉙에 나타나는 내용이지만, 유기 동물 안락사가 반려동물 관련 교육에 필수적인 것인가는 근거 자료 ㉗를 포괄하기 어렵다.

08 <보기>의 글쓴이는 유기 동물 안락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유기 동물의 안락사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09 서술형
상대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측의 주장을 예측해야 한다. 반박하기 위한 근거를 보면, 학생은 인간의 편의를 동물의 권리보다 우선시하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대측에서는 이와 반대로 동물의 권리를 인간의 편익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이를 제시된 논제와 연결하면 ‘유기 동물 안락사는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라고 상대측이 주장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10 (나)의 서론에서는 청소년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청소년 비만의 현황과 청소년 비만이 성조숙증, 성장 장애, 자아 존중감의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

고 있다. 청소년 비만의 원인에 대한 내용은 (나)의 본문에 나타나 있다.

- 11 ㉠ 청소년 비만의 현황과 문제점,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으며, 주제와 글의 목적(설득)에 부합하는 글이다.

㉡ 청소년 비만의 원인과 예방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도표나 그림과 같은 시각 자료는 활용하지 않고 있다.

㉣ '서론-본론-결론'의 구성을 갖추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짜임새 있게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문장의 연결이 매끄럽게 나타나며, 전문적인 용어 보다는 학생들 수준에서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 12 ㉤는 앞서 밝힌 내용을 마무리하는 문장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비만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므로, 결론의 끝부분인 ㉠가 아니라 본론의 마지막 부분인 ㉡에 첨가되어야 한다.

[오답 풀이] ㉠ 앞으로 언급할 내용을 의문형으로 제시한 뒤, 본격적인 내용을 다음 문단에서 서술하는 구성을 취하면 독자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로 위치 이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 ㉣는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한 자료이므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에서 언급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는 구성이 적절하다.

㉣ 도입부에서 예상 독자인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례를 제시하면 예상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으므로 ㉢를 글의 맨 처음에 넣는 것이 적절하다.

㉤ '초·중·고교 비만 학생 비율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서론 부분에 제시되었던 연도별 비만을 추이와 연결할 수 있는 시각 자료이다. 따라서 ㉤ 앞에 제시하면 예상 독자인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문제의 심각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13 서술형

설득하는 글을 쓸 때는 주제, 예상 독자, 글의 목적, 매체 등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근거 자료를 수집하되, 가능한 한 풍부하게 수집하고, 그중 타당성 있는 근거 자료를 선별해야 글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 14 설득하는 글을 쓸 때에는 주변의 문제 가운데 글로 쓸 화제를 정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나 입장을 정리한다. 그다음 쓰기 맥락을 분석하여, 근거를 수집한 후 글의 개요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글의 개요를 바탕으로 설득하는 글을 쓴 뒤, 자기 점검 및 상호 평가를 실시하여 글의 내용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 15 설득하는 글을 쓸 때나 이를 고쳐 쓸 때에는 주제, 글의 목적, 예상 독자, 매체 등의 쓰기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글쓰는 글의 목적과 주제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글의 형식을 결정하여 구성하고, 예상 독자나 주제, 매체 등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여 글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즉, 쓰기 맥락이 글의 내용이나 형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고려해야 한다.

대단원 서술형 평가

135~136쪽

01 이 토론의 논제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이며,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다루는 정책 논제이다.

02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렸을 때의 문제점 ㉡-(반대 측)의 주장

03 찬성 2는 다른 나라의 정책 성공 사례를 제시하며 이를 우리나라의 경우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것의 전체 조건은 고당류 음료에 부과된 세금이 국민 건강을 위한 예산으로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04 찬성 측은 반대 측이 당의 순기능만을 언급한 점을 지적하고 당의 역기능을 근거로 들어 가공 음료를 통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을 말할 것이다.

05 ㉢에게는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무의 장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에게는 나무가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근거로 제시한다. ㉤에게는 나무를 심는 행위가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또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제시한다.

06 글의 목적, 주제, 매체 등을 고려해야 해오.

07 근거 자료의 출처를 '제 친구의 말'에서 '국민 안전처의 발표'로 수정하여, 공신력 있는 자료를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08 <보기>의 자료는 '심폐 소생술 교육 동영상'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는 주제와 어울리므로 '심폐 소생술을 배우자.'라는 주제의 글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로 부적절하다. 또한 동영상은 인쇄 매체에 활용할 수 없으므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 01 (가)에서 반대 1이 말한 '저희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를 보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가 논제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정책 토론의 논제는 찬성 측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논제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실행 방안을 다루는 정책 논제임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토론의 논제를 정확하게 서술하였으며, 논제의 유형이 정책 논제임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술하였다.	6점
토론의 논제를 정확하게 서술하고 논제의 유형이 정책 논제임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4점
토론의 논제만을 서술하거나 논제의 유형만을 서술하였다.	2점

- 02 (가)에서 반대 1은 먼저 당 역시 인체에 필요한 삼대 영양소이며 에너지원이라고 당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다음 에너지가 필요할 때 고당류 음료를 매번 비싼 가격에 사 먹으면 소비자는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고당류 음료 가격 인상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과 ㉡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6점
㉠과 ㉡ 중 한 가지만을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3점

- 03** (나)에서 찬성 2는 ‘설탕 세’로 거두어들인 세금을 유용하게 사용하려는 프랑스와 영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나라도 고당류 음료에 부과된 세금을 국민 건강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한다면 국민에게 이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경우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또한 찬성 2의 주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고당류 음료 가격 인상을 통해 얻는 세금을 국민 건강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찬성 2의 말하기 방식의 특징을 제시하였으며, 찬성 2의 주장에 대한 전제 조건을 이 글의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6점
찬성 2의 말하기 방식의 특징과 찬성 2의 주장에 대한 전제 조건 중 한 가지만을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4점
찬성 2의 말하기 방식의 특징을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였고, 찬성 2의 주장에 대한 전제 조건을 이 글의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2점

- 04** 반대 1은 당의 순기능을 근거로 들며 당이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므로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사회자는 찬성 측에 교차 조사를 하라고 하고 있으므로 찬성 측은 반대 측의 입론 내용을 검증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것이다. 따라서 찬성 측은 반대 측이 당의 순기능만을 언급한 점을 지적하고 당의 역기능을 언급하며 당이 건강을 해친다는 내용을 제시할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교차 조사의 성격을 고려하여 반대 측 발언의 중심 내용을 언급하였으며, 쟁점에 대한 찬성 측의 주장과 근거가 잘 드러나게 서술하였다.	6점
교차 조사의 성격을 고려하여 반대 측 발언의 중심 내용을 언급하였으나, 쟁점에 대한 찬성 측의 주장과 근거 중 한 가지만을 서술하였다.	4점
교차 조사의 성격을 고려하여 반대 측 발언의 중심 내용을 언급하였으나, 쟁점에 대한 찬성 측의 주장과 근거 모두를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2점

- 05** 5~7세의 어린이에게는 생활 속에서 쉽게 알 수 있는 나무의 이점들(인간에게 열매를 주고 그늘을 만들어 주는 등)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7~19세의 고등학생에게는 나무가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같은 객관적인 지식을, 40~50세의 중년층에게는 나무를 심는 행위가 다음 세대에게 주는 영향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채점 기준	배점
㉠~㉣ 모두 예상 독자에 따라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였으며,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6점
㉠~㉣ 중 두 가지만 예상 독자에 따라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였고,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4점
㉠~㉣ 중 한 가지만 예상 독자에 따라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였고,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2점

- 06** 설득하는 글을 쓰기 전에는 우선 글의 목적, 주제, 예상 독자, 매체 등의 쓰기 맥락을 분석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설득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해야 하는 쓰기 맥락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하고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6점
설득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해야 하는 쓰기 맥락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하였으나,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4점
설득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해야 하는 쓰기 맥락을 한 가지만 제시하여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2점

- 07** 고쳐 쓰기 전의 글을 보면 공신력 있는 자료가 아닌,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신뢰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이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자료를 제시하여 글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고쳐 쓴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 제시하고, 고쳐 쓴 효과를 밝혀 완결된 문장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6점
고쳐 쓴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고쳐 쓴 효과를 밝혀 글을 고쳐 쓴 이유를 서술하였다.	4점
고쳐 쓴 부분을 찾아 제시하였으나, 고쳐 쓴 효과는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2점

- 08** 주제나 예상 독자, 매체 등에 따라 제시해야 할 근거가 달라지므로 글의 내용을 생성할 때는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타당한 근거를 수집해야 한다. 그런데 <보기>는 주제와 매체의 특성 면에서 볼 때 쓰고자 하는 글에 활용할 수 없다. 즉, <보기>는 심폐 소생술 동영상의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심폐 소생술을 배우자.’라는 주제의 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보기>의 동영상은 종이 신문이라는 인쇄 매체에서 활용할 수 없는 자료이다.

채점 기준	배점
<보기>의 자료를 근거로 활용할 수 없는 이유 두 가지를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6점
<보기>의 자료를 근거로 활용할 수 없는 이유 한 가지만을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서술하였다.	3점

8 삶 속에 흐르는 한국 문학의 강

01 청산별곡

C 확인 문제

- 144쪽 01 (1) ㉔ (2) ㉑ (3) ㉒ 02 (1) 3, 3, 2 (2) 이상향 (3) 구전 (4) 화자 03 (1) 이끼 묻은 쟁기 (2) 날이 무딘 병기 04 ①
- 145쪽 05 (1) ○ (2) × (3) × (4) ○ 06 후회, 아쉬움 07 새 08 5연, 6연 09 (1) ㉑ (2) ㉔ (3) ㉒

- 01 (1) 5연의 ‘돌’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의미하며, 화자의 비애를 야기하는 매개체이다.
(2) 8연의 ‘강수’는 술을 의미하며, 화자가 현실의 괴로움을 잊기 위한 도구이다.
(3) 1연의 ‘청산’은 화자가 동경하는 이상향이자 도피처로,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이다.

- 02 (1) 이 시가는 글자 수가 대체적으로 3·3·2자로 반복되며, 한 구를 세 번 끊어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3·3·2조의 3음보 율격을 지니고 있다.
(2) 이 시가의 화자는 삶의 고뇌와 비애에서 벗어나 청산과 바다로 상징되는 이상향에서 살기를 소망하고 있다.
(3) 이 시가를 비롯한 고려 가요는 민중 사이에서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 문자로 정착되었다.
(4) 이 시가는 고도의 비유와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 시어나 시구의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특히 화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작품의 주제가 달라지기도 한다.

- 03 (1) 이 시가의 화자를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으로 보면 ‘잉 무든 장글’을 ‘이끼 묻은 쟁기’로 해석할 수 있다.
(2) 이 시가의 화자를 무신 정권의 횡포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속세를 떠나 사는 좌절한 지식인으로 보면 ‘잉 무든 장글’을 ‘날이 무딘 병기’로 해석할 수 있다.

- 04 이 시가의 후렴구가 각 연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후렴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후렴구가 각 연마다 반복되어 주제를 강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대개 분연체로 구성되는 고려 가요는 각 연마다 후렴구가 붙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⑤ 각 연마다 후렴구가 반복되어 연과 연을 구분하고, 구조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주며, 운율을 형성하여 흥을 돋운다.

④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라는 후렴구에는 율림소리인 ‘ㄹ, ㅁ’ 음이 반복되어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 05 (1) 4연의 ‘밤’은 화자가 절대적인 고독을 느끼는 시간이다.
(2) 1연의 ‘멸위랑 두래’는 소박한 음식으로, 화자의 소박한 삶을 나타낸다.
(3) ‘청산’과 ‘바를(바다)’은 모두 화자의 이상향이자 도피처를 의미하며,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이다.
(4) ‘사슴이 짚대에 올라 해금을 연주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06 ‘살어리랏다’는 보통 소망을 내포하는 ‘살고 싶어라’로 해석하지만, 후회와 아쉬움을 내포하는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의지를 내포하는 ‘살리라’로 해석하기도 한다.

- 07 2연의 ‘새’는 삶의 고뇌와 비애를 느끼는 화자의 분신이자, 화자가 동병상련(同病相憐)을 느끼는 감정 이입의 대상이다.

배경지식+ 감정 이입

화자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 투사하여 마치 대상이 화자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다른 대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화자의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할 수 있다.

- 08 1~4연을 ‘청산의 노래’로 보고, 5~8연을 ‘바다의 노래’로 본다면 5연과 6연의 순서를 바꾸었을 때 시상 전개가 더 자연스럽다.

해설극락! 「청산별곡」의 대칭적 구조

청산의 노래		바다의 노래	
1연	‘청산’에 대한 동경	6연	‘바다’에 대한 동경
2연	삶의 비애와 고독	5연	삶의 운명에 대한 체념
3연	현실 세계에 대한 미련	7연	삶에 대한 절박한 심정
4연	절망적인 고독과 비탄	8연	술을 통한 고뇌의 해소

- 09 이 시가는 화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주제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화자를 ‘유랑민’으로 보면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의 비애’가 주제가 되고, 화자를 ‘실연한 여인’으로 보면 ‘실연의 아픔을 잊기 위한 자연으로의 도피’가 주제가 되며, 화자를 ‘좌절한 지식인’으로 보면 ‘속세를 떠난 지식인의 염세적인 태도’가 주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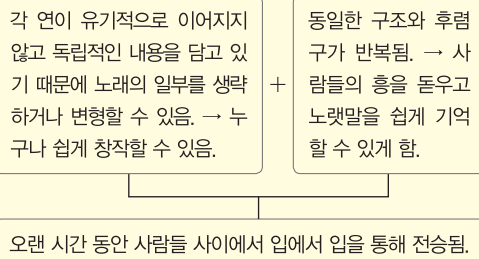
확인 문제

149쪽 **생각 모으기** 01 (1) × (2) × (3) ○ 02 청산(청산), 바
롤(바다) 03 구비 문학

150쪽 **생각 펼치기** 04 (1) 순수한 자연의 세계, 속세에서 벗어
난 초월적 공간 (2) 화자가 소망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존재 05 자연

- 01 (1) 고려 가요는 민중 사이에서 오랫동안 구전되다가 훈
민정음 창제 이후 문자로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2) 「청산별곡」과 「정선 아리랑」 모두 각 연마다 후렴구가
붙어 있다.
(3) 「청산별곡」과 「정선 아리랑」은 모두 각 연이 독립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제의 연결성이 떨어지는 등 구비
전승에 적합한 형식을 갖추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핵심국립 「청산별곡」의 형식적 특성이 전승 방식에 미친
영향



- 02 「청산별곡」에서 「청산(청산)」과 「바롤(바다)」은 화자의 이
상향이자 안식처, 도피처를 의미하며,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이다.
- 03 「청산별곡」은 고려 가요이고 「정선 아리랑」은 민요이다.
두 작품은 입에서 입으로 전승된 구비 문학이라는 점이
공통적이다.
- 04 「산이 날 에워싸고」에서 「산」은 순수한 자연의 세계, 속세
에서 벗어난 초월적 공간을 의미하며, 화자에게 자연에
동화되어 살라고 권고해 주는 존재이다. 「들썰레, 쑥대
밭, 그뭇달」은 화자가 소망하는 자연과 일치된 삶의 모습
을 보여 주는 존재를 의미한다.
- 05 한국 문학에서 「자연」은 현실 세계(속세)와 대비되는 안식
의 공간, 초월적 공간, 이상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
문학 작품 속 화자는 자연을 동경하고 자연 친화적인 태
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01 ③ 02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의 비애 03 ② 04 ④
05 ③ 06 ② 07 ① 08 ② 09 ④ 10 현실 세계(속세)와
대비되는 이상적인(초월적인, 안식의) 공간이다.

- 01 이 시가에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살어리랏다」는 소망을 나타내는 「살고 싶어라, 후회
와 아쉬움을 담은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의지를 나타내는 「살리
라, 자포자기식의 「살 수밖에 없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시
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화자의 처지와 위치가 달라진다.
② 이 시가의 화자는 「유랑민, 좌절된 지식인, 실연한 여인」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는데, 화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주제 역시 다
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화자를 「유랑민」으로 볼 경우 주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의 비애」로, 화자를 「좌절된 지식인」으로 볼 경
우 주제는 「속세를 떠난 지식인의 염세적 태도」로, 화자를 「실연한
여인」으로 볼 경우 주제는 「실연의 아픔을 잊기 위한 자연으로의
도피」로 볼 수 있다.
④ 이 시가의 화자는 고달프고 괴로운 현실 속에서 외롭게 지내
며, 속세의 고뇌와 비애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있다.
⑤ 이 시가는 고려 가요로, 민중 사이에서 오랫동안 구전되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 문자로 정착되어 전승되고 있다.

02 서술형

이 시가의 화자를 「유랑민」으로 본다면 화자는 삶의 터전
인 경작할 밭을 잃고 떠돌아다니며 사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가는 삶의 고뇌와 비애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
구를 노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본다면 이 시가
의 주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의 비애」라고 해석할
수 있다.

- 03 이 시가는 처음과 끝이 상응하며 반복되는 수미 상관의
구조를 지니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④ 「살어리V살어리V랏다」와 같이 3·3·2자의 글
자 수와 3음보 율격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와 같이 「a-a-b-a」 구
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⑤ 후렴구인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에서는 율림소리인
「ㄹ, ㅍ」 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며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고 있다.

- 04 이 시가의 5연과 6연의 순서를 바꾸면 1~4연의 「청산의
노래」와 5~8연의 「바다의 노래」가 구조적 대칭을 이룬다.
즉 「1연-6연」, 「2연-5연」, 「3연-7연」, 「4연-8연」이 대응되
는 양상을 보인다. ④의 「오리도 가리도 업슨」과 「피리도
괴리도 업시」는 형태상으로는 대응되는 것 같지만, 각각
4연과 5연의 시구이므로 서로 대응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1연의 「멀위랑 두래랑 먹고」는 6연의 「누무자기 구조
개랑 먹고」와 대응된다.

- ② 2연의 '자고 니려 우니노라'는 5연의 '마자셔 우니노라'와 대응된다.
- ③ 3연의 '가던 새 가던 새 본다'는 7연의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와 대응된다.
- ⑤ 4연의 '쏘 었디 호리라'는 8연의 '내 었디 후리잇고'와 대응된다.

05 [A]의 '피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라는 시구를 현대어로 해석하면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둘에) 맞아서 울며 지내노라.'이다. '둘'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의미하므로 이 시구를 통해 고통스러운 자신의 운명에 대한 화자의 체념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06 화자는 시름 많은 자신이 자고 일어나 우는 것처럼, ㉠도 울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은 화자가 동병상련(同病相憐)을 느끼며 감정을 이입한 대상이다. ㉡의 '가마귀 (까마귀)'는 효심을 강조하기 위해 제재로 사용한 대상일 뿐, 화자가 느끼는 감정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화자가 감정을 이입한 대상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어버이를 가까이에서 모시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외기러기'에 이입하여 표현하였다.

③ 임과 이별한 애절한 마음을 흐르는 '물(넋물)'에 이입하여 표현하였다.

④ 임과 이별하여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타는 '촉불(촛불)'에 이입하여 표현하였다.

⑤ 입을 그리며 독수공방하는 외로운 마음을 '귀소리(귀뚜라미)'에 이입하여 표현하였다.

화자성의 조건

감정 이입과 헛갈리기 쉬운 개념으로 객관적 상관물이 있어요.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감정이나 생각을 주관적으로 바로 드러내지 않고 다른 대상이나 정황에 빚대어 표현할 때, 그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감정 이입과 유사하죠? 하지만 대상이 화자와 동일한 감정을 갖는 것처럼 표현하는 감정 이입과 달리, 대상이 화자와 동일한 감정을 갖지 않더라도 그러한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이라면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지요. 쉽게 말해 감정 이입은 슬픔, 기쁨, 외로움 등의 감정을 드러낼 만한 표현이 있는 경우이고, 그런 말이 직접 드러나지 않은 채 감정을 일깨우는 대상이나 정황이 존재하면 객관적 상관물로 보면 돼요. 즉,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 이입을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에요.

07 ㉠은 화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시구이다. ㉡을 '이끼 묻은 은장도일랑'으로 해석할 때, '은장도'는 여인의 물건이므로 이 시가의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다.

08 '물 아래'는 속세를 의미하며, 화자가 가고 싶어 하는 안식처인 '청산', '바를'과 대비되는 공간이다.

[오답 풀이] ① '멸워랑 두래'는 소박한 음식을 의미하며, 소박한 삶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③ '바르'는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화자가 절대적인 고독을 느끼는 시간이다.

④ '둘'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의미하며, 화자의 비애를 야기하는 매개체이다.

⑤ '강수'는 술을 의미하며, 현실의 괴로움을 잊기 위한 도구이다.

09 <보기>는 민요인 「정선 아리랑」이다. 민요는 특정 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민의 삶의 모습 및 정서를 담고 있지만, 「청산별곡」과 같은 고려 가요는 특정 지역의 지역민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당대를 살아가는 민중의 보편적인 정서를 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고려 가요와 민요는 주로 당대 민중이 창작하고 향유하며 부른 노래이다.

② 이 시가는 후렴구로 '알리알리 알라성 알리리 알라'를 반복하고 있고 <보기>는 후렴구로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요 /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를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고려 가요와 민요는 연마다 후렴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흥을 돋운다.

③ 이 시가는 총 8연으로, <보기>는 2행 1연의 장절 형식에 여음이 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고려 가요와 민요는 여러 연이 이어져 구성된 분연체(分聯體)의 형식을 취한다.

⑤ 이 시가와 <보기> 모두 각 연이 독립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고려 가요와 민요는 각 연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정서가 나열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유기성이 떨어진다.

배경지식+ 민요의 특징

- 남녀의 사랑, 노동의 고달픔, 삶의 애환 등 민중들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지님.
- 3음보나 4음보의 율격을 지니며, 대부분 후렴구가 있다는 형식적 특징이 있음.
- 노동, 의식, 놀이 등 특정한 기능을 위해 부른 기능요와 단순히 노래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부른 비기능요로 나뉨.

10 서술형

<보기>는 박목월의 「산이 날 에워싸고」이다. <보기>에서 '산'은 순수한 자연의 세계, 속세에서 벗어난 초월적 공간을 의미한다. 이 시가에서 '청산'은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으로 화자가 동경하는 이상향, 도피처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기>의 '산'과 이 시가의 '청산'은 공통적으로 현실 세계와 대비되는 이상적인 공간, 초월적인 공간, 안식의 공간 등을 상징한다.

배경지식+ 박목월의 「산이 날 에워싸고」에 대한 이해

이 시에서 '산'은 탈속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현실의 세계를 완전히 벗어난 이상적인 세계를 표상한다. 내용적으로 보면 '산'이 화자에게 삶에 대한 태도를 명령하고 권유하는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화자 자신의 소망이자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부정적인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의 세계에서 소박하게 살고 싶다는 화자의 자연에 대한 동경이 나타난 작품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02 시조 세 편

확인 문제

160쪽

01 (1) × (2) × (3) ○ 02 (1) ㉠ (2) ㉡ (3) ㉢ 03 (1) 평시조 (2) 사대부 (3) 대나무 04 ㉣ 05 세한 고절(歲寒孤節)

161쪽

06 ㉤. 어른 님 오신 날 밤 ㉥. 구뵈구뵈 퍼리라 07 (1) 기녀 (2) 어른 님 (3) 추상, 구체 (4) 음성 상징어 08 ㉦ 09 모쳐라 날낸 뉘식만정 예혈질 번 하래라 10 (1) ㉧ (2) ㉨ (3) ㉩

- 01 (1) 가의 화자는 고려 왕조에 대해 끝까지 지조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자연물인 대나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을 뿐, 자연 친화적인 삶을 동경하고 있지는 않다.
(2) 나.의 화자는 동짓달 기나긴 밤에 부재한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기를 소망하고 있을 뿐, 임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다.
(3) 다.의 초장과 중장에서는 화자가 두꺼비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중장에서는 화자가 두꺼비로 전환되어 스스로의 실수에 대해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02 (1) 가.는 중장에서 '구불 절(節)'이면 눈 속의 프름소녀라며 설의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고 있다.
(2) 나.의 '동지(冬至) ㅅ.들 기나긴 밤'은 임이 곁에 없는 부정적 시간인 반면에 '어른 님 오신 날 밤'은 임과 함께 지내는 긍정적 시간이다. 이와 같이 임과 떨어져 있는 부정적 상황과 임과 함께하는 긍정적 상황을 대조하여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애절한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 다.는 당대의 '탐관오리, 백성, 중앙 관리'를 각각 '두터비, 파리, 백송골'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탐관오리의 횡포와 허장성세를 풍자하고 있다.
- 03 (1) 가.는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에 4음보의 율격을 지닌 평시조이다.
(2) 가.는 고려 말~조선 전기에 창작된 작품으로, 작가의 신분은 사대부(문인)이다.
(3) 가.의 화자는 고려 왕조에 대한 지조와 충절을 더(대나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해설 풀이 : 「눈 마주 휘여진 더를~」의 상징적 의미

더(대나무)

- 눈 속에서도 푸른빛을 잃지 않음.
- 충신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함.

고려에 대한 지조를 끝까지 지키려는 화자의 의지를 대나무에 빗대어 표현함.

- 04 시조는 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로 고정되는 형식적 특성을 지닌다. 가.에서는 '아마도'가 이에 해당한다.

- 05 '세한 고절(歲寒孤節)'은 한겨울의 추위에도 홀로 지키는 절개를 의미한다. 이는 한겨울에도 푸른 대나무의 속성을 드러내며,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지조와 절개를 굽히지 않겠다는 고려 왕조에 대한 화자의 충절을 나타내는 시어이다.

배경지식 +

고려의 충신, 원천석의 절의가

원천석은 고려 말의 학자이자 고려의 유신으로, 고려가 멸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원주 치악산에 들어가 은둔 생활을 하였다. 그가 이방원을 가르친 바가 있었기에 조선이 개국하고 태종이 즉위한 뒤 여러 차례 벼슬을 내리고 그를 간곡히 불렀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다. 당시 선비들은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했었기에 유교적 충의 사상이 뼉속까지 배어 있었으므로 충신이 두 임금을 섬기는 일은 용납할 수 없었다. 원천석은 「눈 마주 휘여진 더를~」에서 충신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를 통해 두 왕조를 섬길 수 없다는 자신의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06 나.에서 '동지(冬至) ㅅ.들 기나긴 밤'은 임이 부재한 부정적인 시간으로, 이와 대응되는 시구는 임과 함께하는 긍정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어른 님 오신 날 밤'이다. '서리 서리 너헛다가'는 임이 부재한 시간을 줄이고 싶은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으므로, 이와 대응되는 시구는 임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싶은 심정이 드러나 있는 '구뵈구뵈 퍼리라'이다.
- 07 (1) 나.의 작가는 기녀로, 사랑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인간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2) 나.의 '어른 님'은 정분(情分)을 맺은 임으로,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다.
(3) 나.는 '밤'이라는 추상적인 시간 개념을 '버혀 내어', '너헛다가', '퍼리라'와 같이 형태가 있는 구체적인 사물처럼 형상화하고 있다.
(4) 나.는 '서리서리, 구뵈구뵈'와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 표현하고 있다.
- 08 다.는 평시조에서 중장이 길어진 사설시조이다. 연시조는 평시조가 두 수 이상 모여 한 편의 작품을 이룬 시조이다.
- 09 다.의 '모쳐라 날낸 뉘식만정 예혈질 번 하래라'는 백송골을 보고 두엄 아래로 자빠진 후에 두꺼비가 하는 독백으로,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자 하는 허장성세가 드러나는 말이다.
- 10 (1) 다.에서 '파리'는 힘없는 백성, 피지배층을 의미한다.
(2) 다.에서 '두터비'는 탐관오리, 부패한 양반, 권력자를 의미한다.
(3) 다.에서 '백송골'은 중앙 관리, 외세를 의미한다.

확인 문제

164쪽 **생각 모으기** 01 (1) ○ (2) ○ (3) × 02 누이의 죽음, 같은 부모 03 (1) 4, 장형화 (2) 종교 (3) 초장, 중장, 종장 04 아아

166쪽 **생각 펼치기** 05 (1) ○ (2) ○ (3) × (4) × 06 두터비(두꺼비) 07 ㉔

- 01 (1) **가**의 ‘더(대나무)’는 눈 속에서도 푸른빛을 잃지 않는 속성을 바탕으로 충신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화자는 이러한 대나무처럼 고려 왕조에 절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 (2) **나**의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은 임이 부재한 시간으로, 화자는 이 밤의 한 허리를 잘라 내었다가 임이 오신 날에 이어 붙임으로써 임이 부재한 시간을 줄이고 임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3) **다**의 화자는 ‘백송골’을 피해 도망치다 두엄 아래로 자빠지고는 자화자찬하며 자기 합리화하는 ‘두터비’를 풍자하고 있다.

- 02 「제망매가」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노래한 향가로, 비유적 표현이 뛰어난 작품이다. ‘떨어질 잎’은 ‘누이의 죽음’을 의미하고, ‘한 가지’는 ‘같은 부모’를 의미한다.

배경지식+ 최고의 향가로 꼽히는 「제망매가」

이 작품은 누이와 사별한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슬픔과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으며, 미타찰에서 누이를 다시 만날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누이의 죽음에 대응하고 있다. 누이의 죽음을 단순히 개인의 슬픔에서 그치지 않고 삶과 죽음의 문제로 확장하여 깊이 있게 성찰한 점과 직설법과 비유법 등의 적절한 조화, 함축적인 시어 사용 등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 면에서도 고도의 정제된 모습을 보여 최고의 향가로 꼽히고 있다.

- 03 (1) **가**와 **나**는 기본 형태의 평시조이고, **다**는 평시조에서 중장이 길어진 사설시조이다. **가**, **나**에서 **다**로 가면서 4음보의 정형성이 파괴되고 시조의 장형화가 이루어졌다.
- (2) 「제망매가」는 승려 월명사가 지은 향가로,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3) 10구체 향가가 시상 전개에 따라 ‘4구-4구-2구’의 3단으로 구성되듯이, 시조도 ‘초장-중장-종장’의 3장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10구체 향가의 구성 방식이 시조에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 04 10구체 향가에서 시상을 집약하거나 전환하는 역할을 하

는 것은 낙구의 감탄사로, 이것의 기능은 시조 종장의 첫 음보로 계승되었다. 「제망매가」에서 낙구의 감탄사는 9구의 ‘아아’이다.

배경지식+ 향가의 특징

내용	남녀 간의 사랑 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으나 주술적인 내용이나 불교적인 내용을 노래한 것이 많음.
형식	•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음. • 8구체는 4구체에서 10구체로 발전하는 과정에 생긴 과도기적 형태임. • 10구체는 향가의 완성 형태로, 후대 시조의 형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봄.
의의	국문학사상 최초의 정형화된 서정시이며, 향찰로 표기되어 있어 고어(古語)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됨.

- 05 (1) 풍자와 해학의 표현 방식은 조선 후기의 사설시조나 판소리, 민요나 탈춤 등에서 잘 나타나며, 현대 문학 작품 중에서는 김유정, 채만식이 쓴 소설 등에서 잘 나타난다.
- (2) 풍자와 해학은 모두 대상을 희화화함으로써 익살 섞인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표현 방식이다.
- (3) 해학은 연민과 애정을 가지고 대상을 감싸 안음으로써 대상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제시된 내용은 풍자에 대한 설명이다.
- (4) 풍자와 해학은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기보다는 극복하고자 하는 당대 민중의 건강한 삶의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골계미를 나타낸다. 우아미는 자연을 바라보는 ‘나’가 자연의 조화라는 가치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미의식이 나타나는 미적 범주를 뜻한다.

핵심콕! 풍자와 해학

	풍자	해학
공통점	• 대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비꼬으로써 웃음을 유발함. • 대상을 희화화함으로써 익살 섞인 웃음을 불러 일으킴. •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기보다는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건강한 삶의 의지를 드러냄.	
차이점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대상을 날카롭게 비판함.	연민과 애정을 가지고 대상을 감싸 안음으로써 대상에게 동정심을 유발함.

- 06 **다**에서는 힘없는 존재 위에 군림하다가 자기보다 강한 존재 앞에서는 꿈쩍도 못 하면서도 자화자찬하며 자기 합리화하는 ‘두터비(두꺼비)’를 희화화하여 풍자하고 있다.
- 07 ㉔는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허세를 부리는 두꺼비의 모습을 희화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대상을 풍자하고 있다.

- 01 ⑤ 02 ③ 03 뒤, 충신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04 ③
05 ③ 06 ④ 07 ④ 08 ⑤ 09 ③ 10 ④ 11 ⑤
12 (라)의 '4구 - 4구 - 2구'의 3단 구성과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가 쓰이는 형식적 전통이 (가)의 '초장 - 중장 - 종장'의 3장 구성과 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로 고정되는 형식으로 계승되었다.

01 (가)에서는 '대나무'에, (다)에서는 '두꺼비, 파리, 백송골'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대상에 인격을 부여한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가)는 눈 속에서도 푸른빛을 잃지 않는 '대나무'에 빗대어 고려 왕조에 대한 지조와 충절을 강조하고 있다.

② (나)는 임을 그리워하는 애틋한 정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③ (다)는 '두꺼비, 파리, 백송골'을 의인화하여 탐관오리의 횡포와 약육강식의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3장 6구 45자 내외, 4음보의 형식을 지닌 평시조이다.

02 (가)에서는 '눈'과 '대나무'를 대조하여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고, (나)에서는 '동지(冬至) 스들 기나긴 밤'과 '어론 님 오신 날 밤'이 대조하여 정든 임을 그리워하는 애틋한 정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풍자와 해학의 표현 방식을 사용한 것은 (다)이다.

② (가)에서는 '구불 절(節)'이면 눈 속의 프를소나에서 설의법을 통해 화자의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고 있으나, (나)에서는 설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④ (가)와 (나) 모두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⑤ (가)에서는 '세한 고절(歲寒孤節)'이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하였지만, (나)에서는 사자성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03 (가)의 화자는 '딴'에 빗대어 고려 왕조에 대한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고 있다. 즉 '딴(대나무)'은 충신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04 (가)에는 눈 속에서도 푸른빛을 잃지 않는 '대나무'의 속성(㉠)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때 '눈'은 대나무를 휘게 만드는 고난과 시련(㉡)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 (가)에서 대나무의 심미적 가치에 대한 예찬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가)에서 대나무와 대비되는 식물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만자쌍의조언

사군자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일컫는 말이에요. 각 식물 특유의 장점을 군자에 비유하여 4명의 군자, 즉 사군자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매화는 이른 봄의 추위에도 꽃을 피우고, 난초는 깊은 산중에서 은은한 향기를 멀리까지 퍼뜨려요. 국화는 늦은 가을에 첫 추위를 이겨 내고 꽃을 피우고, 대나무는 모든 식물의 잎이 떨어진 추운 겨울에도 푸른 잎을 계속 유지하지요. 이와 같은 사군자의 속성 때문에 충신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소재로 쓰이게 되었어요.

05 '춘풍(春風) 니불'은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을 뜻한다. 이는 화자가 임에게 보내려고 만드는 물건이 아니라, 잘라 둔 시간을 따뜻한 이불 아래에 넣었다가 임이 오면 펼쳐서 임과 보내는 밤을 길게 하고 싶다는 의미이다.

[오답풀이] ① '동지(冬至) 스들 기나긴 밤'은 화자가 임 없이 홀로 보내는 시간으로, 화자가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이다.

② '한 허리를 버혀 내어'는 '밤'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인 것처럼 표현하여, 임이 부재한 시간을 줄이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 것이다.

④ '어론 님 오신 날 밤'은 사랑하는 임과 화자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으로, 화자가 기대하는 시간이다.

⑤ '구뵈구뵈 펄리라'는 초장에서 잘라 두었던 밤 시간을 이어 붙임으로써 임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 표현이다.

06 (나)에서는 '동지(冬至) 스들'이라는 시어를 활용하여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환기시키며, 이를 통해 쓸쓸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ㄱ). 또한 '밤'이라는 추상적인 시간 개념을 형태가 있는 구체적인 사물처럼 표현하고 있으며(ㄴ), '서리서리, 구뵈구뵈'와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리고 있다(ㄷ).

[오답풀이] ㄴ, (나)에서 대상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표현은 드러나지 않는다.

07 (다)에서는 '풀덕'이라는 의태어를 사용하여 백송골에 놀라 두엄 아래로 자빠지는 '두터비'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의태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이고, 의성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이다.

08 (다)의 '두터비'는 종장에서 자신의 실수를 합리화하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이러한 '두터비'의 태도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사자성어는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을 의미하는 '허장성세(虛張聲勢)'이다.

[오답풀이] ① '각주구검(刻舟求劍)'은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이다.

② '수주대토(守株待兔)'는 한 가지 일에만 얽매어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아전인수(我田引水)'는 자기 논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 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이다.

④ '지록위마(指鹿爲馬)'는 위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을 이르는 말이다.

09 (가)~(나)는 평시조로, 주로 사대부가 창작하였고 조선 중기부터는 기녀도 작가층으로 활동하였다. 주로 평민층에 의해 창작되고 향유된 것은 (다)와 같은 사설시조나 조선 후기에 창작된 시조이다.

[오답풀이] ①, ⑤ 평시조는 고려 중엽에 발생하여 고려 말기에 그 형식이 완성되면서 발달하였다. 현재까지 창작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이다.

②, ④ 평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성된 3장 6구 45자 내외의 4음보 율격을 기본 형태로 하며,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된다.

- 10 (라)는 월명사가 지은 「제망매가」라는 10구체 향가이다. (라)의 화자는 누이의 죽음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를 통해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고뇌를 종교적으로 승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배경지식+

「제망매가」에 제시된 시어의 의미

이른 바람	일찍 찾아온 누이의 죽음
떨어질 잎	누이의 죽음
한 가지	화자와 누이를 낳아 준 부모

↓
누이가 요절한 것을 이른 바람에 잎이 떨어지는 것에 비유하며 누이의 이른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감각적으로 표현함.

- 11 '이른 바람'은 화자의 누이가 젊은 나이에 죽었음을 알 수 있는 시어로, 누이의 이른 죽음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① '휘여진'은 새로운 왕조에 협력할 것을 강요하는 세력 때문에 겪는 화자의 고충을 의미한다.

② '두터비'는 풍자의 대상으로, 탐관오리나 부패한 양반을 의미한다.

③ '백송골'은 '두터비'보다 강한 존재로, 중앙 관리나 외세를 의미한다.

④ '나'는 화자의 죽은 누이를 의미한다.

12 서술형

(라)는 10구체 향가이고, (가)는 평시조이다. 10구체 향가가 시상 전개에 따라 '4구-4구-2구'의 3단으로 구성되듯이 시조도 '초장-중장-종장'의 3장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시상을 집약하거나 전환하여 서정적인 완결성을 갖추게 하는 향가의 낙구 첫머리에 나타나는 감탄사의 기능이 시조 종장의 첫 음보와 유사하다. 따라서 10구체 향가의 구성 방식이나 낙구의 형식이 시조에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핵심 토크! 향가와 시조의 형식적 전통

	향가	시조
시상 전개	'4구-4구-2구'의 3단 구성	'초장-중장-종장'의 3장 구성
낙구의 형식	낙구 첫머리의 감탄사는 시상을 집약하거나 전환하여 서정적인 완결성을 갖추는 기능을 함.	종장의 첫 음보가 향가의 낙구와 유사하며, 3음절로 고정됨.

03 홍계월전

확인 문제

175쪽 01 성장 후 위기 02 ①

176쪽 03 (1) 거만함 (2) 가부장 04 ②

177쪽 05 (1) ○ (2) × 06 여자 옷을 조복(朝服)으로 갈아입고

178쪽 07 ③

179쪽 08 (1) ○ (2) × 09 비현실성

180쪽 10 (계월의 눈을 피해) 천자가 있는 황성을 급습하는 것
11 (1) 방심 (2) 속수무책

181쪽 12 (1) ○ (2) ×

182쪽 13 (1) × (2) ○ 14 우연성

183쪽 15 ①

- 01 <앞부분 줄거리>에서 계월이 어의의 진맥으로 인해 여자 임이 탄로 나고, 보국의 애첩인 영춘을 죽인 일로 보국과 갈등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다. 이는 영웅의 일대기 구성 중 '성장 후 위기' 단계에 해당한다.

- 02 이 글은 여성 영웅인 계월의 일생을 다루고 있다. 어린 적부터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던 계월은 우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전장에서 나라를 구하는 등 영웅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국과 혼인한 것은 영웅적 면모와는 관련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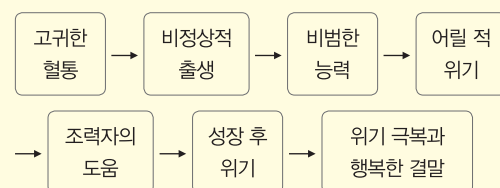
오답풀이 ② 계월이 전쟁에 나가 오랑캐를 무찌른 것은 계월의 영웅적인 면모를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이다.

③ 계월이 어려서부터 대단히 총명했던 것은 영웅의 일대기 구성 중 '비범한 능력'과 대응된다.

④ 계월이 이부 시랑 홍무의 딸로 태어난 것은 영웅의 일대기 구성 중 '고귀한 혈통'에 해당한다.

⑤ 계월의 어머니인 양 씨가 꿈에 선녀가 나타난 후 계월을 잉태한 것은 영웅의 일대기 구성 중 '비정상적 출생'에 해당한다.

핵심 토크! 영웅의 일대기 구성



- 03 (1) 여공은 영춘의 죽음에 대해 “자기가 거만하다가 죽임을 당했으니 누구를 한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
(2) 보국의 “장부가 되어 계집에게 괘시를 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에서 가부장적 가치관과 남존여비 의식이 드러난다.

04 여공은 “계월이 비록 네 아내는 되었으나 벼슬을 놓지 않았고 기개가 당당하니 죽히 너를 부릴 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계월의 능력이 보국보다 우월함을 인정하고 있다.

05 (1) 신하들은 계월이 지금 규중에 있으나 이름이 조야에 있고 작록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반란 진압에 계월을 부르도록 천자를 설득하고 있으므로 계월을 전장으로 보내는 데 찬성한다고 볼 수 있다.

(2) (다)에서 계월은 영춘 문제로 보국과 갈등하여, 규중에 홀로 있으며 매일 시녀를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냈다고 하였으므로 보국과 함께 무술을 연마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6 계월은 사관이 와서 천자께서 부르신다는 명령을 전하자 ‘여자 옷을 조복(朝服)으로 갈아입고’ 사관을 따라갔다. ‘여자 옷’은 부녀자의 신분을 나타내고, ‘조복’은 관원이 조정에서 나갈 때 입는 옷으로, 관원의 신분을 나타낸다.

07 보국에게 전령을 보낸 것은 천자가 아니라, 대원수로 임명된 계월이다.

▶오답풀이 ① 계월은 보국을 중군장으로 부리기 위해 전령을 보냈다.

②, ④ 보국은 계월이 자신을 중군장으로 부리려 하자 분해하지만, 나랏일이 중요하다는 여공의 말에 어쩔 수 없이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진중에 나아갔다.

⑤ 여공은 보국에게 계월의 수하로 전쟁에 나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타이르며 보국이 어서 가기를 재촉하였다.

08 (1) 보국은 “머칠은 중군장이 나가 싸우라.”라는 계월의 명령을 받고 전장으로 나아가 적장 운평과 운경을 쓰러뜨렸다.

(2) 보국은 자신이 업신여기던 계월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뒤 계월 보기를 부끄러워하였다.

09 계월이 비범한 능력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장수들을 베어 적장 오십여 명과 군사 천여 명을 한칼에 소멸하고 보국을 구하는 장면에서 고전 소설의 비현실성이 드러난다.

10 맹길은 자신들이 계월의 손에 망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오왕과 초왕에게 계월의 눈을 피해 천자가 있는 황성을 급습할 것을 모책으로 제안하였다.

11 (1) 천자는 계월이 보낸 구덕지의 머리를 받아 보고 크게 기뻐하였으며, 신하들을 모아 평국 부부(계월과 보국)를 칭찬하고 태평으로 지내고 있었다.

(2) 승전 소식에 방심하고 있던 천자와 신하들은 적장 맹길이 갑자기 동쪽 관문을 깨치고 들어오자 속수무책(손을 묶는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 함.)으로 당하였다.

12 (1) 죽기 살기로 도망을 가던 천자는 앞에는 큰 강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적병이 쫓아 오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상황에 처하였다.

(2) 계월은 마음이 어지러워서 천기를 보았다가 천자가 위태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는, 장수와 군졸은 둔 채 홀로 천자를 구하기 위해 황성에 갔다.

한자쌍의 조언

적에게 쫓기던 천자는 앞에 큰 강이 가로막고 있자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어요. 이와 같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 매우 위태로운 처지를 나타내는 한자 성어로는 ‘사면초가(四面楚歌), 진퇴양난(進退兩難), 풍전등화(風前燈火), 누란지위(累卵之危)’ 등이 있어요. 고전 소설에서는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인물의 태도 등과 관련된 한자 성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 평소에 한자 성어를 미리미리 익혀 두세요.

13 (1) 계월의 부모와 시모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여공의 말에 계월은 “설마 만나 뵈을 날이 없겠나이까?”라고 말하며 다시 만날 것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2) 계월은 비범한 능력으로 적장 맹길을 해치우고 천자를 위기에서 구하였다.

14 계월은 장안이 비어 있는 황성에서 한 노인을 만나는데, 마침 그 노인이 시부인 여공이었다. 이와 같이 고전 소설은 필연성이나 개연성이 없이 우연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배경지식+ 고전 소설의 특징

- **일대기적 구성**: 주인공의 일생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전개하는 구성이다.
- **권선징악적 주제**: 주로 착한 인물은 복을 받고, 악한 인물은 벌을 받는 내용을 다룬다.
- **평면적·전형적 인물**: 작품 전체에서 성격이 변하지 않고,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이 주로 등장한다.
- **비현실적·우연적 사건 전개**: 현실과는 동떨어진 기이한 상황이나 능력을 다루며, 개연성 없이 우연에 의해 사건이 전개된다.
- **편집자적 논평**: 전지적 위치에 있는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직접 개입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비판이나 자신의 생각을 독자가 읽게끔 드러내는 것이다.

15 맹길은 계월이 나타나자 두려워하며 도망갔고, 계월은 순식간에 맹길에게 달려가 단칼에 해치웠다.

▶오답풀이 ② 맹길에게 사로잡힌 천자와 신하들은 계월이 자신들을 구하려 온 것을 모르고 냇을 잃고 어찌할 줄 몰랐다.

③, ④ 천자는 자신을 구하고 사직을 안보한 계월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자신의 위험을 만 리 변방에서 어찌 알고 구하려 왔는지 물어보았다.

⑤ 계월은 맹길을 죽인 후 맹길의 등에 행군 복을 지우고 모시는 신하를 시켜 복을 올리게 하며 궁이 있는 황성으로 향하였다.

확인 문제

187쪽 **생각 모으기** 01 비범한 능력, 위기 극복 02 (1) × (2) × 03 ⑤

189쪽 **생각 펼치기** 04 (1) ○ (2) × 05 ④ 06 (1) 사회상 (2) 생활화 07 ④

- 01 고대 신화에서 구축되어 고전 영웅 소설로 이어져 온 영웅의 일대기 구성은 ‘고귀한 혈통 → 비정상적 출생 → 비범한 능력 → 어릴 적 위기 → 조력자의 도움 → 성장 후 위기 → 위기 극복과 행복한 결말’로 이루어진다.
- 02 (1) 계월은 천자의 부름으로 오왕과 초왕이 일으킨 반란을 막기 위해 전장에 나갔다. 계월이 대원수가 된 것은 보국의 추천과는 관련이 없다.
(2) 여공은 계월이 자신의 아들인 보국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녔음을 인정하며, 아내가 남편의 우위에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핵심 례! 「계월」의 능력에 대한 인물의 태도

보국	• 아내인 계월의 지시를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 남성의 권위를 내세우며 가부장적인 태도를 드러냄.
여공	• 계월의 능력이 보국보다 우월하다고 여김. • 아내가 남편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사고를 지님.
천자와 신하들	• 계월이 여성임을 알게 된 후에도 벼슬을 거두지 않고 유지함. • 나라의 위기 상황에 계월을 불러 국난을 극복하는 일을 맡김.

- 03 보국이 계월의 능력을 인정하게 된 계기는 계월이 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 준 사건이다. 보국이 계월의 도움을 받기 전에는 가부장적 가치관과 남존여비 의식이 바탕이 되어 계월과 갈등하였으므로, 당대에 남존여비의 벽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핵심 례! 「홍계월전」에 반영된 당대의 사회상

-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과 남존여비 의식이 만연했음.
- 유교적 충군 사상이 존재했음.
- 국문 소설의 성행으로 독자층이 평민층으로까지 확대되며, 새로운 독자층인 여성의 의식 성장과 사회적 자아실현에 대한 열망이 작품에 반영됨.

- 04 (1) 문학은 작품이 창작된 사회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작품에 비추어진 당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살펴봄으로써 당대의 시대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2) 문학 작품 속 등장인물이 허구적 인물이라는 사실은,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당

대 사람들의 삶이나 사고방식 등을 파악할 수 있다.

- 05 채만식의 「태평천하」는 1930년대에 창작된 소설로, 이 작품을 통해 일제의 억압과 수탈로 고통받는 우리 민족의 삶을 살펴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문란한 정치 현실 속에서 적서 차별은 더욱 심해지고 인재 등용의 문은 좁아진 반면, 평등사상을 구현하려는 움직임과 신분 상승의 욕구는 팽배해졌다. 이러한 당대의 사회 현실을 잘 반영한 작품으로는 「홍길동전」이 있다.

②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정이 증가한 시기는 2000년대로, 이주 노동자의 유입과 국제결혼 등으로 급격하게 그 수가 늘어났다. 이러한 사회상을 반영한 작품으로는 난쟁이인 아버지와 베트남 어머니를 부모로 둔 도원득이라는 고등학교생의 이야기를 그린 「완득이」가 있다.

③ 1950년대는 육이오 전쟁으로 인해 우리 민족의 삶이 피폐해진 시기였다. 「수난이대」는 일제의 강제 징용으로 한쪽 팔을 잃은 아버지와 육이오 전쟁으로 한쪽 다리를 잃은 아들에 걸친 수난을 통해 우리 민족의 역사적 비극을 그리고 있으므로 이 시기의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 있다.

⑤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나타난 인간 소외 현상이 두드러진 시대는 1960년대이다. 「서울, 1964년 겨울」에서는 이 시기의 심각한 사회 문제인 인간 고독과 소외 문제를 다루고 있다.

- 06 (1) 문학 작품에는 작품이 창작된 당대의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다.

(2) 일상생활에서 문학을 생활화하면 보다 풍요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된다.

- 07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는 것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문학을 생활화하는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소단원 평가 문제

192~195쪽

01 ④ 02 ④ 03 ⑤ 04 ② 05 ④ 06 ① 07 사 씨는 여성의 사회 활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계월은 능력이 있다면 여성의 사회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08 ④ 09 ② 10 ③ 11 하룻밤 사이에 황성에 다다른 것이었다. 12 ② 13 ⑤ 14 ⑤ 15 ①

- 01 이 글은 여성 영웅을 주인공으로 그의 영웅적 활약을 그린 고전 소설이다.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전지적 시점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다)에서 장계의 내용을 통해 나라의 위기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이 글은 전쟁을 배경으로 주인공의 군사적 활약을 다룬 군담 소설이다.

③ (가), (마)에 나타난 보국과 여공의 대화를 통해 보국의 가부장적 가치관과 남존여비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이 글은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닌 계월의 영웅적 활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 영웅 소설이다.

02 (가)~(마)는 계월이 보국과 갈등하고,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켜 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으로, 영웅의 일대기 구성 중 '성장 후 위기'에 해당한다.

03 (가)와 (마)에서 드러나는 보국의 가부장적인 가치관과 남존여비 의식을 볼 때, 보국은 여자이면서 자신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닌 계월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것이 계월과 보국이 갈등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보국이 계월보다 영춘을 더 사랑한 것은 갈등의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근본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

② 계월이 황제를 속이고 작록을 받은 것은 계월과 보국의 갈등과는 관련이 없다.

③ 천자가 출정을 명한 것은 계월이지만, 계월의 전령을 받고 보국도 함께 출정하였다.

④ 보국은 계월의 분부에 따라 싸우러 나갔다.

04 군졸들이 계월의 명령에 겁을 내는 것은 대원수로서 위엄을 갖춘 계월의 모습 때문이지, 당대에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높았기 때문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보국이 아내인 계월의 부하가 되어 지시를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는 장면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이 드러난다.

③ 계월이 천자의 부름을 받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로 결심하는 장면에서 유교적 충군 사상이 드러난다.

④ 천자가 계월이 규중에 있다는 이유로 부르기를 꺼리는 장면에서 당대에는 여성의 사회 활동에 제약이 있었음이 드러난다.

⑤ 계월이 여성임에도 천자는 그의 벼슬을 유지해 주었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국난 극복을 맡기기도 한다. 이를 통해 당대 소설의 향유층인 여성의 의식 성장과 사회적 자아실현에 대한 열망이 드러난다.

반자생의 조언

문학 작품은 그 작품이 창작된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작품을 통해 당대 사람들의 삶이나 사고방식 등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현실 세계가 작품 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감상하는 것을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05 '각설'은 주로 고전 소설에서 화제를 돌려 새로운 이야기를 꺼낼 때, 앞서 이야기하던 내용을 그만둔다는 뜻으로 다음 이야기의 첫머리에 쓰는 말이다.

오답풀이 ① 서술자가 교체되고 있지 않다.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③ 사건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⑤ 이후 등장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는 하나, 갈등의 심화는 '각설'이라는 용어와 관련은 없다.

06 ④ '소장'은 천자에게 장계를 올린 남관의 수장을 일컫는다. 나머지는 모두 계월을 가리키는 말이다.

오답풀이 ② '평국'은 계월이 남장을 했을 때의 이름이다.

③ '여자'는 계월의 성별로, 여기서는 계월을 일컫는다.

④ '신첩'은 여자가 임금을 상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로, 여기서는 계월 자신을 일컫는다.

⑤ '원수'는 계월의 군사 직책이다.

07 서술형

사 씨는 유교적 가치를 중시하고 가부장적 가치관을 옹호하는 인물로,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여성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계월은 가부장적 가치관과 거리가 먼 인물로, 성별 구분 없이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배경지식+ 풍간 소설로서의 「사씨남정기」

「사씨남정기」는 조선 숙종 때 김만중이 지은 한글 소설이다. 주인공 유연수가 첩인 교 씨의 모함에 속아 착하고 현명한 본처 사 씨를 내쳤으나, 끝내 교 씨의 음모가 발각되어 그가 처형당하고 유연수는 다시 사 씨를 맞이하여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의 가정 소설이다.

이 소설의 배경은 중국이지만 당시 궁중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다. 숙종이 인현 왕후를 폐하고 희빈 장씨를 왕비로 맞이한 사건이 그것인데, 김만중이 이를 반대하다 유배를 당했고 유배지에서 숙종의 마음을 바로잡아 볼 목적으로 이 작품을 쓰게 된 것이다.

임금 숙종의 잘못된 태도를 양반 가문에서 벌어진 처첩 간의 갈등에 빗대어 풍자한 작품으로, 당대의 축첩 제도의 불합리함과 사대부의 부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발하는 역할을 하였다.

08 (가)에서 보국은 위급한 상황이 되어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을 뿐, 계월에게 도움을 청하지는 않았다. (나)를 보면 계월이 장대에서 북을 치다가 보국의 위급함을 보고 급히 말을 몰아 보국을 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나)에서 계월은 적장 오십여 명과 군사 천여 명을 한칼로 소멸하는 등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여 적을 소탕하였다.

② (다)에서 천자는 적의 급습에 매우 놀라 용상을 두드리다가 기절하였다.

③ (다)에서 맹길은 천자가 도망하는 것을 보고 도망치지 말고 항복하라고 말하였다.

⑤ (라)에서 계월은 마음이 어지러워 밖에 나가 천기를 살피다가 천자가 위험에 빠진 것을 알아채고 하룻밤 사이에 황성에 다다랐다.

09 (나)에서 계월은 보국을 구해 준 뒤, 평소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보국의 가부장적인 태도를 조롱하며 비판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계월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보국이 계월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둘 사이의 갈등은 해소된다.

- ③ 보국이 계월을 보기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가정 내의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워 계월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의 명령에 불만을 가졌었는데, 계월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했기 때문이다.
- ④ 계월이 보국을 구한 것은 원수로서 위협에 빠진 아군의 목숨을 살리고자 한 행동이다. 이 장면에서는 계월의 권위적인 모습이 아닌 그의 우월한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계월이 보국을 조롱하는 모습을 통해 작가는 당대의 가부장적 남성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 10** (다)에서 천자는 앞에는 큰 강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적병이 쫓아오고 있어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와신상담(臥薪嘗膽)’은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뎌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천자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는 한자 성어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① 누란지위(累卵之危)는 층층이 쌓아 놓은 알의 위태로움이라는 뜻으로, 몹시 아슬아슬한 위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② 사면초가(四面楚歌)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이다.
- ④ 진퇴양난(進退兩難)은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뜻하는 말이다.
- ⑤ 풍전등화(風前燈火)는 바람 앞의 등불이라는 뜻으로, 사물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11** 소설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기이한 이야기를 다루는 특징을 비현실성이라 한다. (라)에는 변방의 진중에 있던 계월이 황성까지 하룻밤 사이에 다다랐다는 것에서 고전 소설의 비현실성이 잘 나타나 있다.

- 12** 이 글에서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장면은 (나)이다. (나)에서는 계월과 적장 맹길의 갈등(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이 드러난다.

- [오답풀이]** ① 계월이 내적 갈등을 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③ 계월과 여공은 갈등하고 있지 않다. 여공은 계월에게 도움을 주는 인물이다.
- ④, ⑤ 계월과 운명 혹은 자연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 13** 이 글과 같은 여성 영웅 소설은 조선 후기에 남존여비 사상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이 고조되고(ㄷ), 여성의 사회적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면서(ㄹ) 등장하였다.

- [오답풀이]** ㄱ. 유교적 신분 질서가 안정되면 남존여비 의식이 더욱 강화된다.
- ㄴ. 적서 차별은 서열을 차별하는 것으로, 여성 영웅 소설의 등장과는 거리가 멀다.

- 14** 천자는 자신을 구해 준 계월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적군을 해치운 그의 공을 칭찬하고 있다. 설의법을 사용

하여 계월의 공을 부각하고자 한 것일 뿐 큰 선물로 은혜를 보답하겠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 [오답풀이]** ① 계월이 텅 빈 장안에서 만난 노인이 마침 시부인 여공이라는 점에서 고전 소설의 우연성이 드러난다.
- ② 계월은 부모와 시모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언젠가 만나게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 ③ 계월의 칼에 맹길의 두 팔이 땅에 떨어졌으므로, 계월이 맹길을 해치웠음을 의미한다.
- ④ ‘피가 내를 이루고’에서 과장법을, ‘주검이 산처럼 쌓였다’에서 비유법을 사용하여 계월의 비범한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 15** 문학이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허구적인 요소가 더해지므로, 문학 작품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휘 어법 활동

확인 문제

199쪽 01 ⑤ 02 (1) 구분 (2) 안보 03 ③

- 01**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고, ‘로써’는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⑤에서 눈물은 호소하는 수단이므로 ‘로써’가 알맞다.

- [오답풀이]** ① 쌀은 떡의 재료나 원료이므로 ‘로써’가 알맞다.
- ② 말은 천 냥 빚을 갚는 수단이므로 ‘로써’가 알맞다.
- ③, ④ 학생과 아들은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므로 ‘로서’가 알맞다.

- 02** (1) 문맥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눌을 의미하는 ‘구분’이 알맞다.
- (2) 문맥상 편안히 보전함을 의미하는 ‘안보’가 알맞다.

- 03** 문맥상 ‘예전에,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공손하고 경건하게 절을 올리던 일’을 의미하는 사은숙배(謝恩肅拜)가 알맞다.

- [오답풀이]** ① 결초보은(結草報恩)은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이르는 말이다.
- ② 신신당부(申申當付)는 거듭하여 간곡히 하는 당부를 의미하는 말이다.
- ④ 삼고초려(三顧草廬)는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하여 참을성 있게 노력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 ⑤ 혼비백산(魂飛魄散)은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이다.

- 01 ② 02 ③ 03 들쭉레, 쑥대밭, 그믐달 04 ③ 05 ④
06 ② 07 ⑤ 08 ② 09 ⑤ 10 ② 11 ① 12 ⑤ 13
⑤ 14 ⑤ 15 ㉠: 비정상적 출생 ㉡: 조력자의 도움 ㉢: 성장 후 위
기 16 ⑤ 17 ② 18 ③ 19 ⑤ 20 과장법과 비유법을 사
용하여 계절의 비범한 능력을 강조(부각)하고 있다. 21 ③ 22 ④

01 (가)의 '청산(淸山)'과 '바를(바다)'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
상향 또는 안식처를 의미하고, (나)의 '산'은 순수한 자연
의 세계, 속세에서 벗어난 초월적 공간을 의미한다. 즉
(가)와 (나)의 화자 모두 자연을 속세와 대비되는 이상향
혹은 초월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자연을 지향하고 있다.
③ (가)의 '살어리랏다'는 '살고 싶어라,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살리
라' 등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가)의 화자가 현재 속세에 살고
있어서 자연에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나)의 화
자는 산이 자신을 에워싸고 말하는 듯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자
연과 동화된 삶을 꿈꾸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 것이다. 이 표현
만으로는 화자가 속세에 살고 있는지 자연에 살고 있는지 정확하
게 알기는 어렵다.
④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자연을 동경하고 있다. 그러나 속세
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가)의 화자이다. (가)의 화자
는 '물 아래 가던 새 본다'에서 속세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의 화자는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가)의 화자가 자연을 상징하는 '청산'과 바를'에서 각각 '멸
위랑 두래', '누무자기 구조개'와 같은 소박한 음식을 먹으며 살고
자 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한자쌍의 조건

한국 문학에서 '자연'은 전통적으로 현실 세계와 대비되는 안식
의 공간, 초월적 공간, 이상향 등을 의미해요. 즉 선인들은 자연
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고자 했으며, 자연을 동경하고 자연
과 어우러진 삶을 살고자 했어요. 따라서 한국 문학에는 정철의
「관동별곡」, 김천택의 「강산 초흔 경을」 등과 같이 자연의 순
리에 따르며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작품이 많아요.

02 (가)에는 시상의 전개에 따라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가 점
차 강렬해지는 점층적 구성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각 연의 내용이 독립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화자의 정
서를 심화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고려 가요의 특성인 3음보 율격을 가지고 있다.
② '살어리 살어리랏다' 등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이상
향을 동경하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④ '청산', '돌', '강수' 등의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각 연이 같은 후렴구로 끝남으로써 작품 전체에서 형태적 통일
성을 형성하고 있다.

03 (나)의 화자는 자연에 동화되어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
을 살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들쭉레, 쑥대밭,

그믐달'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대상이다.

04 ㉠은 'a-a-b-a'의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은 문
장 내 반복되는 구절이 없으므로 'a-a-b-a'의 구조로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귀소리(a) 저 귀소리(a) 어엿부다(b) 저 귀소리(a)
② 형님 온다(a) 형님 온다(a) 분고개로(b) 형님 온다(a)
④ 가시리(a) 가시리잇고(a) 나는 / 부리고(b) 가시리잇고(a) 나는
(나는'은 의미가 없는 여음구이다.)
⑤ 해야 솟아라.(a) 해야 솟아라.(a) 말갈게 씻은 얼굴(b) 고운 해야
솟아라.(a)

05 '사슴'을 '사름'의 오기로 해석할 때, ㉠은 연주를 들
으며 삶의 괴로움을 잊고 싶은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에서 '새'는 화자가 동병상련을 느끼는 감정 이입
의 대상으로, 화자의 슬프고 서러운 감정을 드러낸다.
② 화자를 '좌절한 지식인'으로 볼 때, '잉 무든 장글'은 '날이 무딘
병기'로 해석할 수 있고, '가던 새'는 '자신과 뜻을 함께하던 벗'으
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에서 화자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상징하는) '돌'을 맞아서
운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운명에 대한 화자의 체념적 태도가
드러난다.
⑤ ㉤은 자연에 동화되어 살고자 하는 화자의 내면적 소망을 '산
이 ~ 살아라 한다.'라는 산의 권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6 (가)에서는 '대나무'를 의인화하여 고려 왕조에 대한 화자
의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고 있으며, (다)에서는 '파리, 두
꺼비, 백송골'을 의인화하여 탐관오리의 횡포를 풍자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의 작가는 사대부(지배 계층)이고, (나)의 작가
는 기녀(피지배 계층)이다.
③ (다)는 탐관오리의 횡포를 풍자하고 있으나, (나)는 대상을 풍자
하고 있지 않다.
④ (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화자의 정서를 진솔하게 드러
내고 있으나, (가)는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을 드러내고, (다)는 탐
관오리의 횡포와 악육강식의 세태를 풍자하고 있으므로 (가), (다)
는 인간의 정서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가)와 (나)는 3장 6구 45자 내외, 4음보의 형식을 취하는 평시
조이나, (다)는 평시조에서 중장이 길어진 사설시조이다. 사설시조
는 4음보의 정형성이 파괴된 형식을 특징으로 한다.

07 (가)의 종장 첫 음보인 '아마도'는, 시상을 집약하거나 전
환하여 서정적인 완결성을 갖추게 하는 <보기>의 낙구
첫머리에 나타나는 감탄사 '아아'의 역할을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②, ③, ④ <보기>는 10구체 향가로, 시상 전개에
따라 '4구 - 4구 - 2구'의 3단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향가의 3
단 구성은 평시조의 '초장 - 중장 - 종장'의 3장 구성으로 계승되
었다고 할 수 있다.

08 (가)는 눈 속에서도 푸른빛을 잃지 않는 대나무에 빗대어 고려 왕조에 대한 화자의 굳은 지조와 절개를 표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풍류나 멋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가)의 화자가 자연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고는 있지만, 이는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④ (가)에서 자기반성적인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가)의 화자는 옛 왕조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새 시대에 대한 변혁 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9 (나)에서 임이 언제까지 오겠다고 약속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임이 오지 않는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② (나)의 화자는 임을 기다리며 홀로 외롭게 지내기 때문에 동짓달의 긴 밤이 더욱 길게 느껴졌을 것이다.

③ '동지'는 차가운 이미지, '춘풍'은 따뜻하고 포근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추운 동짓달은 임이 부재한 시간이므로, 이와 대비되는 춘풍이 부는 따뜻한 봄날은 임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나)의 화자는 임이 부재한 동짓달의 긴 밤을 잘라 두었다가 임과 함께하는 날에 이어 붙여서 오랫동안 임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10 (다)는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허세를 부리던 두꺼비가 놀라 자빠지는 모습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으며 (ㄱ), 종장에서는 화자를 두꺼비로 전환하여 자기 합리화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ㄷ).

[오답풀이] ㄴ. (다)의 종장에서 화자가 두꺼비로 전환되기는 하지만, 대상과 화자를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다.

ㄹ. (다)에서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한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11 이 글에서는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닌 계월과 그런 계월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보국 간의 갈등이 중점적으로 드러난다.

[오답풀이] ② 계월이 천자의 부름을 받아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로 결심하는 장면에서 유교적 충군 사상이 드러난다.

③, ⑤ 이 글은 비범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 계월의 활약상이 영웅의 일대기 구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개된다.

④ 계월은 남장을 하고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전쟁에 나가 큰 공을 세웠다. 남장을 통해 여성의 한계에서 벗어나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12 이 글은 조선 후기에 창작된 작품으로, 비범한 능력을 지닌 여성 영웅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당시 여성의 의식 성장과 사회적 자아실현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조선 후기에는 신분 질서가 동요되었다.

② 적자와 서자의 차별은 이 글과 관련이 없다.

③ 여성의 지위가 일부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했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을 더 우대하지는 않았다.

④ 조선 후기에는 한글이 확산되어 독자층이 사대부 여성을 비롯한 평민층까지 확대되는 등 폭넓은 계층에서 독서를 향유하였다.

배경지식+ 적서 차별을 소재로 한 소설, 『홍길동전』

갈래	국문 소설, 영웅 소설, 사회 소설
성격	현실 비판적, 전기적, 영웅적
배경	• 시간 - 조선 시대 • 공간 - 조선, 울도국
제재	적서 차별
주제	모순된 사회 제도에 대한 비판과 개혁 의식
특징	•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 소설임. • 영웅의 일대기 구성을 보이며 비현실성과 전기성이 드러남. • 모순되고 불합리한 사회 제도에 대한 저항 정신이 담겨 있음. • 서자 신분인 홍길동이 울도국이라는 이상국을 건설한다는 내용을 다룸.

13 (다)의 “계월이 전날은 대원수 ~ 수가 있단 말이옵니까?”와 (마)의 “계월이 또 소자를 ~ 일이 어디에 있사옵니까?”에서 보국의 가부장적 가치관이 드러난다.

[오답풀이] ① 보국이 불만스러운 것은 가족 간의 청탁이 아니라 여성인 계월이 남성인 자신을 수하로 부리려 한다는 것이다.

②, ④ 보국은 가부장적 가치관과 남존여비 의식을 지니고 있으므로, 능력보다 성별을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

③ 보국은 남성인 자신이 여성인 계월에게 팔시를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14 (다)에서 여공이 보국에게 말하는 장면에서 계월과 보국이 공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만일 계월이 영춘을 ~ 부부 사이의 의리도 변할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자기가 거만하다가 죽임을 당했으니 누구를 한하겠느냐?”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계월은 천자께서 중매하신 ~ 것이니 부디 조심하라.”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계월이 비록 네 아내가 되었으나 벼슬을 놓지 않았고 ~ 너를 부릴 만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15 ㉠은 계월의 어머니인 양 씨가 기이한 꿈을 꾸 후 계월을 얻었다는 내용이므로 ‘비정상적 출생’에 해당하고, ㉡은 계월이 여공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했다는 내용이므로, ‘조력자의 도움’에 해당하며, ㉢은 원래 여성인 계월이 남장을 하여 천자를 속인 것이 탄로 났다는 내용이므로 ‘성장 후 위기’에 해당한다.

- 16 (나)에서 여자임이 탄로 난 후 계월이 상소를 올려 천자를 속인 죄를 청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은 계월이 여성임을 속인 채 과거에 급제하고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운 일을 의미한다.

핵심 요약 남장 모티프의 사용

‘폐하를 속이고’ 계월은 남장을 하여 여성임을 숨긴 채 과거에 급제하고 전쟁에 나가 공을 세움.	→	- 남장은 여성이 남성 중심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도구임. - 남장을 통해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여성의 한계를 벗어나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음.
--	---	---

- 17 (다)에서 천자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자 자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천자는 계월이 자신을 구하려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계월은 보국의 위급함을 보고 적진으로 가 보국을 위기에서 구해 주었다.

③ (나)에서 맹길은 오왕과 초왕에게 계월 모르게 황성을 급습하자는 묘책을 제시하였다.

④ (라)에서 계월은 황성에 도착하여 텅 빈 장안에서 우연히 수컷 구멍에 숨어 있던 여공을 만났다.

⑤ (리)에서 계월은 천기를 살피 천자의 위급함을 알아채고 말을 달려 하룻밤 사이에 황성에 다다랐다.

- 18 (가)에서 보국은 계월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후, 여성이라는 이유로 계월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을 반성하며 계월 보기를 부끄러워하고 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이므로 보국의 태도를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오답풀이] ① 군계일학(群鷄一鶴)은 닭의 무리 가운데에서 한 마리의 학이라는 뜻으로,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인물을 이르는 말이므로 계월의 영웅적 활약상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② 속수무책(束手無策)은 손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 한다는 뜻으로, 계월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맹길의 모습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④ 다재다능(多才多能)은 재주와 능력이 여러 가지로 많다는 뜻으로, 천기를 읽는 등 여러 가지 비범한 능력을 지닌 계월에게 적절한 표현이다.

⑤ 진퇴양난(進退兩難)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라는 뜻으로, 앞에는 큰 강이 있고 뒤에는 적병이 쫓아오는 천자의 처지를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 19 ㉠에서 계월은 계월이 여자라는 이유로 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보국의 가부장적 태도를 조롱하며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은 계월이 보국에게 인정받으려는 모습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③ ㉠은 당대 사회의 가부장적 관습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남존여비 사상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던 당대의 여성들은 이 대목을 읽으면서 통쾌함을 느꼈을 것이다.

②, ④ ㉠에서 계월은 여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보국의 가부장적 태도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있다.

20 서술형

㉠에서는 사물을 실상보다 지나치게 과도하게 혹은 작게 표현함으로써 문장의 효과를 높이는 과장법과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비유법을 사용하여 계월의 비범한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 21 ‘황성’은 황제가 있는 나라의 서울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① ‘장대’는 계월이 전장을 살펴보고 군대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군대를 지휘하는 대(臺)를 의미한다.

② ‘계교’는 계월이 모르게 천자가 있는 황성을 급습하려는 맹길의 꾀(계획)를 의미한다.

④ ‘애걸’은 천자를 모시는 신하 등이 맹길에게 천자를 살려 달라고 애처롭게 빌을 의미한다.

⑤ ‘경각’은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의미로, 천자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음을 나타낸다.

- 22 여성의 사회 활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 씨와 달리, 계월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 활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천자가 위기에 처하자 단숨에 구하려 가는 모습을 통해 계월이 충군 사상을 중시함을 알 수 있다.

② 암탉이 새벽에 울고 철부가 나라를 기울게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을 통해 사 씨가 능력보다 성별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③ 계월은 성별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인물로,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다.

⑤ 자고로 장부가 부인의 말을 들으면 이익은 적고 폐해가 많았다는 말을 통해 사 씨가 가부장적 가치관을 옹호함을 알 수 있다.

배경지식+ 「사씨남정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사 씨	당시 유교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인물로, 부덕과 학문을 겸비한 현모양처의 전형임.
교 씨	패락과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힌 인물로 간교하고 사악함.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려 하는 비인간적인 인물임. 당시의 물질적 풍요에 대한 욕구가 팽배했음을 보여 줌.
유연수	학식과 능력이 뛰어나 모범적으로 보이나 현실에는 무능한 당시의 양반을 대표하는 인물임. 교 씨의 유혹에 넘어가 사 씨를 폐출시키고 나중에는 자신도 유배를 당하게 됨.

01 이 시가의 후렴구는 각 연을 분절하고, 운율을 형성하여 노래의 흥을 돋운다. 또한 각 연마다 반복되어 구조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주고, ‘ㄹ, ㅇ’ 음을 사용하여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02 이 시가의 화자를 ‘유랑민’이라고 해석할 때, ㉠은 ‘이끼 묻은 쟁기 일랑’으로 해석되고, 주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의 비애’가 된다.

03 이 시가와 〈보기〉는 각 연이 독립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청자가 마음대로 노랫말을 이어 부르기 쉽고, 동일한 구조와 후렴구를 반복하여 노랫말을 쉽게 기억할 수 있다.

04 (가)와 (나)는 3장 6구 45자 내외, 4음보 형식을 지닌 평시조이고, (다)는 평시조에서 중장이 길어진 사설시조이다.

05 ‘ㄷ’은 눈 속에서도 푸른빛을 잃지 않는 존재로, 고려 왕조에 대한 작가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06 임이 부재한 시간에 잘라 두었던 시간을 입과 함께하는 시간에 이어 붙임으로써 입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다.

07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허세를 부리는 ‘두터비(두꺼비)’를 풍자하고 있다.

08 영웅의 일대기 구성은 ‘고귀한 혈통 → 비정상적 출생 → 비범한 능력 → 어릴 적 위기 → 조력자의 도움 → 성장 후 위기 → 위기 극복과 행복한 결말’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09 (나)에서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이 드러나고, (다)에서는 유교적 충군 사상이 드러난다.

10 조선 후기에 남존여비 사상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여성의 사회적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면서 여성 영웅 소설이 등장하였다.

01 이 시가의 후렴구인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는 각 연을 분절하고, 각 연마다 반복되어 구조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준다. 또한 운율을 형성하고 노래의 흥을 돋우며, ‘ㄹ, ㅇ’ 음의 반복 사용으로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채점 기준	배점
후렴구의 기능을 세 가지 이상 제시하여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6점
후렴구의 기능을 두 가지만 제시하여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4점
후렴구의 기능을 한 가지만 제시하여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2점

02 이 시가의 화자를 ‘유랑민’이라고 해석할 때, ㉠은 ‘이끼 묻은 쟁기일랑’으로 이해할 수 있다. 농기구인 쟁기에 이끼가 묻어 있다는 것은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 시가의 주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의 비애’라고 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이 시가의 화자를 ‘유랑민’이라고 해석할 때의 주제를 ㉠의 의미를 포함하여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6점

이 시가의 화자를 ‘유랑민’이라고 해석할 때의 주제를 바르게 제시하였으나, ㉠의 의미를 포함하여 서술하지 못하였다.

4점

이 시가의 화자를 ‘유랑민’이라고 해석할 때의 주제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의 의미는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2점

03 이 시가는 고려 가요이고 〈보기〉는 민요이다. 두 작품은 각 연이 독립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주제의 유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청자가 마음대로 노랫말을 붙여 이어 부르기 쉽다. 또한 동일한 구조의 반복과 후렴구는 사람들의 흥을 돋우고 노랫말을 쉽게 기억하게 한다. 이러한 형식적 특성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불리며 이어져 올 수 있었다.

채점 기준	배점
구비 전승에 용이한 두 작품의 형식적 특성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하여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6점
구비 전승에 용이한 두 작품의 형식적 특성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하였으나,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4점
구비 전승에 용이한 두 작품의 형식적 특성을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2점

04 (가)와 (나)는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을 취하며, 각 장은 4음보를 유지하고 있는 평시조이다. 반면 (다)는 3장 6구에서 변형되어 중장이 길어져서 시조의 장형화를 이룬 사설시조이다.

채점 기준	배점
(가)~(다)의 시조의 종류를 밝히고, 각 시조의 형식상 특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6점
(가)~(다)의 시조의 종류를 밝히지 않았으나, 각 시조의 형식상 특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4점
(가)~(다)의 시조의 종류를 밝혔으나, 각 시조의 형식상 특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2점

05 (가)에서 ‘ㄷ(대나무)’는 눈 속에서도 푸른빛을 잃지 않는 속성을 지닌 존재로 충신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즉 고려의 유신(遺臣)인 작가는 ‘ㄷ’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고려 왕조에 대한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ㄷ’이 상징하는 바를 ‘ㄷ’이 지닌 속성을 포함하여 작가의 의도와 함께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6점

'디'가 상징하는 바를 '디'가 지닌 속성을 포함하여 제시하였으나,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4점
'디'가 상징하는 바를 제시하였으나, '디'가 지닌 속성을 포함하여 서술하지 못하고 작가의 의도도 서술하지 못하였다.	2점

- 06 (나)에서 '동지(冬至)ㅅ들 기나긴 밤'은 임이 부재한 시간을 의미하고, '어른 님 오신 날 밤'은 임과 함께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화자는 '동지(冬至)ㅅ들 기나긴 밤'을 잘라 두었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에 이어 불임으로써 임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화자가 ㉠과 같이 행동하려는 이유를 대조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6점
화자가 ㉠과 같이 행동하려는 이유는 정확하게 제시하였으나 대조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서술하지 못하였다.	3점

- 07 (다)의 ㉡은 화자가 '두터비'로 전환되어 '두터비'가 '백송골'을 보고 놀라서 도망치다가 넘어진 실수를 감추기 위해 허세를 부리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풍자 대상이 '두터비(두꺼비)'임을 밝히고, 풍자 대상의 행위와 그 목적을 포함하여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6점
풍자 대상이 '두터비(두꺼비)'임을 밝히고, 풍자 대상의 행위와 그 목적 중 하나만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4점
풍자 대상이 '두터비(두꺼비)'임을 제시하였으나, 풍자 대상의 행위와 그 목적을 포함하여 서술하지 못하였다.	2점

- 08 영웅의 일대기 구성은 '고귀한 혈통(이부 시랑 홍무의 딸로 태어남.) → 비정상적 출생(어머니 양 씨가 선녀가 나오는 태몽을 꿈.) → 비범한 능력(어려서부터 대단히 총명함.) → 어릴 적 위기(장사랑의 반란으로 부모와 헤어지고, 죽을 위기에 처함.) → 조력자의 도움(여공을 만나 목숨을 건지고 보국과 함께 양육됨.) → 성장 후 위기(국란이 잦고, 여자임이 탄로 나며, 영춘을 죽인 일로 보국과 갈등함.) → 위기 극복과 행복한 결말(계월이 출정하여 적을 물리치고, 천자에게 납장했던 일을 용서받고, 보국과의 갈등을 해소함.)'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채점 기준	배점
영웅의 일대기 구성을 7단계로 구분하여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6점
영웅의 일대기 구성을 7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4점
영웅의 일대기 구성을 제시하였으나, 7단계 중 한 단계 이상을 빠뜨리고 서술하였다.	2점

- 09 (나)는 보국이 남편의 권위를 내세워 아내인 계월의 처사를 비난하는 장면으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이 드러난다. (다)는 계월이 천자의 부름을 받아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로 결심하는 장면으로, 유교적 충군 사상이 드러난다.

채점 기준	배점
(나)와 (다)에 반영된 당대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6점
(나)와 (다)에 반영된 당대의 가치관을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3점

- 10 (라)는 계월이 위기에 처한 보국을 구해 주고 계월이 여자라는 이유로 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보국의 가부장적 태도를 조롱하며 비판하는 장면으로, 남존여비 사상에 대한 당시 여성들의 고조된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는 계월이 천자를 구하기 위해 적장인 맹길을 무찌르는 장면으로,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라)에서 드러나는 당시 여성들의 불만과 (마)에 드러나는 욕구를 포함하여 여성 영웅 소설의 등장 배경을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6점
(라)에서 드러나는 당시 여성들의 불만과 (마)에 드러나는 욕구를 제시하였으나, 여성 영웅 소설의 등장 배경을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4점
(라)에서 드러나는 당시 여성들의 불만과 (마)에 드러나는 욕구 중 하나만 포함하여 여성 영웅 소설의 등장 배경을 서술하였다.	2점

9 우리 말과 글의 역사 위에서 미래를 보다

01 국어의 어제와 오늘

확인 문제

- 216쪽 01 ㉔ 02 중세 국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이다.
- 217쪽 03 ㉔ 04 이어 적기를 했다.
- 218쪽 05 (1) ○ (2) × (3) × 06 이, ㅣ
- 219쪽 07 (1) ㄴ (2) ㄱ 08 언어의 역사성
- 220쪽 09 세종 학당 10 (1) × (2) ○
- 221쪽 11 (1) × (2) ○ 12 고유어, 순화어

01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는 조선 세조 5년(1459)에 발행한 『석보상절(釋譜詳節)』에 실려 전하는데, 이 책은 15세기 말에 발행되었다. 임진왜란은 조선 선조 25년(1592)인 16세기 말에 일어났으므로 15세기에 발행된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에서 임진왜란 이후의 국어 모습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③ ‘어지’는 훈민정음, 즉 한글을 창제한 세종 대왕이 한글 창제의 목적과 정신을 직접 밝힌 글이다.

② ‘어지’는 ‘어제 서문’이라고도 한다.

④ ‘어지’는 15세기 말에 발행되었다. 국어의 역사를 구분할 때 10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시기를 ‘중세’라고 하므로 ‘어지’는 중세 국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02 ‘세종어제훈민정음’은 한문으로 된 『훈민정음』에서 어제 서문과 예의(例義) 부분만을 한글로 풀이하여 간행한 것으로, 중세 국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헌 자료이다.

03 중세 국어에서는 ‘쁘들’, ‘뿌메’와 같이 음절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었으며 이를 ‘어두 자음군’이라고 한다. 현대 국어에서는 이런 말이 ‘뜻을’, ‘쌈에’처럼 된소리로 바뀌었다.

[오답 풀이] ① 중세 국어는 위에서 아래로 세로쓰기를 하였고, 현대 국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쓰기를 하고 있다.

② 중세 국어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고, 현대 국어는 띄어쓰기를 하고 있다.

③ 중세 국어에서는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기 위해 글자의 왼쪽에 방점을 찍어 표기하였으나 현대 국어에서 방점은 사라졌다.

④ 중세 국어는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이어 적기를 하였고, 현대 국어에서는 끊어 적기를 하고 있다.

04 ‘쁘들’을 형태소로 분석하면 ‘쁘+을’이 되고, ‘노미’를 형태소로 분석하면 ‘놈+이’가 된다. 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쁘들’과 ‘노미’로 표기했는데, 이것은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이어 적기’를 하였기 때문이다.

05 (1) 중세 국어에서 비교를 나타내는 조사로는 ‘에’가 쓰였다. 이것은 현대 국어의 조사 ‘와/과’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다.

(2)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가 ‘이/ㅣ’만 쓰였다. 현대 국어에서 끝음절에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 붙어 주어 나타내기 위해 쓰는 조사 ‘가’는 중세 국어에 없었다.

(3) 중세 국어에서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결합하는 모음 조화 현상이 잘 지켜졌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 현상이 약해졌다.

06 ‘빅성이니르고저흠배이셔도’의 현대어 풀이는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이다. 이 문장에서 ‘빅성이’의 ‘이’와 ‘배(바+ㅣ)’의 ‘ㅣ’가 주격 조사로 쓰였다.

07 (1) ‘어린’은 중세 국어에서 ‘어리석은’의 의미로 쓰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은’의 의미로 쓰인다. 따라서 현대 국어에 와서 의미가 달라진 경우에 해당된다.

(2) ‘서르’는 중세 국어나 현대 국어에서 모두 ‘서로’의 의미로 쓰인다. 따라서 형태만 다르고 의미는 유지된 경우에 해당된다.

08 <보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음운이 사라지고, 어휘의 의미가 변하며, 일부 어휘의 경우 사용되지 않기도 하는 등 언어의 변화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특성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09 세종 학당은 해외에 있는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10 (1)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이라는 그래프를 통해 한국어 능력 시험 지원자 수와 세종 학당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이 커지면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한국을 알고 이해할 필요가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11 (1)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가상 공간에서도 언어 규범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바)에서 우리는 국어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자신이

국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국어를 사랑하며 국어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국어를 사랑하며 국어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가 국어의 아름다운 미래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 12**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고 고유어나 순화어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국어 사용 방법이라고 하였다.

학습 활동

확인 문제

생각 모으기 01 ㉠ 02 (1) 이어 적기, 가로쓰기 (2) 어
225쪽 두 자음군 (3) 왼쪽, 방점 (4) 가 03 L 04 (1) × (2) ×
(3) O

생각 펼치기 05 고유어가 한자어로 대체되었다. 06
228쪽 ㉡ 07 (1) × (2) O

- 01** <보기>의 ‘둥꺾에달아’는 현대 국어에서 ‘중국어와 달라’라는 뜻으로 ‘에’는 비교를 나타낸다. 따라서 현대 국어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비교격 조사인 ‘와/과’이다.

완자생의 조언

‘에’는 보통 앞말이 처소나 진행 방향, 원인 등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데, ‘둥꺾에달아’에서는 우리나라의 말과 중국의 말을 비교하는 의미로 쓰였어요. 여기서의 ‘에’는 현대 국어에서 비교를 나타내는 ‘와/과’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비교격 조사 ‘와/과’는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 ‘와/과’와 헷갈리기 쉬어요. 따라서 예문을 통해 ‘와/과’의 의미를 익히는 것이 좋겠죠.

- 02** (1) 중세 국어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쓰는 세로쓰기를 한 반면, 현대 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가로쓰기를 한다. 또 중세 국어에서는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이어 적기를 한 반면, 현대 국어에서는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적는 끊어 적기를 한다.
(2) 중세 국어에서는 음절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이 있었는데, 현대 국어에 와서는 이것이 된소리로 바뀌었다.
(3) 중세 국어에서는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성조, 즉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였다.
(4) 중세 국어에서는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로 ‘이/ㅣ’가 쓰인 반면, 현대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로 ‘이’뿐만 아니라 끝음절에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 붙는 ‘가’도 쓰인다.

배경지식 + 표기법

주로 받침 있는 자음이 앞 음절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접사가 뒤 음절에 올 때 적용된다.

이어 적기 (연철)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앞 음절의 끝소리가 받침이고 뒤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접사인 경우 그 받침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음. 예) 눈무를
거듭 적기 (중철)	앞 음절의 끝소리가 받침이고 뒤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접사인 경우 앞 음절에 받침을 적고 뒤 음절의 첫소리에도 그 앞말의 받침을 적음. 예) 눈물을
끊어 적기 (분철)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표기하는 방식으로, 앞 음절의 끝소리가 받침이고 뒤 음절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접사가 오는 경우 앞 음절에 받침을 그대로 두고 뒤 음절의 첫소리에 ‘ㅇ’을 적음. 예) 눈물을

- 03** 중세 국어의 ‘어린’은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었지만, 형태가 비슷한 현대 국어의 ‘어린’은 ‘나이가 적은’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오답풀이】 가. ‘서르’는 현대 국어의 ‘서로’로, 의미는 그대로이고 형태만 변한 것이다.

다. ‘퍼디’는 현대 국어의 ‘퍼지’로, 의미는 그대로이고 형태만 변한 것이다.

라. ‘무춤내’는 현대 국어의 ‘마침내’로, 의미는 그대로이고 형태만 변한 것이다.

마. ‘수뵈’는 현대 국어의 ‘쉽게’로, 의미는 그대로이고 형태만 변한 것이다.

- 04** (1)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 동포나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따라서 국어 전공자들이 국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시험에 응시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2) 초성만 쓰거나 줄임말을 사용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상 공간이라도 언어 규범에 맞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3) 외래어나 외국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국어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므로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고 이해하기 쉬운 고유어나 순화어를 사용하는 것이 국어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태도이다.

- 05** ‘뫼’와 ‘ㄱ’은 고유어이며, ‘산(山)’과 ‘강(江)’은 한자어로, 이것은 고유어가 한자어로 바뀐 경우이다.

- 06** ‘버스’만 우리말과 같이 쓰이는 외래어이고, 나머지는 모두 외국어이다.

【오답풀이】 ‘개서’는 ‘계산원, 수납원’으로, ‘레시피’는 ‘조리법’으로, ‘홀스쿨’은 ‘가정학교’로, ‘테이크아웃’은 ‘포장 구매/포장 판매’로 바꾼 순화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 07** (1) 외국의 문물이나 사상과 함께 들어오는 말에 대응하는 고유어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2) 가상 공간에서 신조어나 줄임말 등 언어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게 될 경우, 이런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231~233쪽

01 ⑤ 02 ⑤ 03 ④ 04 ㄱ, ㄴ, ㄷ 05 ③ 06 ② 07 ④ 08 ⑤ 09 역사성 10 ⑤ 11 ④ 12 ③

- 01** 이 글에서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표기 및 음운상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공통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이라고도 합니다.’, ‘~ 알아보죠.’ 등과 같은 구어체를 사용하며, 중세 국어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청중을 대상으로 한 강연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②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국어의 변천에 대해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표기와 음운의 차이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세종어제훈민정음’의 ‘어제’를 중심으로 표기와 음운의 변화 및 띄어쓰기, 방점, 음운, 어두 자음군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02** 중세 국어는 음절의 첫머리에서 ‘쁘들’, ‘뿌메’와 같이 각기 다른 자음이 올 수 있었는데, 이를 ‘어두 자음군’이라고 한다. 이 어두 자음군은 현대 국어에서는 사라지고 ‘뜻을’, ‘쌔에’처럼 된소리로 변하였다.

[오답풀이] ① (다)에서 중세 국어는 세로쓰기를 했고, 현대 국어는 가로쓰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다)에서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다)에서 중세 국어는 이어 적기를 했고, 현대 국어는 끊어 적기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다)에서 중세 국어는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성조, 즉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 국어에서는 방점을 찾아볼 수 없다.

- 03** (나)는 세종 임금이 훈민정음 창제의 목적을 밝힌 어제 서문이다. 이 글에서는 국어 음운의 창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세종 대왕은 글자를 몰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훈민정음 28자를 창제하였다고 하였다.

②, ⑤ 세종 대왕은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우리말이 통하지 않아 겪는 언어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중국의 문자와 다른 우리만의 문자를 창제하고자 했던 세종 대왕의 자주 정신이 나타난 것이다.

③ 국어의 역사를 구분할 때 10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시기를 ‘중세’라고 하는데, ‘세종어제훈민정음’은 중세 국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이다.

- 04** 중세 국어의 ‘ㅇ, ㅎ, ㅁ, ㄴ, ㄷ’ 등과 같이 오늘날 쓰지 않는 글자 중 ‘ㅁ, ㄴ, ㄷ’은 현대 국어에 없는 음운을 표기하기 위한 글자이다.

- 05** ㉠의 ‘짱탈’에서 ‘짱’은 음절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함께 온 것이 아니라 같은 자음이 온 것이다. 따라서 어두 자음군이 사용된 경우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 ‘말쌔미’는 현대 국어로 ‘말쌔미’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ㅁ’을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이어 적기를 했다.

② ㉡ ‘무·츄:내’의 글자 왼쪽에 있는 점은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방점이다.

④ ㉢ ‘땡꺄노니’에는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ㅇ(옛이음)’과 ‘ㅇ(아래아)’가 쓰였다.

⑤ ㉣ ‘수뵈’는 현대어로 풀이하면 ‘쉽게’라는 의미가 된다.

배경지식+ 어두 자음군

중세 국어에서 음절의 첫머리에 나오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을 말한다. 현대 국어에서는 이러한 자음군이 없으나 훈민정음이 창제된 당시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표기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쌔’의 ‘ㅁ’, ‘ㅈ(地)’의 ‘ㅈ’, ‘쌔’의 ‘ㅈ’, ‘뽕’의 ‘ㅈ’, ‘뽕’의 ‘ㅈ’, ‘뽕’의 ‘ㅈ’ 등이다.

- 06** (라)에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표기 및 음운, 문법, 어휘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표기와 음운에서도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중세 국어의 경우 비교적 조사로 ‘에’가 쓰였다고 하였다.

③ (다)에서 중세 국어에 쓰인 어휘 중에 형태나 의미가 현대 국어와 다른 것이 있다고 하였다. ‘서르’는 현대 국어와 형태가 다르고, ‘어린’은 현대 국어와 의미가 다르다고 하였다.

④ (가)에서 중세 국어의 경우 주격 조사는 ‘이/’만 쓰였고, 현대 국어에서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 붙어 주어와 나타내는 조사 ‘가’는 쓰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⑤ (나)에서 중세 국어에서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 현상이 잘 지켜졌다고 하였다.

07 ‘동국에달아’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라는 의미로 여기서 ‘에’는 비교를 나타내는 조사 역할을 하며, 현대 국어에서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조사로는 ‘와/과’가 쓰인다고 하였다. ④의 ‘그는 형과 비슷한 점이 많다.’에서 ‘과’는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였으므로 ①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이 문장의 ‘에’는 앞말이 원인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였다.

② 이 문장의 ‘에’는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였다.

③ 이 문장의 ‘와’는 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였다.

⑤ 이 문장의 ‘와’는 일 따위를 함께 함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였다.

08 ㉔ ‘어엿비’는 중세 국어에서 ‘불쌍히’ 또는 ‘가엾게’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현대 국어에 와서 ‘예쁘게’로 의미가 바뀌었다.

[오답풀이] ① ㉔ ‘어린’은 중세 국어에서 ‘어리석은’이라는 의미가 현대 국어에 와서 ‘나이가 적은’이라는 의미로 변한 말이다.

② ㉔ ‘무춤내’는 ‘드디어 마지막에는’이라는 의미는 그대로인데 형태만 ‘마침내’로 변한 말이다.

③ ㉔ ‘노미’에서 ‘놈’은 중세 국어에서는 ‘보통 사람’을 의미하였는데 현대 국어에 와서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바뀌었으므로 의미가 축소된 말이라 할 수 있다.

④ ㉔ ‘하나라’는 중세 국어에서 ‘많다’라는 의미였는데 현대 국어에 와서 ‘많다’는 뜻은 사라졌다.

핵심국립. 어휘의 의미 변화

	중세 국어	현대 국어	변화 양상
어리다	어리석다.	나이가 적다.	의미의 이동
놈	보통 사람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의미의 축소
어엿보다	불쌍하다. 가엾다.	예쁘다.	의미의 이동

09 이 글에서 국어의 문법과 어휘의 측면에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해 보았을 때, 언어가 변화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 변화, 발전, 소멸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배경지식+ 언어의 특성

기호성	언어는 말소리 혹은 문자라는 형식과 의미라는 내용이 결합한다는 특성
규칙성	정해진 규칙에 따라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특성

자의성	대상을 가리키는 말소리(형식)와 대상(의미)의 관계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특성
사회성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약속이며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특성
역사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의 모습이나 의미가 조금씩 변하기도 한다는 특성
창조성	한정된 단어로 새로운 표현이나 문장을 상황에 따라 무한히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특성

10 이 강연에서 세계적으로 한국어 사용자를 확대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나)는 오늘날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다)는 올바른 국어 사용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② (가)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과 ‘세종 학당’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③ (다)에서 외래어와 외국어를 과도하게 사용한 경우와 가상 공간에서 언어를 잘못 사용한 경우를 예로 들어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가)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나타낸 그래프를 제시하여 제공된 정보에 대한 청중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11 이 글에는 세계 속에서 높아지는 한국어의 위상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 민간 부문보다 정부 부문의 실질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의 그래프를 보면 2008년 2,906명, 2010년 6,016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2년에는 28,793명으로 세종 학당의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그래프를 보면 한국어 능력 시험 지원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를 보면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이 커지면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한국을 알고 이해할 필요가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제시하고 있다.

⑤ (가)의 그래프에서 세종 학당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나)에서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추세라면 세종 학당의 학생 수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12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자어를 사용하면 정확하게 의미 전달을 할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의사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② 불필요한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고 고유어나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

④ 우리말의 언어 규범을 알고 되도록 언어 규범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⑤ 가상 공간에서 빠른 의사 전달을 위해 초성만을 쓰거나 줄임말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02 우리말의 담화 관습 다시 보기

학습 활동

확인 문제

240쪽 **활동 1** 01 신중하게 말하기 02 겸손하게 말하기
03 (1) 담화 관습 (2) 가려듣기 04 (1) ○ (2) ×

245쪽 **활동 2** 05 경청하기(상대방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기) 06 (1) 사회, 문화적 (2) 장점

01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는 말은 순식간에 멀리까지 퍼지므로 말을 삼가라는 뜻이며,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는 같은 내용의 이야기라도 표현에 따라 듣는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속담들은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대화 상대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말만 조심히 하는 ‘신중하게 말하기’의 담화 관습을 반영하고 있다.

02 남학생은 여학생에게 말재주가 좋다고 칭찬하고 있다. 여학생은 이에 동조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겸손하게 대답해야 하므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겸손하게 말하기’라는 담화 관습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관객의 조언

상대방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져서 자신의 자량을 늘어놓거나 잘난 체를 하면 듣는 사람의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하기 방식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03 (1)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형성된 언어와 관련된 독특한 관습이 있다. 이를 담화 관습이라 한다.

(2) 우리말의 담화 관습에 따르면 도리에 맞지 않는 내용이나 과장된 말, 남을 헐뜯는 말은 신중하게 판단하여 가려들어야 한다.

04 (1) 직설적인 말하기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돌려 말하기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완곡하게 드러내어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2) 우리말의 담화 관습 중 ‘경청하고 가려듣기’에 따르면 상대방이 이미 들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중간에 아는 체를 하거나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한 귀로 흘려드는 것은 경청의 자세가 아니므로 옳바르지 않다.

05 <보기>의 남학생은 여학생이 말을 끝맺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 자신의 말만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남학생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경청하기’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06 (1) 과거 우리말의 담화 관습을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 이에 맞게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계승해야 한다.

(2) 면접 담화 상황에서 겸손하게 표현하면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지 못하여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우므로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는 말하기를 해야 한다.

소단원 평가 문제

248~249쪽

01 ② 02 ④ 03 ④ 04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기
05 ⑤ 06 ③ 07 ④ 08 상대방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비난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함.

01 <보기>는 우리말의 담화 관습을 보여 주는 시조로, 남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자신이 남에게 함부로 말하면 남도 똑같이 자신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하게 말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말을 조심해서 신중하게 하라는 의미이다. 요점만 간결하게 말하라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상대방을 고려하여 완곡하게 돌려 말하는 담화 관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말하기에 함께 참여하라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다른 사람과 말하기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문제를 다룬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02 김 선생이 자신의 말을 잡아 안주를 장만하라고 한 것은 친구의 곤궁한 생활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친구의 인색함을 완곡한 방식으로 지적하기 위함이다.

오답풀이 ① 벼는 김 선생이 “닭을 빌려 타고 가려네.”라고 하자 그 말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닭을 잡아 대접을 하였다.

② 김 선생은 간접적인 표현으로 닭을 잡아 안주를 내으라는 요구를 드러내고 있다.

③ 김 선생은 벼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할 경우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어서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기를 한 것이다.

⑤ 벼는 김 선생에게 “집은 가난하고 시장마저 멀다네.”라고 말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03 출연자는 뉴스 진행자의 칭찬에 대해 과찬의 말씀이라고 하며 그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 따라서 뉴스 진행자의 말에 동의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① 출연자는 뉴스 진행자의 칭찬에 대해 과찬의 말씀이라고 하며 겸손한 태도로 말하고 있다.
- ② 뉴스 진행자는 출연자를 높이며 칭찬하는 말을 사용하여 소개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출연자는 뉴스 진행자에게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태도로 예의를 지켜 말하고 있다.
- ⑤ 뉴스 진행자는 한 평론가의 “혁명적 존재였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출연자를 칭찬하고 있다.

04 서술형

〈보기〉는 이미 들은 이야기라도 중간에 끼어들어 알고 있다고 말하지 말고 끝까지 경청하는 태도를 지녀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 05** 남학생은 성적이 떨어져 힘들어하는 여학생의 고민을 무시하고 자신의 성적이 잘 나왔음을 과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만하여 말한 남학생의 태도는 친구의 기분을 언짢게 만들 수 있다.

- |오답풀이|** ① 여학생은 하던 말을 끝마친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고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완곡하게 말하지 않아 문제가 된 상황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말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 ③ 상대방이 처한 문제에 대해 알맞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상황이기보다는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여 겸손하지 않은 태도로 말한 것이 문제이다.
- ④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은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친구 사이의 대화에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06** 〈보기〉는 취업을 위한 면접 담화 상황이다. 면접 상황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자신의 취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담화 상황을 고려할 때 (가)와 같이 자신의 장점을 말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태도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① (가)는 자신에 대해 겸손한 태도로 말하고 있다.
- ② (나)는 업무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여 말하고 있다.
- ④ 면접 담화 상황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가)와 같은 겸손한 태도보다 (나)와 같이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태도로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⑤ 전통적인 담화 관습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보다 겸손한 태도로 말하는 것을 중시하므로 (가)와 같은 말하기를 권장할 것이다.

- 07** 〈보기〉는 어머니를 설득해야 하는 담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께 현재 학생들의 공부 방법을 잘 알고 있음을 지적하면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어머니를 설득하기 어렵다.

- |오답풀이|** ① 어머니께서 자신의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요구 사항을 조심스러운 태도로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을 끝까지 다 듣고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은 알맞은 듣기 태도이다.
- ③ 어머니께서 충고를 한다고 해서 그것에 반하는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기보다는 귀 기울여 들으며 원만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
- ⑤ 성적에 더 신경을 쓰기 위해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요구 사항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설득 근거가 될 수 있다.

08 서술형

여학생은 남학생이 문제 풀이를 잘못하여 위축된 상황에서 그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비난하여 남학생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있다.

어휘 어법 활동

확인 문제

253쪽 01 (1) 양상 (2) 천금 (3) 수작 02 (1) 과찬 (2) 경청 (3) 성찰

- 01** (1) ‘형편’은 ‘일이 되어 가는 상태나 경로 또는 결과’라는 뜻이며, ‘양상’은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라는 뜻이다. 사태가 어떤 모습을 띠며 전개된다는 문맥적 의미로 볼 때 ‘양상’이 들어가야 한다.

(2) ‘천금’은 ‘많은 돈이나 비싼 값. 또는 아주 귀중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며, ‘성금’은 ‘정성으로 내는 돈’을 뜻한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일을 못하겠다는 문맥적 의미로 볼 때 ‘천금’이 들어가야 한다.

(3) ‘수다’는 ‘쓸데없이 말수가 많음.’이라는 뜻이며, ‘수작’은 ‘말을 서로 주고받음.’이라는 뜻이다. 친구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수작’이 들어가야 한다. ‘수다하다’는 형용사이므로 ‘수다’는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 02** (1) ‘과찬’은 ‘지나치게 칭찬함. 또는 그런 칭찬’이라는 뜻으로, ‘과찬의 말씀입니다.’는 겸손의 표현으로 자주 쓰이는 말이다.

(2) ‘경청’은 ‘귀를 기울여 들음.’이라는 뜻으로, 대화의 기본은 남의 말을 듣는 것이므로 ‘경청’이 적절하다.

(3) ‘성찰’은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이라는 뜻으로, 자신의 언어생활을 돌아보며 살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성찰’이 적절하다.

- 01 ③ 02 ④ 03 ③ 04 중세 국어의 어휘는 현대 국어에서 그 의미가 유지된 것도 있지만, 완전히 달라진 것도 있다. 05 ④
06 ② 07 ③ 08 ⑤ 09 ③ 10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11 ② 12 겸손하게 말하기

01 (다)에서 중세 국어에서는 세로쓰기를 하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가로쓰기를 하고 띄어쓰기를 하는 것은 현대 국어의 특징이다.

[오답풀이] ① (다)에 제시되어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는 성조, 즉 소리의 높낮이를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표시하였다. 방점은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② (다)에 제시되어 있듯이, 끊어 적기를 하는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이어 적기를 하였다.

④ (마)에 제시되어 있듯이, 중세 국어에는 음절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현대 국어에 와서는 된소리로 바뀌었다.

⑤ (라)에 제시되어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는 'ㅇ(옛이응), ㅎ(여린히응), ㅃ(순경음 비읍), •(아래아)' 등과 같이 오늘날 쓰이지 않는 글자가 존재하였다.

배경지식+ 'ㅃ, ㅅ, •'의 변천

ㅃ	'ㅃ'이 사용되다가 반모음 'ㅍ/ㅌ[w]'로 바뀜. 예) 고ㅃ(곱+아)>고와
ㅅ	'ㅅ'이 사용되다가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에 소리값이 소멸함. 예) 나ㅅ>낫+아→나아
•	• 16세기에 둘째 음절 이하에서 주로 'ㅡ'로 변함. 예) 후ㅅㅅㅅ → 후ㅅㅅㅅ • 18세기 첫째 음절에서 'ㅌ'로 변함. 예) 리년 → 래년

02 ④의 'ㅃㅇㅅ'을 분석하면 'ㅃ(ㅅ+ㅇ)'로 현대어 풀이는 '마음'이다. 둘째 음절 끝소리 'ㅅ'을 셋째 음절 첫소리로 옮겨 적은 것으로 보아 이것은 이어 적기를 한 경우이다.

[오답풀이] ① 'ㄱ'은 현대어로 바꾸면 '강'으로,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글자인 '•(아래아)'가 사용되었다.

② '보미'를 분석하면 'ㅃ+ㅅ'이고, 현대어로 바꾸면 '봄에'이다. 이를 통해 '보미'가 이어 적기를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쓰리게코'는 음절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두 자음인 'ㅅ'을 함께 사용한 어두 자음군이 나타난다.

⑤ '봉화'를 현대어로 바꾸면 '봉화가'이다. 이를 통해 '봉화'에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은 주격 조사 'ㅣ'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03 (나)는 '세종어제훈민정음'의 '어지'로서 한글 창제의 동기와 창제 정신을 밝힌 글이다. 한글 음운의 제자 원리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①, ② (나)는 세종 대왕이 훈민정음 창제의 동기와 창제 정신을 직접 밝힌 '세종어제훈민정음'의 '어지(御旨)'로 '어제 서문'이라고도 한다.

④ (나)에는 끊어 적기, 성조 표시,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음운 및 어두 자음군 사용 등의 표기와 음운상의 특징이 나타난다. 또한 문법적인 측면에서 현대 국어와는 다른 주격 조사 사용 방식이 나타난다.

⑤ (나)에는 우리나라의 말과 한자의 차이점을 인식한 자주 정신, 백성들의 편안한 문자 생활을 도모하여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문자로 만든다는 실용 정신 등이 나타나 있다.

배경지식+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

자주 정신	우리나라 말과 중국의 말이 다름을 인식함.
애민 정신	문자 생활을 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가엾게 여김.
창조 정신	스물여덟 자의 새로운 문자를 만들.
실용 정신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문자를 만들어 백성들의 편안한 문자 생활을 도모함.

04 서술형

중세 국어의 '서르'와 현대 국어의 '서로'는 모두 '서로'라는 의미로 쓰여 의미 변화를 겪지 않았다. 그러나 '어린'은 중세 국어에서는 '어리석은'의 의미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은'의 의미로 변화하였다. 이렇듯 중세 국어 및 현대 국어에서 쓰인 어휘 중 의미 변화를 겪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의미가 완전히 바뀐 경우도 존재한다.

고득점 전략

중세 국어의 어휘 중에서 현대 국어와 비교했을 때, 그 의미가 달라진 말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예시를 기억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발문에서 제시한대로 ㉠과 ㉡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고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어휘의 의미 변화에 대해 서술해야 감점이 되지 않아요.

05 중세 국어에서 '부모 ㅣ'의 현대어 풀이는 '부모가'이므로, '부모'에 주격 조사 'ㅣ'가 붙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중세 국어에서 '시내'의 현대어 풀이는 '시내가'이므로, '시내'에 주격 조사를 나타내는 음운 없이 주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중세 국어에서 '시미'의 현대어 풀이는 '쌔미'이므로, '쌔'에 주격 조사 'ㅣ'가 붙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중세 국어에서 '아드리'의 현대어 풀이는 '아들이'이므로, '아'에 주격 조사 'ㅣ'가 붙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중세 국어에서 '육룡(육룡)'의 현대어 풀이는 '육룡이'이므로, '육룡'에 주격 조사 'ㅣ'가 붙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핵심국립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

이	앞에 오는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	예 <u>박성이</u>
ㅣ	앞에 오는 체언의 끝소리가 'ㅣ' 모음 이외의 모음일 때	예 <u>홍배(바+ㅣ)</u>
∅ (영 형태)	앞에 오는 체언의 끝소리가 'ㅣ' 모음일 때	예 불휘+∅ → 불휘

06 이 글에 제시된 내용만으로 세종 학당의 증설이 한국어 능력 시험자 수를 늘게 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나)의 내용과 그래프를 통해 한국어 능력 시험 지원자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이유를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이 커지면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한국을 알고 이해할 필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

④ (가)와 (나)를 통해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하는 것이 우리말의 위상을 높이는 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⑤ (나)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이유가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이 커졌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07 (다)로 미루어 볼 때,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할 경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고 고유어나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③은 올바르게 국어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인터넷상에서 줄임말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태도로, 의사소통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

② 휴대 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도 띄어쓰기 등 국어 규범을 지키지 않고 보내면 문자 메시지를 읽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④ 가상 공간에서 개성 있는 표현을 위해 한글 자음만을 사용하면 읽는 사람이 제대로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⑤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08 모든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은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설명이다. 어떤 사람이 '책상'을 '의자'로 불러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것은 '책상'이라는 사물을 '책상'이라고 부르기로 한 사회적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언어의 소리와 의미 관계가 사회적으로 약속된 후에는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데, 이것을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한다.

[오답풀이] ① '놈'은 중세 국어에서는 '보통 사람'을 의미했고, 현대 국어에서는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이처럼 '놈'의 의미가 축소되어 쓰인다는 것은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② 한글 창제 당시 사용되었던 일부 음운이 현대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멸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③ '어엿비'는 중세 국어에서는 '불쌍히' 또는 '가엾게'를 의미했고, 현대 국어에서는 '예쁘게'를 의미한다. 이처럼 '어엿비'의 뜻이 변화한다는 것은 언어의 의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09 김 선생이 한 말에서 알 수 있는 전통적 담화 관습은 '돌려 말하기'이다. 김 선생은 인색함을 보이는 벗의 행동을 지적하고, 좋은 안주를 마련해 오라는 요구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돌려 말하였다. ③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풀이] ① 김 선생은 벗의 인색함을 완곡하게 돌려 말하는 방법으로 꾸짖고 있다.

② 김 선생은 좋은 안주를 내오라는 요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었다.

④ 김 선생은 말을 듣는 상대방을 고려하여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다.

⑤ 김 선생과 같이 간접적으로 돌려 말할 경우 상대방이 그 말의 의도를 잘 모를 수도 있다. 의도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돌려 말하기가 가진 단점이다.

10 서술형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는 말은 순식간에 멀리까지 퍼지므로 말조심하라는 뜻이며,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는 같은 내용의 이야기라도 표현에 따라 듣는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말은 길어질수록 거칠어져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마침내 다툼까지 갈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말만 조심하라는 의미이다. 세 속담의 뜻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세 속담은 공통적으로 신중하게 말할 것을 당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득점 전략

세 속담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교훈을 서술하라고 하였으므로 세 속담의 뜻을 제시하면 감점이 돼요. 세 속담의 뜻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공통의 교훈을 서술해야 해요.

배경지식+ 속담의 기능

- 말하고자 하는 바를 비유적으로 드러내어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유용한 수단이 됨.
- 말하는 내용에 흥미를 돋우는 기능을 함으로써 어떤 상황을 간결하게 나타내 주거나 생각의 전환을 유도하여 듣는 사람을 더욱 집중하게 함.
- 우리 조상들의 삶의 모습과 지혜, 재치가 담겨 있음.
-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줌으로써 속담을 통해 삶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음.

- 11 남학생은 친구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중간에 끼어들어 자신의 말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말의 담화 관습에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끝까지 잘 들으라는 ‘경청하기’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오답 풀이] ① 상대방의 입장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직접적인 말하기를 하고 있다.

③ 상대방이 어떤 문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점이 될 수는 없다.

④ 거만한 태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막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운 것은 아니며, 남학생도 자신의 주장을 내세운 것이 아니다. 남학생은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화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12 서술형

출연자는 뉴스 진행자가 ‘혁명적 존재’라고 인용한 칭찬의 말에 대해 ‘과찬의 말씀’이라고 하며 겸손하게 대답하고 있다.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면서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것은 우리말의 담화 관습 중 ‘겸손하게 말하기’에 해당한다.

대단원 시술영 평가

259~260쪽

01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이어 적기를 했다. 방점을 찍어 성조를 표시했다.

02 ㄱ: 중세 국어와 달리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 현상이 약해졌다. ㄴ: 중세 국어와 달리 현대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가’가 쓰인다.

03 ㉠ ‘어린’은 중세 국어에서 ‘어리석은’의 의미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은’의 의미로 쓰인다. ㉡ ‘어엿비’는 중세 국어에서 ‘불쌍히’ 또는 ‘가엾게’의 의미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예쁘게’의 의미로 쓰인다.

04 외래어와 외국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였으므로 가급적 외래어와 외국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되도록 고유어나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

05 돌려 말함으로써 벗의 인색함을 지적하고, 닭을 잡아 안주로 내오라는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06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말한 것(예의에 어긋나게 말한 것/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말한 것)이 문제이며, 대화 상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말해야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07 면접 상황에서는 ㉠과 같이 겸손하게 말하는 것보다 ㉡와 같이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01 ‘나·랏·말썸·미’는 중세 국어의 표기와 음운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우선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말썸미’를 분석하면 ‘말썸+이’의 형태가 되는데 둘째 음절의 끝소리 ‘ㅁ’을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었으므로 이어 적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었음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표기상의 특징 세 가지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6점
표기상의 특징 중 두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4점
표기상의 특징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2점

- 02 ㄱ에서 ‘깡충깡충’은 양성 모음 ‘ㅏ’와 음성 모음 ‘ㅑ’가 결합되어 있으며, ‘오희’는 양성 모음 ‘ㅗ’와 음성 모음 ‘ㅛ’가 결합되어 있다. 이를 통해 모음 조화 현상이 잘 지켜졌던 중세 국어와 달리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 현상이 약해졌음을 알 수 있다. ㄴ에서 ‘영희’의 ‘가’와 ‘철수’의 ‘가’가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ㅣ’만 쓰였던 중세 국어와 달리 현대 국어에서 쓰는 주격 조사 ‘가’가 쓰임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ㄱ과 ㄴ에 나타나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와의 문법적 차이점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6점
ㄱ과 ㄴ 중, 한 가지에 대해서만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와의 문법적 차이점을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3점

완자병의 중언

ㄱ은 양성 모음이 ‘ㅏ, ㅑ’이고, 음성 모음이 ‘ㅗ, ㅛ’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겠죠.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모음 조화 현상이에요. ㄱ에 제시된 예를 통해 현대에 와서는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배경지식+ 모음 조화 현상

모음 중에서 ‘ㅏ, ㅑ’는 밝고 가벼운 느낌을 가지는 양성 모음이고, ‘ㅗ, ㅛ’는 상대적으로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가지는 음성 모음이다. 모음 조화 현상은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만 이어지고,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만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ㅣ’는 중성 모음으로, 양성 모음이기도 하고 음성 모음이기도 한 모음이라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 모두와 어울릴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 현상이 잘 지켜졌다. 그러다 근대 국어에 와 모음 조화 현상은 문란해지기 시작했으며, 현대 국어에 와서는 약해졌다.

모음 조화 현상은 '알록달록 : 얼룩덜룩, 줄줄 : 줄줄' 등과 같이 의성어와 의태어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깍아-깍아서-깍아도-깍아라-깍았다. / 먹어-먹어서-먹어도-먹어라-먹었다.'에서 보듯이 용언의 어미가 '-아서/-어서', '-아라/-어라' 및 '-았-/~었-' 등과 같이 두 가지씩 있는 것도 모음 조화 현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 03 '어린'은 중세 국어에서 '어리석은'의 의미로 쓰였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은'이라는 의미로 변하였다. 또 '어엿비'는 중세에서는 '불쌍히' 또는 '가엾게'의 의미로 쓰였으나 현대에 와서 '예쁘게'로 변하였다. 즉, ㉓와 ㉔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휘의 의미가 이동하여 완전히 변하게 된 경우이다.

채점 기준	배점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나타나는 어휘의 의미 변화 양상을 ㉓와 ㉔ 모두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6점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나타나는 어휘의 의미 변화 양상을 ㉓와 ㉔ 중 한 가지에 대해서만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4점
중세 국어의 어휘 의미만 서술하고, 현대 국어에서 나타나는 어휘의 의미 변화 양상을 서술하지 못하였다.	2점

- 04 <보기>의 사례는 불필요하게 외국어와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여 문제가 된 경우로, 외국어와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고 고유어나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올바르게 고치면 '독특한 모양과 화려한 색상이 돋보이는 이 상품은 이미 많은 유명 인사들이 선택한 최신 유행 상품입니다.'라고 쓸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외래어나 외국어를 과도하게 사용한 문제점과 이를 자제하고 고유어나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태도를 모두 제시하였고, '~하였으므로, ~해야 한다.'의 문장 형태로 서술하였다.	6점
외래어나 외국어를 과도하게 사용한 문제점과 이를 자제하고 고유어나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태도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제시하였고, '~하였으므로, ~해야 한다.'의 문장 형태로 서술하였다.	4점
외래어나 외국어를 과도하게 사용한 문제점과 이를 자제하고 고유어나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태도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하였고, '~하였으므로 ~해야 한다.'의 문장 형태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2점

- 05 김 선생은 "닭을 빌려 타고 가려네."라고 재치 있게 돌려 말함으로써 자신을 인색하게 대접하는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닭을 잡아 안주를 내오라는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김 선생의 의도 두 가지와 말하기 방식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6점
김 선생의 의도 두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하고 말하기 방식은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4점
김 선생의 말하기 방식만 정확하게 서술하고 김 선생의 의도 두 가지 모두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2점

- 06 진목은 유슬 엄마의 호의적인 말에 "필요 없습니다."라고 거절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말하기로 바람직한 태도로 볼 수 없다.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 상황과 상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말해야 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진목의 말에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한 태도를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6점
진목의 말에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한 태도 중 일부의 내용만을 서술하였다.	4점
진목의 말에 나타난 문제점을 서술하였으나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한 태도를 서술하지 못하였다.	2점

만자생의 조언

진목은 유슬 엄마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갖추지 않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함부로 말하고 있어요. 대화 상황과 대화 상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말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 07 면접 답화 상황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어 상대방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가와 같이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면접 답화 상황에서는 나와 같이 자신이 능력과 장점을 드러냄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와 나 중 나가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면접 상황임을 제시하고, 가와 나의 말하기 특징을 모두 맞게 서술하였다.	6점
면접 상황임을 제시하고, 가와 나의 말하기 특징을 어느 한 가지에 대해서만 맞게 서술하였다.	4점
면접 상황임을 제시하였으나, 가와 나의 말하기 특징을 어느 것도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2점

2학기 중간고사

262~269쪽

- 01 ⑤ 02 ② 03 ② 04 축제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축제명을 영어로 표기하여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홍보 효과를 의도한 것이다. 05 ② 06 ② 07 ④ 08 ④ 09 강 노인이 결국엔 땅을 팔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10 ③ 11 ④ 12 ④ 13 혼인 건수가 출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때문이다. 14 ② 15 ㉔: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인이 실시하는 심폐 소생술을 비율이 매우 낮다. ㉕: 심폐 소생술을 배우자. 16 ② 17 ① 18 ⑤ 19 ② 20 교차 조사

01 (나)는 보령시와 뉴질랜드가 보령 머드 축제 수출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알리는 신문 기사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사진을 넣어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사진을 사용한 것은 기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이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의 목적을 지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는 인쇄 광고로, 외국인이 사물놀이 복장을 한 우리나라 사람과 어우러져 노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를 의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축제장의 모습을 담은 영상 자료를 제시하여 보령 머드 축제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

② (나)는 축제를 즐기고 있는 외국인들의 사진을 제시하여 보령 머드 축제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축제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③ (다)는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져 노는 모습을 이미지로 넣어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인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라는 점을 알리고 있다.

④ (가)에서는 기자의 말을 통해, (나)에서는 부제와 전문, 본문 내용을 통해 보령시와 뉴질랜드가 머드 원료 수출 협약을 맺었음을 전달하고 있다.

02 텔레비전 매체는 영상, 음성 언어와 함께 자막(문자 언어)을 통해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가)에 자막이 제시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텔레비전 매체에서 문자 언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다)는 인쇄 광고로 문자 언어를 통해 중요한 내용(축제명, 축제 기간 및 장소 등)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인터뷰를 직접 제시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③ (다)는 인쇄 광고로 문자 언어를 통해 축제 기간, 장소 등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④ (다)는 축제에서 벌어질 행사 내용(다양한 색으로 착색된 머드 바르기, 머드 미끄러움 타기 등)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⑤ (가)와 (다)는 모두 '보령 머드 축제'라는 공통된 소재를 다루는데, 각각 텔레비전 매체, 인쇄 광고 매체의 특성에 맞게 전달하고 있다.

배경지식+ 매체의 특성

- 텔레비전 매체는 음성 언어, 영상, 문자 언어를 함께 사용함.
- 신문, 인쇄 광고와 같은 인쇄 매체는 문자 언어 및 사진, 그림, 도표 등을 통해 내용을 전달함.

03 <보기>에서 보령 머드 축제의 장단점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① (나)는 "이번 수출은 머드 축제가 한류 문화를 이끄는 세계 유명 축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 보령 시장의 말을 인용하여 보령시와 뉴질랜드의 보령 머드 축제 수출 협약 체결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③ (나)는 신문 기사이고, <보기>는 인터넷 기사로 모두 기사문이다. 기사문에서는 표제나 부제, 기사 본문 등에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이 제시되어 있다.

④ (나)에서는 올해 보령 머드 축제에 참가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지난해보다 약 44퍼센트 늘어났다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⑤ (나)에서는 보령 머드 축제에 대해 긍정적인 면만을 제시한 반면, <보기>에서는 축제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04 서술형

(다)를 보면 사물놀이 복장을 한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져 노는 모습이 이미지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홍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축제명을 영어로 표기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05 (라)에서 강 노인이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여야만 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강 노인이 잠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아내와의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식들이 진 빚 문제로 인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땅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못마땅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나)에는 강 노인의 큰며느리가 동네 사람들에게 빚을 진 사실이 제시되어 있고, (다)에는 큰아들 용규에게 빚을 준 동네 사람까지 물려왔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③ (라)에서 강 노인은 빚쟁이들이 물려올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용규 내외를 괘씸해하고 있다.

④ (가)에서 반상회 끝의 독기 어린 동네 사람들이 강 노인의 발에 연탄재를 버렸음을 알 수 있다.

⑤ (다)에서 큰아들 내외에게 돈을 빌려준 동네 사람들은 땅을 팔지 않았다는 강 노인의 말을 믿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6 강 노인은 땅에서 위안과 큰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 삶의 방식인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자본주의적 삶의 태도를 지닌 인물들을 강 노인은 '서울 것들'이라 욕하며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③ 강 노인이 큰아들 내외를 괘씸하게 생각한 것은 빚쟁이들이 물려올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행동 때문이지, 노인 공경의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

④ (라)에 큰돈이 굴러 들어와도 쉽게 생긴 내력만큼 씹씹이도 허

망하기 짝이 없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을 뿐, 강 노인이 절약하는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⑤ 급격한 도시화에 대한 자기반성의 태도는 강 노인의 삶과 관련이 없다.

- 07** 동네 사람들이 강 노인의 며느리에게 돈을 쉽게 빌려준 것은 동네 지주인 강 노인의 땅을 밟고 이익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강 노인의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에게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나)에 나타난 '반상회 파문'을 통해 강 노인의 며느리가 강 노인이 땅을 팔 것이라고 소문을 냈을 것이라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으나, 이는 반상회라는 특정 시간에 이루어진 일로 평소에 며느리가 강 노인이 땅을 팔 것이라는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③ 강 노인의 며느리가 힘든 상황에서 현실을 이겨 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강 노인이 땅을 팔아 아들과 며느리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핵심국립! '강 노인'이 땅을 판다는 소문이 가져온 결과

은혜 엄마	큰며느리의 빚을 대신 갚아 달라고 찾아옴.
동네 사람들	큰아들 용규에게 돈을 빌려준 동네 사람들이 땅 판 돈으로 강 노인이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 주기를 바라고 찾아옴.

↓
자식들이 빚을 진 사실을 강 노인이 알게 됨.

- 08** <보기>는 1980년대에 산업화·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삶의 터전이었던 땅에 대한 인식이 개발의 대상이자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강 노인의 삶을 통해 땅의 전통적 가치의 소중함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보기>에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해체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이 글의 주제와도 거리가 멀다.

【오답풀이】 ① 강 노인은 씨 뿌린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수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땅에 나는 생명들을 안쓰러워하며 물을 주려고 한다. 즉, 땅이 경제적 기반으로서 삶의 터전인 동시에 인간과 공존하는 생명의 공간으로서 소중한 가치를 지님을 강조하고 있다.

② 강 노인은 땅을 정신적 가치로 여기고 있고, 강 노인과 갈등하는 동네 사람들은 땅을 물질적 가치로 여기고 있다.

③, ⑤ 작가는 이 글을 통해 산업화·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땅을 개발의 대상,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만 보는 세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고 있다.

09 서술형

강 노인은 땅을 팔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결국엔 남은 땅을 팔아서 번 돈으로 자식의 뒷감당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은 이러한 상황을 드러낸 말이다.

- 10** ㉠, ㉡는 은혜 엄마를, ㉢, ㉣는 강 노인의 큰며느리를, ㉤, ㉥, ㉦는 강 노인을 가리킨다.

- 11** (가)에서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의 신생아 수, 혼인 건수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글쓴이의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나)에서는 일반인의 심폐 소생술 실시율이 증가함에 따라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도 함께 증가한다는 질병 관리 본부의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글쓴이의 주장에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는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나)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등 이해의 확인을 위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② (나)에서는 '고등학생 박○○ 양'의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으나, (가)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에서는 '~형성해야 비로소 한국에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주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나)에는 이러한 비유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예상 가능한 반론에 대해 반박하며 주장을 펼치고 있지 않다.

- 12** (가)와 (나)는 모두 인쇄 매체이다. (가)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도표나 그래프 등을 활용할 수 있고, (나)도 질병 관리 본부의 발표 내용을 그래프 등의 시각 자료를 통해 보여 준다면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인쇄 매체인 (가)에서 영상이 생략되었다고 하며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 모두 글의 제목에서 글쓴이가 글을 쓴 목적, 즉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② (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글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고, (나)는 심폐 소생술을 배워야 하는 근거 세 가지가 심폐 소생술을 배워야 한다는 글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③ (가)에서는 인용한 근거 자료의 출처가 통계청임을 밝히고 있으나, (나)에서는 '심정지에 따른 결과'를 보여 주는 도표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인쇄 매체에 실린 글이므로 기본적으로 문자 언어를 통해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나)에서는 도표도 함께 사용하여 독자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13 서술형

결혼을 앞둔 세대들을 대상으로 출산과 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것은 이러한 인

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혼인 건수와 출생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14** (가)에서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고령화 현상 때문이라 여기고 있지는 않다.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 추세가 맞물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오답풀이] ① 이 글은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③ 이 글에서는 저출산 현상이 날로 심각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언급한 후,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적정 인구가 정확하게 계산되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당위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하였다.

⑤ 글쓴이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성과를 높이려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육아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15 서술형

(나)의 글쓴이는 심폐 소생술의 실시 여부에 따라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히며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인이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문제 상황을 제기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폐 소생술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16** (가)의 찬성 1은 과도한 당 섭취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공 음료에 많은 당이 들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의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공 음료에 포함된 당의 양을 모른 채 과도한 당 섭취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문제 삼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가)의 찬성 1은 사람들이 과도한 당 섭취를 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과도한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당류 음료의 가격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③ 찬성 1은 청소년이 당을 섭취하는 주요 식품인 가공 음료의 당 섭취량을 언급하면서 과도한 당 섭취가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나)의 반대 2는 설탕의 안정성 및 권장량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품 연구 자료를 토대로 찬성 1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⑤ 반대 2는 권장량의 당 섭취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비만의 원인이 당 섭취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 17** (가)에서 찬성 1은 우리나라의 고도 비만을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여 주며 과도한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이는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함이지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⑤ 권위자의 이론을 인용하거나, 최근의 연구 경향을 소개하

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념과 달리 가공 음료에 당 함유량이 높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18** (나)에서 찬성 1은 상대측의 질문 의도에 맞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토론 과정에서 비언어적 표현(손짓, 몸짓, 표정, 시선 등)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당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비만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식품 의약품 안전 평가원의 자료를 근거로 상대측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② 비만의 원인이 당 섭취에 있다고 단정하는 근거가 있는지 물으며 상대측의 입론 내용을 검증하고 있다.

③ 상대측의 질문 의도를 이해하고 신뢰할 만한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 있다.

④ (나)에서 토론 참여자들은 모두 토론의 절차와 규칙에 따라 협력적인 태도로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배경지식+ 토론할 때 유의할 점

- 쟁점에 따른 주장을 명확히 밝히고,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함.
- 상대측의 주장을 들을 때에는 논리적 오류가 없는지 파악함.
-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할 때에는 감정적 발언은 삼가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함.
- 발언 순서와 시간을 준수하며, 상대측에 대한 예의를 갖춤.

- 19** ㉠에서는 객관적 근거 자료 없이, 주장만 내세우고 있으므로 논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하다. 이를 보완하여 수정한 내용인 <보기>와 ㉠을 비교하여 보면, <보기>에서는 세계 보건 기구, 식품 의약품 안전처 등의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통계 자료를 새롭게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수치를 밝혀 근거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자료의 출처를 밝힌 것은 근거의 타당성, 객관성 때문이지,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식품 의약품 안전처의 자료 등이 설문 조사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으나, 변화 추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세계 보건 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당 섭취량을 제시했을 뿐, 우리나라와 세계의 평균 당 섭취량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

⑤ ㉠에는 감정에 치우친 발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정에 치우친 발언을 지양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20** 교차 조사식 토론은 크게 ‘입론 - 교차 조사 - 반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입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논제와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시간이다. 교차 조사란 입론을 마친 토론자를 대상으로 상대측 토론자가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입론의 내용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반론은 입론과 교차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쟁점들을 정리해서 상대측의 주장이나 근거가 지닌 약점과 허점을 공격하면서 자기주장이 지닌 강점을 강화하는 단계이다.

01 ③ 02 ④ 03 ③ 04 ③ 05 ④ 06 ② 07 ③ 08 ⑤ 09 ③ 10 ② 11 ④ 12 ③ 13 ② 14 ④ 15 ④ 16 ③ 17 한글을 창제한 목적과 정신을 이해하여 우리말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외국어나 외래어를 자제하고 고유어나 순화어를 사용하며 언어 규범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8 ① 19 ④ 20 ③

01 (가)는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와 같은 후렴구의 반복을 통해, (나)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와 같은 후렴구의 반복을 통해 음악성을 획득하고 있다(ㄱ). 그리고 (가)와 (나)는 모두 구비 전승된 작품으로서 각 연은 다양한 상황과 정서가 나열된 형태로 독립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주제의 유기성이 떨어진다(ㄴ).

[오답풀이] 나. (가)의 2연에서 ‘새’는 고독한 존재로서 화자가 동병상련을 느끼는 대상으로 화자의 고독한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그러나 (나)에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해당화’와 ‘두견새’는 화자에게 애상감을 돋우는 존재일 뿐이다.

ㄷ. (가)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청산, 바다’ 등과 같은 대상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는 정선에서의 쓸쓸한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 비유적 표현을 통한 대상의 아름다움이 묘사되어 있지는 않다.

! 핵심국문! 「청산별곡」과 「정선 아리랑」의 공통점

창작자 · 향유층	주로 민중이 창작하고 불렀음.
주요 내용	민중의 생활 감정과 의식, 삶의 애환을 담고 있음.
구성	• 여러 연으로 구성됨. • 각 연의 내용은 독립적인 내용이어서 주제의 유기성이 떨어짐.
후렴구	• 각 연을 나누는 역할을 하며, 한 편의 노래라는 형식적 동질성을 갖게 함. • 운율을 형성하고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함.
전승 방식의 특징	• 입에서 입으로 후대에 전승됨. • 각 연의 내용은 독립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청자가 누구든지 간에 마음대로 노랫말을 이어 부르기 쉬움. • 동일한 구조의 반복과 후렴구는 흥을 돋우고 노랫말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함.

02 2연에서는 ‘넌라와 시름 한 나(너보다 시름 많은 나)’에서 다른 대상인 ‘새’와의 비교를 통해 고독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7연은 비유를 통해 삶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을 뿐, 다른 대상과의 비교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1연의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

다. / 멀위랑 두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와 6연의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루래 살어리랏다. / 누무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루래 살어리랏다.’는 동일한 문장 구조를 가지면서 자연에 대한 동경이라는 내용이 서로 호응된다.

② 1연은 ‘청산’, 6연은 ‘바루’와 같은 상징적인 시어를 이용하여 이상적인 공간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2연과 5연은 ‘우니로라’와 ‘우니노라’라는 유사한 서술어를 사용하여 화자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4연과 5연의 2행은 ‘오리도 가리도 업슨’, ‘믹리도 괴리도 업시’라는 유사한 형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업는’,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업이’라는 의미로, 화자의 고독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03 <보기 1>과 같이 (가)를 난리를 피해 유랑하는 백성들의 처지를 노래한 것으로 보면, ㉠ ‘청산’은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몸을 피해 간 피난처이자 도피처라 할 수 있다. 한편, <보기 2>의 화자는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 ‘강산’은 유유자적한 삶을 추구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보기 1>을 참고할 때, (가)의 ‘청산’은 유랑의 과정에서 머문 곳이거나 유랑에서 벗어나 머물고자 한 곳으로, 고단한 민중의 삶의 현장을 직접적으로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난리가 난 현실이 고단한 민중의 삶의 현장이라 할 수 있으며, ‘청산’은 그로부터의 도피처라고 할 수 있다. <보기 2>의 경우, 화자는 속세에서는 힘센 이(권력자나 경제적 강자 등)와 달리 자신의 처지로 인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자연에서는 신분 이 높지 않은 자신의 처지로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강산’을 화려한 양반의 삶이 있는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보기 1>을 참고할 때, (가)의 화자는 삶의 터전을 잃고 유랑하며 삶의 고뇌와 비애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청산’에서 살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산’은 현실적 괴로움이 해소될 수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자는 현실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 한가롭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산’을 한가롭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보기 2>의 경우, 화자는 한가롭게 자연을 마음껏 즐기고 있으며 그런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강산’이 한가롭고 자유로운 삶에 대해 만족해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보기 1>을 참고할 때, (가)에서 화자는 난리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유랑하고 있지만 3연에서 속세에 대한 미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산’은 속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드러나는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기 2>의 경우, ‘강산(江山) 좋은 경(景)을 힘센 이 다들 양이면’에 속세의 악육강식 세태와 부귀영화라는 현실적 가치를 추구하는 속세의 사람들에게 대한 비판적 시각이 드러나 있으므로 ‘강산’은 속세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드러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⑤ <보기 1>을 참고할 때, (가)의 ‘청산’이 유랑 중에 머문 곳이라면 화자가 자신의 처지와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곳이며, 유랑에서 벗어나 머물고자 한 곳이라고 한다면 이상향이라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처지와 능력으로 도달할 수 없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되는 내용은 (가)에 나타나 있지 않다. <보기 2>의 경우, 화자는 신분도 높지 않고 권력이나 부귀도 없는 자신의 처지로도 자연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강산'은 자신의 처지와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완자쌍의 조언

(가)와 <보기 2>에는 '자연'과 관련된 시어가 나타나 있지만 그 의미는 화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먼저 「청산별곡」의 화자는 <보기 1>에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보면 삶의 터전을 잃고 유랑하는 상황으로, 비애나 절망감에 빠져 있고 청산을 갈망하고 있어요. 이때 '청산'은 피난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겠죠. 한편 <보기 2>의 화자는 강산에서 한가롭게 노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보기 2>에는 즐거움이나 만족감이 드러나 있어요. 이를 통해 볼 때 '강산'은 좋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대상이자 속세와 달리 화자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자연이라 할 수 있어요.

- 04 (가)는 '눈'을 통해 겨울의 분위기를 환기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나)는 '동지스들'을 통해 겨울의 분위기를 환기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나)는 사랑하는 임의 부재 상황이 시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지만, (가), (다)는 대상이 부재하는 상황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가)~(다)는 모두 명령적 어조가 나타나 있지 않다. (가)에서 '후노라'의 '-노라'는 자신의 동작을 장중하게 선언하거나 감동의 느낌을 나타내는 어미이고, (나)에서 '퍼리라'의 '-리라'는 마음속 다짐을 나타내는 어미이며, (다)에서 '하괘라'의 '-애라'는 현대 국어의 '-구나', '-도다'와 같은 것으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어 감탄의 뜻을 수반할 때 쓰는 어미이다.

④ (나)는 '서리서리', '구뽀구뽀'와 같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순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있으며 (다)는 '풀떡'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지만, (가)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⑤ (다)는 두터비의 행동을 묘사함으로써 두터비에 대한 풍자의 의도를 드러내지만, (가)와 (나)에는 대상에 대한 행동 묘사가 나타나 있지 않다.

완자쌍의 조언

음성 상징어는 의태어나 의성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나)를 살펴보면, '서리서리'와 '구뽀구뽀(굽이굽이)'라는 의태어를 사용하여 우리말의 묘미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음성 상징어를 사용한 작품이 또 있어요. (다)의 경우 '풀떡(풀떡)'이라는 의태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만 (나)의 경우처럼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한 표현과 결합되어 감각적이면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면이 적지만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되겠지요.

- 05 (가)는 '뒤(대)'에 대한 예찬만 드러날 뿐, 다른 대상과의 대조는 나타나 있지 않다. <보기> 역시 '청산'과 '유수'의 변치 않는 속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 다른 대상과의 대조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는 '뒤(대)'를 '너'라고 의인화하여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보기>는 '~은(는) 어찌하여 ~에 ~'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청산'과 '유수'의 불변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가)는 '굽다턴고'와 '프를소냐'라는 의문형 표현을, <보기>는 '그치지 아니하는고'라는 의문형 표현을 사용하여 각각 굽지 아니하고 푸르름을 잃지 않는 '뒤(대)'와 불변하고 영원한 '청산'과 '유수'를 환기하고 그 특성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⑤ (가)의 '프를소냐'와 <보기>의 '푸르르며'에서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를 통해 '뒤(대)'와 '청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완자쌍의 조언

(가)에는 '대나무'와 대조할 다른 대상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또한 <보기>의 작품에서 '청산'과 '유수'가 유사한 속성을 지니며 화자가 두 대상 모두에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대조의 방식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요.

- 06 (나)의 ㉠에는 '밤'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인 것 같이 잘라 놓는다고 표현한 '관념의 구체화'라는 표현 방식이 사용되었다. ㉡ 역시 추상적 관념인 '흥'을 나귀의 등에 실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처럼 표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을 강의 밤경치와 그 속에서의 한가롭고 유유자적한 삶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으로, '~니 ~매라'라는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었다.

③ 고국을 떠나는 신하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으로, 초장의 '가노라 삼각산아'와 '다시 보자 한강수야'에서 대구법, 도치법, 돈호법이, '삼각산'과 '한강수'가 조국, 우리나라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대유법이, '삼각산'과 '한강수'를 사람인 양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④ 두류산 양단수의 절경을 예찬하고 있는 작품으로, 종장 '아희야, 무릉이 어딤매오 나난 엔가 하노라'에서 문답법이 사용되었다.

⑤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으로, '청산은 내 뜻'으로, '녹수는 님의 정'으로 비유한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배경지식+ 관념의 구체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을 감각적인 것으로 구체화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오감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을 감각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이다. 가령,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 우리가 저와 같아서 /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에서 추상적인 '슬픔'을 '퍼다 버린다'라는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 07 (다)와 <보기>는 모두 '두엄 위'가 공간적 배경으로 드러나 있으며, (다)를 <보기>와 같이 바꿔 써도 공간적 배경의 중요성이 부각되지는 않는다.

[오답풀이] ① <보기>는 '한 눈 멀고 한 다리 저는 두터비', '서리 맞은 파리'와 같이 대상을 (다)에 비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② (다)는 초, 중장에서 두터비를 관찰하던 화자가 종장에서 '두터비'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표현을 통해 두터비로 바뀌고 있지만, <보기>는 초장부터 종장까지 두터비를 관찰하는 화자로 고정되어 있다.

- ④ (다)와 <보기> 모두 '백송골'은 중앙 관리 또는 외세, '두터비(두꺼비)'는 중간 관리, '파리'는 평민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대상 간의 위계 관계도 이와 같다.
- ⑤ (다)와 <보기> 모두 '두터비'의 모습과 행동을 묘사함으로써 대상을 희화화하고 풍자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관객의 참여

(다)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풍자가 잘 드러난 작품이에요. 인물의 모습이나 행동을 희화화하여 풍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파리를 물고 기세등등하던 두꺼비가 건너편 산의 백송골을 보고 놀라 두엄 아래로 자빠진 모습을 익살스럽게 표현하여 탐관오리의 횡포나 악육강식의 세태를 풍자하고 있어요. 특이한 것은 초장과 중장에서 두꺼비를 관찰하던 화자가 중장에서 두꺼비로 바뀌어 두꺼비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함으로써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 08 이 글에는 천자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평국(계월)을 보내려는 장면과 평국이 보국을 구하는 장면, 평국이 천자의 위태로움을 느끼고 천자를 찾아 황성에 갔다가 여공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 있다. 이 중 이어지는 장면은 (다)에 제시된 평국이 천자의 위기를 느끼고 천자를 찾아나서는 장면과 황성에서 우연히 여공을 만나 천자의 소식을 묻게 되는 장면들이다. 그러나 이 두 장면이 바뀌는 것을 빈번한 장면의 전환으로 볼 수 없으며, 또 두 장면의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답풀이] ① 평국이 우연히 여공을 만남으로써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② 천자의 말을 통해 평국에 대한 천자의 믿음이, 천자에 대한 평국의 대답을 통해 감사의 마음이 드러나는 등 말을 통해 등장인물의 심리를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평국이 불에 탄 궁궐을 보고 통곡하며 다니는 행동을 통해 슬픔이 드러나는 등 행동을 통해서도 등장인물의 심리를 유추할 수 있다.

③ 평국이 천기를 보고 천자의 위기를 알아맞히거나, 하룻밤 만에 황성에 도달하는 등 비현실적인 요소를 통해 평국의 비범한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④ 평국과 여공의 대화를 통해 황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드러나고 있다.

배경지식+ 장면의 전환

한 장면이 다른 장면으로 갈리면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장면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대화나 행동으로 구성된다. 결국 장면의 전환은 인물, 배경, 사건 등의 요소가 바뀌는 것이다. 장면의 전환인지를 판단할 때는 주요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인물의 상황과 배경에 변화가 있는지, 초점이 되는 인물에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 09 (가)를 보면 평국은 여자로서 규중에 거처하고 있었으며, 천자의 부름에 크게 놀란 것으로 보아 천자가 자신을 부를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다)에서 평국은 천기를 살피다가 천자의 위기를 짐작하였다.

② (다)에서 여공이 수챗구멍에서 나오다가 평국을 보고 도망가고, 평국이 “나는 도적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여공이 평국을 도적으로 착각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에서 “짐이 덕이 없어 지금 오와 초 두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 ~ 그러나 경은 스스로 마땅히 일을 잘 처리하여 사직을 보호하도록 하라.”라는 천자의 말에서 오·초의 반란이 일어나 천자가 이를 진압하기 위해 평국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⑤ (나)에서 “나를 업신여기더니 이제도 그렇게 할까?”라는 말에는 자신을 업신여겨 온 보국에 대한 평국의 불만이 반영되어 있다.

- 10 <보기>에서 춘풍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기생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만다는 내용으로 보아, 춘풍의 방탕한 생활이 갈등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시된 부분만으로는 이 글의 보국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우므로, 보국의 방탕함이 갈등의 원인이라 할 수 없다. 이 글에서 보국과 계월이 갈등하는 것은 가부장적 사고와 남존여비 의식을 지닌 보국이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부인 계월을 인정하지 않고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했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이 글의 계월은 전장에서 공을 세우고 남편 보국을 구할 정도로 보국보다 능력이 뛰어나며, <보기>의 아내 역시 방탕한 남편을 대신해 재산을 되찾고 남편을 구해 오는 인물로 춘풍보다 능력이 뛰어나다.

③ 이 글의 계월이 남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 공을 세우고 벼슬에 오르는 것으로 볼 때, <보기>의 아내가 남장을 하고 평안 감사의 회계 비장이 되어 남편을 구해 오는 것으로 볼 때 ‘남장’은 여성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④ 이 글의 계월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활약하지만, <보기>의 아내는 남편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활약한다.

⑤ 이 글의 계월은 “나를 업신여기더니 이제도 그렇게 할까?”라고 하며 남편의 권위를 내세워 자신을 무시했던 보국의 잘못을 직접 지적하고 있다. <보기>의 아내는 춘풍이 여자에 빠져 재산을 탕진했다가 돈을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와 하세를 부리는 것을 보고는 자신이 비장임을 알게 함으로써 춘풍의 허위위식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핵심공략! 「홍계월전」에서의 ‘계월’과 ‘보국’의 갈등과 해결

계월(평국)	보국
• 보국의 속이 좁음을 탓함. • 자신의 능력이 우월함에도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것을 원망함.	• 가부장적 가치관과 남존여비 의식을 지니고 있음. • 남편의 권위를 내세워 계월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계월을 무시함.
계월이 전쟁에서 죽을 위기에 처한 보국을 구한 일을 계기로 보국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함으로써 갈등이 해결됨.	

11 이 글은 남성보다 능력 있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움으로써 가부장제 사회에서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하였고, 당대 여성들은 이런 계월의 모습을 통해 대리 만족을 하고 억압된 삶으로부터의 해방감을 느꼈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가부장제 사회에서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했을 뿐, 여성이 당대 사회의 주체였던 남성을 대신하여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제 의식은 이 글에 드러나 있지 않다.

② 능력 있는 여성인 계월이 보국과 갈등을 겪으나 결국 보국이 계월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하여 갈등이 해소되므로 여성이 순종의 미덕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계월이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기는 하나, 순종의 미덕과 충성 사이에 우열 관계가 제시된 적은 없다. 기존 사회는 순종과 충(忠)의 가치가 함께 지배하는 유교 사회였다.

⑤ 당시 여성들은 계월에게서 대리 만족을 느낄 수는 있었겠지만, 당시 사회상을 고려하였을 때 능력을 갖춘다고 해서 여성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12 (가)는 중세 국어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중세 국어에서는 방점을 사용하여 소리의 길이가 아닌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었다.

[오답풀이] ① ‘쁘들’, ‘노미’ 등은 현대 국어에서라면 각각 ‘뽕을’과 ‘놈이’로 끊어 적기를 해야 한다. 즉,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는 달리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이어 적기를 했음을 알 수 있다.

② 현대 국어와는 달리 어절 단위의 띄어쓰기가 보이지 않는다. 즉 중세 국어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ㅇ, ㅁ, ㅂ, ㅎ’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쁘들’, ‘뿌매’에서 음절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이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핵심콕! 중세 국어의 특징

표기	· 가로쓰기를 하는 현대 국어와 달리 세로쓰기를 함. · 끊어 적기를 하는 현대 국어와 달리 이어 적기를 함. · 띄어쓰기를 하는 현대 국어와 달리 띄어쓰기를 하지 않음. ·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지 않는 현대 국어와 달리 방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함.
음운	· 현대 국어와 달리 음절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는 어두 자음군이 있었음. · 현대에는 쓰이지 않는 ‘ㅇ, ㅁ, ㅂ, ㅎ’와 같은 글자가 있었음.
문법	· 비교격 조사로 ‘에’가 사용됨. · 주격 조사는 ‘이/이’만 쓰이고 현대 국어의 주격 조사 ‘가’는 사용되지 않음. ·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짐.
어휘	· 어휘의 의미와 형태가 현대와 다른 것이 있었음. · 어휘의 형태와 의미가 개별적 혹은 복합적으로 변함.

13 ‘모양을’은 ‘모양+을’로 앞의 명사는 양성 모음, 뒤의 조사는 음성 모음으로 이루어져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답풀이] ① ‘돈 + 으’를 이어 적기하여 ‘도누로’로 표기한 것이다. ‘돈’은 양성 모음으로 이루어졌고, ‘으’도 양성 모음으로 시작한다.

③ ‘바를(바다) + 애’를 이어 적기하여 ‘바루래’로 표기한 것이다. ‘바를’은 양성 모음으로 이루어졌고 ‘애’도 양성 모음이다.

④ ‘거북(거북) + 의’를 이어 적기하여 ‘거부빅’로 표기한 것이다. ‘거북’은 음성 모음으로 이루어졌고, ‘의’도 음성 모음이다.

⑤ ‘중생 + 울’로, ‘중생’은 양성 모음으로 이루어졌고, ‘울’도 양성 모음으로 시작한다.

관자병의 조건

양성 모음에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가 있어요. 중세 국어에서 모음 조화를 파악할 때 ‘ㅏ’가 양성 모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목적격 조사 ‘을’은 양성 모음 다음에, ‘을’은 음성 모음 다음에, 부사격 조사 ‘에’는 양성 모음 다음에, ‘에’는 음성 모음 다음에, 관형격 조사도 ‘의’는 양성 모음 다음에, ‘의’는 음성 모음 다음에 쓰인 것이지요.

14 (나)의 ‘중국과 달라’라는 현대어 풀이로 볼 때, ‘에’는 현대 국어의 비교 부사격 조사 ‘와/과’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④의 ‘과’는 두 대상을 비교하는 부사격 조사이므로 그 역할이 ㉠ ‘에’와 같다.

[오답풀이] ① 앞말이 장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쓰였다.

②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쓰였다.

③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로 쓰였다.

⑤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로 쓰였다.

15 중세 국어에서는 ‘어엿비’가 ‘불쌍히’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예쁘게’의 뜻으로 바뀌게 되었다. 즉, 의미의 이동이 일어났다. ‘싸다’도 ‘값이 나간다’를 의미하던 것이 현대 국어에서는 ‘값이 낮다’라는 반대의 의미가 되었으므로 의미의 이동이 일어난 예이다.

[오답풀이] ① 중세 국어에서 ‘얼굴’은 ‘몸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몸의 일부인 ‘안면’만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으므로 의미의 축소가 일어난 경우이다.

② 중세 국어에서 ‘영감’은 ‘특정 벼슬을 한 남자’를 가리키는 말 이었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일반적인 남자 노인’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으므로 의미의 확대가 일어난 경우이다.

③ 중세 국어에서 ‘세수하다’는 ‘손을 씻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었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손과 얼굴을 씻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으므로 의미의 확대가 일어난 경우이다.

⑤ 중세 국어에서 ‘사랑하다’는 ‘사랑하다’와 ‘생각하다’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말이었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사랑하다’의 한 가지

의미만 지닌 말이 되었으므로 의미의 축소가 일어난 경우이다.

배경지식+ 의미 변화의 유형

의미의 확대	단어의 의미 영역이 넓어지는 현상 예 • 손: '신체의 일부분'을 가리키던 말이 '손이 필요하다'에서 '노동력'을 가리키는 의미로 확장됨. • 바가지: '박으로 만들어 물을 푸거나 물건을 담는데 쓰는 그릇'을 가리키던 말이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만든 것'까지 가리키는 의미로 확장됨.
의미의 축소	단어의 의미 영역이 좁아지는 현상 예 • 미안: '재덕이 뛰어난 남녀'를 가리키던 말이 '예쁜 여자'만을 가리키는 의미로 축소됨. • 농: '평범한 남자, 사람'을 가리키던 일반적인 말이 '남자를 비하하는 말'로 의미가 축소됨.
의미의 이동 (의미의 전이)	단어의 의미 영역이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일 없이 단어의 의미만 변화하는 현상 예 • 어리다: '어리석다'를 의미하던 말이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로 변함. • 인정: '벼슬아치들에게 몰래 주던 선물', 즉 '뇌물'을 의미하던 말이 '남을 동정하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의미로 변함.

- 16 (다)에서 외국어나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고 고유어나 순화어를 사용해야 하며, 가상 공간에서도 언어 규범에 맞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국어를 잘못 사용한 경우는 불필요한 외국어나 외래어를 사용하거나 언어 규범에 맞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커피 한 잔 포장 구매할게요.'에서 '포장 구매'는 '테이크아웃'이라는 외래어를 순화하여 쓴 말이고, 커피를 대체할 고유어는 없으므로 ㉔의 예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초성만을 쓴 줄임말(ㅇㄷ: 어디야)과 띄어쓰기를 무시한 말(언능와)을 사용한 경우이다.
② '지못미(지켜 주지 못해 미안해)'라는 지나친 줄임말을 사용한 경우이다.
④ '독특한 모양과 색상이 유행이야.'라고 쓰지 않고 외국어나 외래어를 불필요하게 사용한 경우이다.
⑤ '음식 찌꺼기', '가득'이라는 순화어를 쓰지 않고 일본식 잔재 표현인 '잔반', '만땅'이라는 말을 사용한 경우이다.

17 서술형

(가)에서는 한글 창제의 목적과 정신을 밝히고 있으며, (다)에서는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외국어나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고 고유어나 순화어를 사용해야 하며, 가상 공간에서도 언어 규범에 맞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국어를 사

랑하며 국어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파악하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목적과 정신을 이해하고 되새기며, 우리말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외국어나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고 고유어나 순화어를 사용해야 하며 언어 규범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득점 전략

(가)의 중심 내용과 관련된 우리의 태도를 제시하고 (다)의 내용을 서술하라고 하였으므로 (가)의 한글 창제의 목적과 정신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제시한 다음 (다)에서 올바른 국어 사용 방법으로 제시한 것을 결합하면 되겠지요.

- 18 김 선생은 자신에 대한 대접이 소홀한 친구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으며, ㉔와 같이 말함으로써 이러한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② 친구의 집 마당에 한 무리의 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소홀하게 대접하는 것에 서운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친구의 형편을 걱정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친구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소박한 음식을 대접했다고 생각하기 힘들다.
④ 자신을 소홀하게 대접하는 친구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친구에게 감사를 표시하고자 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자신이 친구보다 살림이 넉넉하다고 보기 힘들며, 친구의 가난한 살림을 도우려는 의도도 드러나지 않는다.

- 19 ㉔와 같이 김 선생은 자신을 인색하게 대접하는 친구의 잘못을 직설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부드럽게 돌려 말함으로써 친구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돌려 말하기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나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말할 때 사용하는 말하기 방식이다.

[오답풀이] ①, ②, ③, ⑤ 직접적인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이다.

- 20 진목과 유슬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신중하게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 ㉔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웃어른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오답풀이] ① 유슬 엄마는 진목을 진심으로 칭찬하려는 의도로 말하고 있다.
② 진목은 손을 뿌리치는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유슬 엄마의 칭찬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유슬은 진목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진목을 비난하고 있다.
⑤ 유슬은 진목을 비하하여 진목의 기분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